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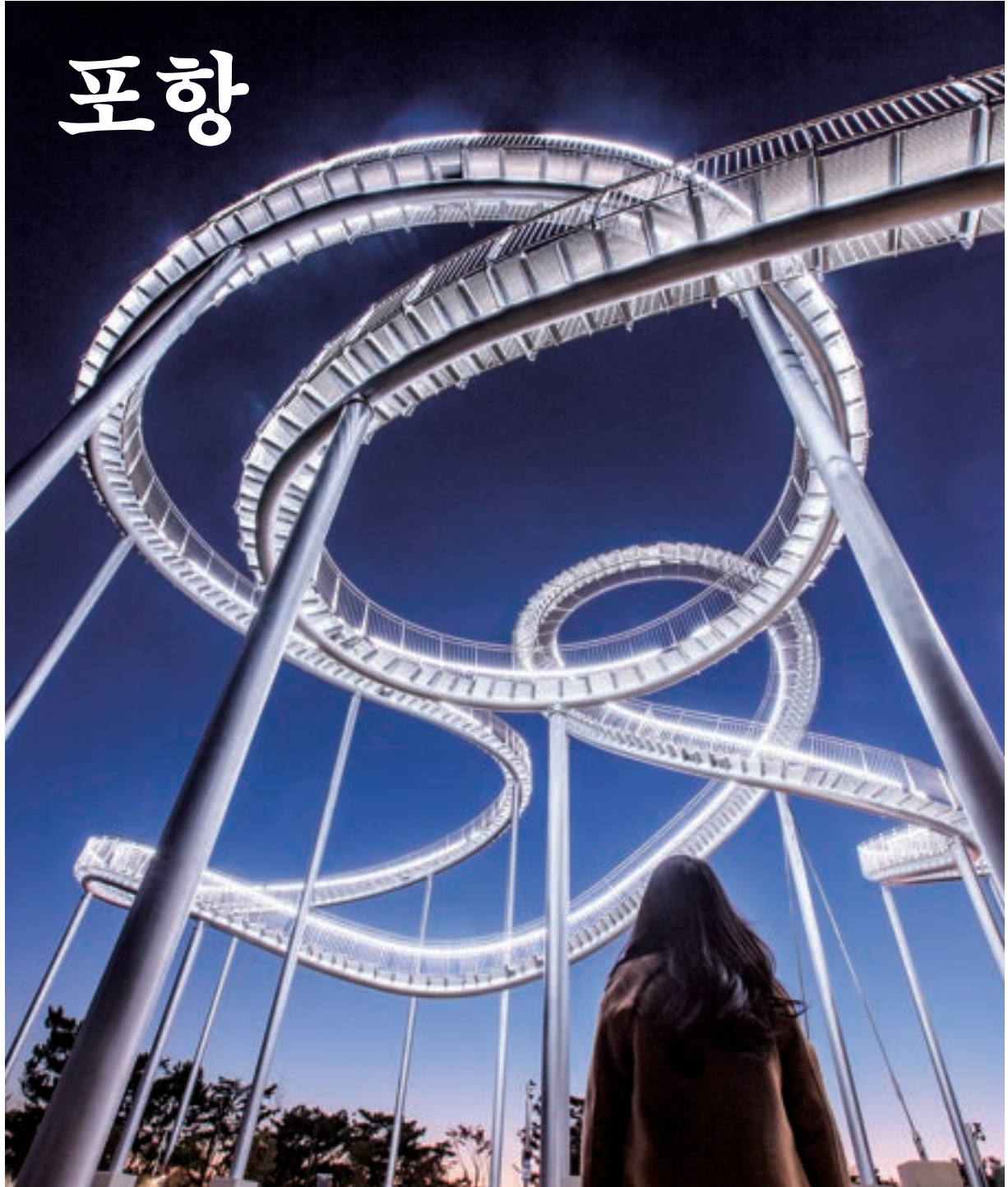


온라인에서도
(KTX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행

KTX

JANUARY 2022



거닐고 느끼고 누리다, 포항 ● 감성 어린 간이역, 정선 나전역 ● 수목화가 강미선이 담아낸 풍경



 KOLON SPORT

CWTCH



테마 여행_포항

경북 포항 환호공원의 스페이스워크는 최대 높
이 25미터, 총 트랙 길이 333미터, 무게 317
톤, 계단 717개의 초대형 조형물이다. 계단을
오르다 보면 영일만 바다가 한가득 펼쳐진다.

이 계절 이 여행_경주

일출 명소로 손꼽히는 경북 경주 감포항. 해가
떠오르기 전 보랏빛 감도는 풍경이 신비롭다.
문무대왕릉, 파도소리길이 가까워 일출을 감
상하고 이동해 바닷가 길을 거닐기 좋다.





기차 타고_정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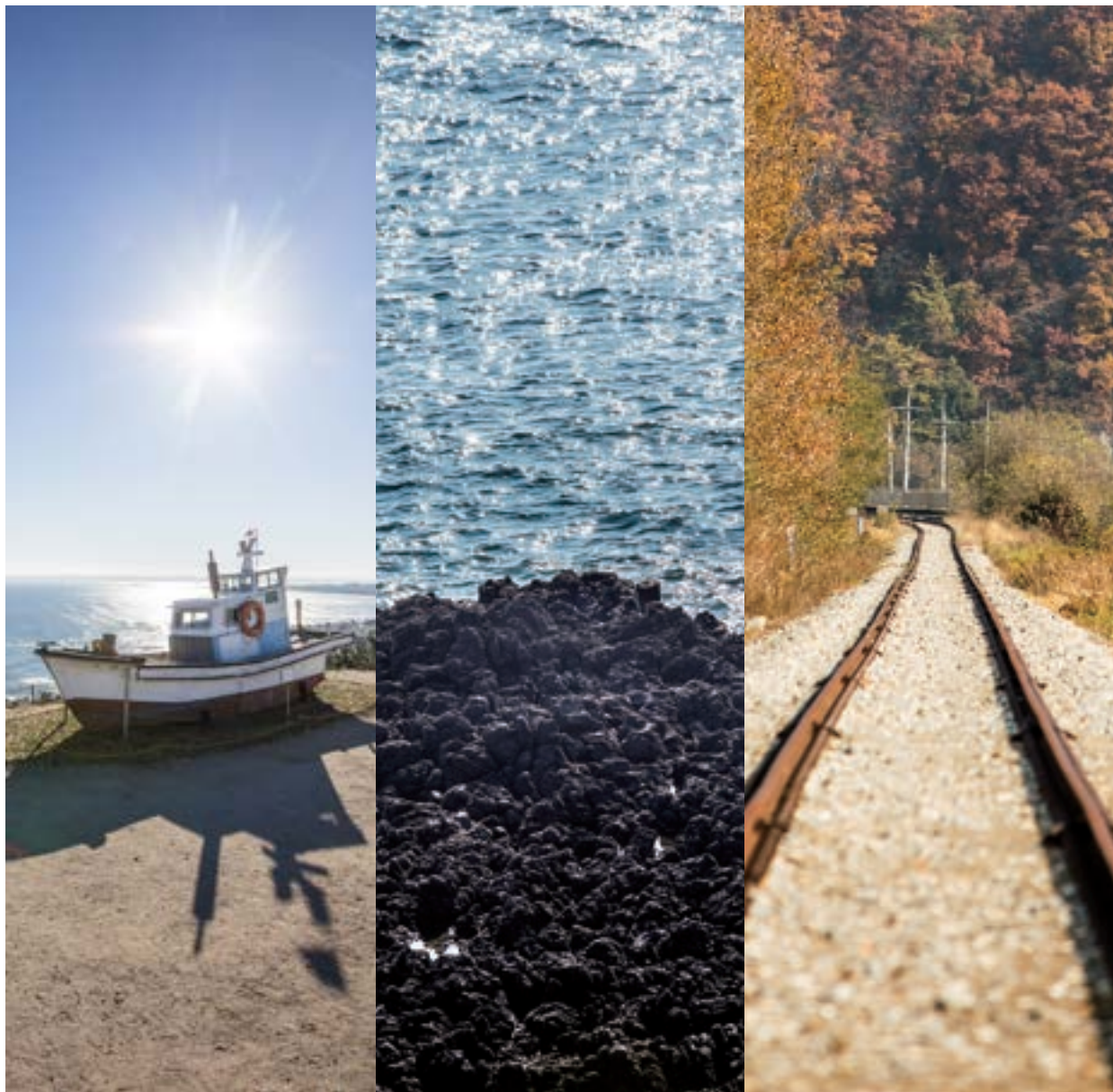
한국의 마지막 비둘기호가 달린 정선선 나전역이 카페로 변모했다. 지금도 기차가 다니는 '현직역'이자 카페다. 간이역에서 기차와 낭만은 동의어가 된다. 옛 풍경 간직한 간이역, 마음이 촉촉해진다.

작가의 방_강미선

서울 통의동 골목에 자리한 작업실 문매헌에서 수묵화가 강미선이 붓질을 한다. '할 수 있는 것만 한다'라는 마음으로 욕심을 비워야 비로소 그릴 수 있다는 그의 손놀림이 담백하다.



CONTENTS



050

테마 여행
포항

투명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곳,
경북 포항에서 푸른 휴식을 누렸다.

0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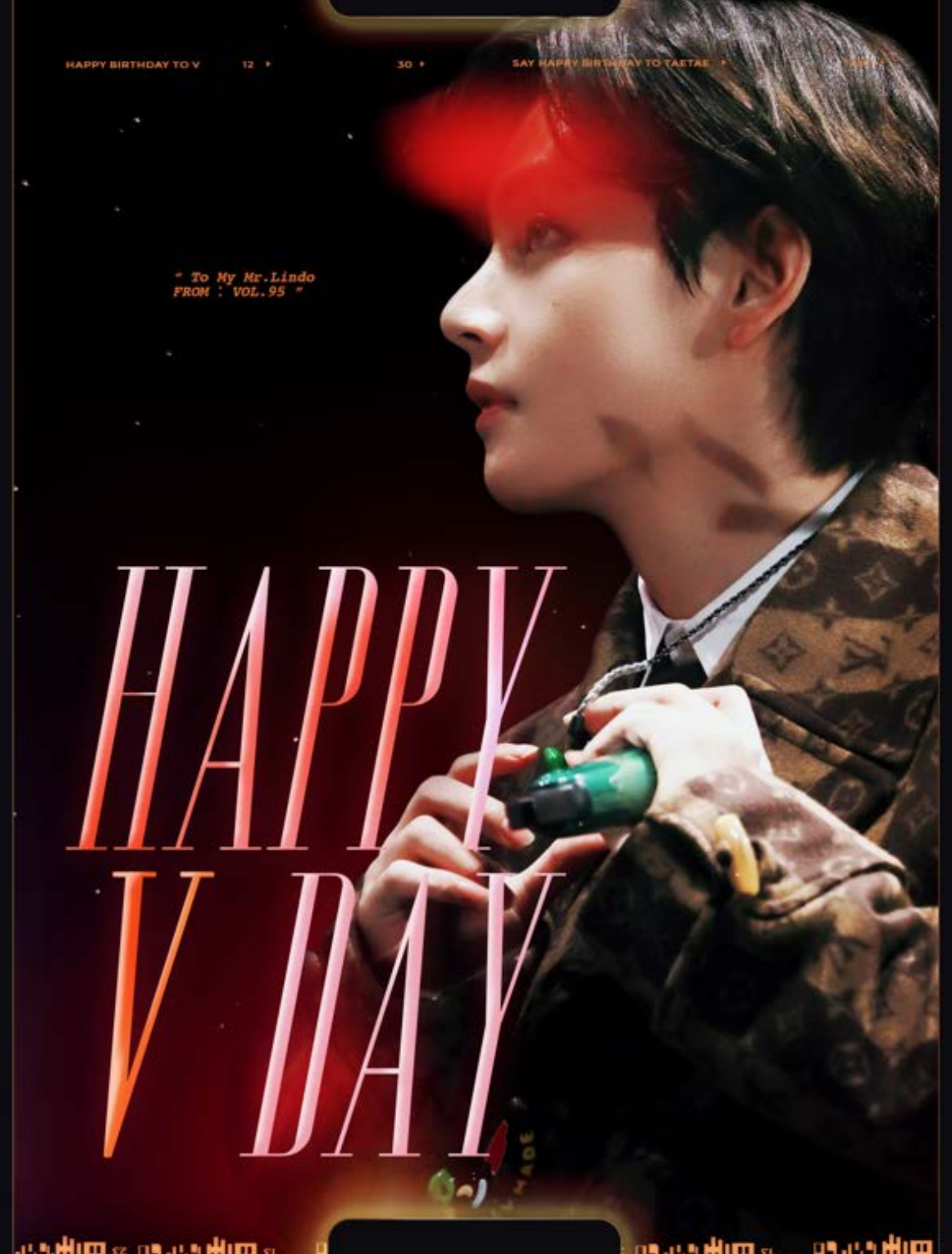
이 계절이 여행
경주

바다에서 내륙까지, 경북 경주를 걸었다.
매 순간이 삶처럼 아름다웠다.

094

기차 타고
정선

카페이자 간이역, 강원도 정선
나전역으로 감성 여행을 떠났다.



018

코레일 초대석

지난해 11월 26일 취임한 한국철도
나희승 사장에게 포부를 들어 봤다.



036

맛집 탐방

젊음의 거리 광주 동리단길에서
트렌디하고 건강한 음식을 맛보았다.



108

작가의 방

수목화가 강미선은 마음 풍경을
시간과 자연의 화폭에 내어 놓는다.



028

꼭꼭 스탬프 여행

국내에서도 여권 들고 여행한다.
국립공원 스탬프 투어를 소개한다.

084

트래블 이슈

지난해 12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경북 경주 17개 역을 기억한다.

118

문화 돋보기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상륙한 지금,
OTT업체가 '오징어 게임'을 벌이고 있다.

030

생활의 지혜

올해를 목표 달성 원년으로 만들
아이템을 에디터들이 선정했다.

090

촬영지 여행

바다와 커피 향 가득한 강원도 강릉에서
영화·드라마 촬영지를 만났다.

122

위스키 인사이트

스코틀랜드 아이러섬이 빛은아드백은
바다를 닮은 맛으로 명성을 쌓았다.



COVER STORY

경북 포항의 밤, 환호공원이 환하다. 최대 높이 25미터, 총 트랙 길이 333미터, 무게 317톤의 초대형 철강 조형물 스페이스워크가 불을 켜고 포항을 밝힌다. 글 김규보 사진 신규철

〈KTX매거진〉은 시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서 들려주며, 60여 개 언어로 번역도 지원합니다. 자동 번역기를 사용하기에 번역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KORAIL INFORMATION

- 138 한국철도 소식
- 144 시간표
- 154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 156 열차 이용 안내
- 158 비상시 행동 매뉴얼



AHILO

KTX

바로 지금, 여행
JANUARY 2022

2022년 1월호 제19권 제1호 통권(제211호) 2022년 1월 1일 발행

발행인

나희승(한국철도공사 사장)

편집

(주)서울문화사 02-3785-0900
서울시 용산구 새창로 221-19

편집인 조인원

편집장 김현정 kimhj@seoulmedia.co.kr
부편집장 김규보 kkb@seoulmedia.co.kr
기자 강은주 unddu@seoulmedia.co.kr
인턴 기자 남혜림 nhr@seoulmedia.co.kr
온라인 기자 양한나 yangyang@seoulmedia.co.kr

교열 오미경 번역 박경리

디자인

아트 디렉터 권영주 kyj@seoulmedia.co.kr 디자이너 임보영 lby@seoulmedia.co.kr
온라인·광고 디자이너 김다운 dadakorea@seoulmedia.co.kr
객원 디자이너 엄정윤

사진

라이트팩토리(LIGHT FACTORY) 070-4119-3014
디렉터 신규철
실장 이규열 조지영 이철 박정우

광고

팀장 조현익 jony2@seoulmedia.co.kr 부장 심재우 jwshim22@seoulmedia.co.kr
사원 김수연 ktxad@seoulmedia.co.kr

배포

소장 이재우

경영지원실

본부장 정영기

제작팀

팀장 이수행 부장 오길섭 과장 정수호

전략기획실

본부장 심정섭

기획팀

팀장 임용욱 차장 박선주

인쇄 (주)타라티피에스

<KTX매거진>은 KTX와 ITX-새마을, ITX-청춘 열차 내 전 좌석에 비치하는 월간지입니다.
보신 뒤에는 다음 승객을 위해 제자리에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KTX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 편집 02-3278-5528 광고 02-3278-5556



DISCOVER OUR COLLECTIONS AT SUITSUIT.CO.KR



SUITSUIT

오랜만이에요,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살면서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오랜만입니다”죠. 그 말씀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이에요.

2004년 4월 1일 KTX 개통과 동시에 창간해 매달 빠지지 않고 나온 잡지를 2021년 9월호 이후 석 달이나 못 보여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이전 제작사 사정으로 발행이 중단되고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독자님께 죄송해서 어찌지?’였어요. 기차 안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독자님을 맞이해야 하는 잡지가 공지도 없이 사라지다니요. 독자님이 기다리실 텐데, 약속을 어기는 상황에 애가 났습니다. 이 잡지를 사랑하고, 매일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만들다가 하루 아침에 못 하게 되자 일을 멈춘 게 아니라 삶이 멈춘 기분이었어요. 제게는 정말 <KTX매거진>이 삶이었나 봐요.

소중한 독자님들이 보내 주신 메시지 하나하나를 기억합니다. 어느 분은 “금년 10월호 대신 작년 10월호를 펼쳐 보았습니다. 안동, 목포를 분주하게 오가셨더군요. ‘스승은 못 되더라도 제자는 되어 보자. 제대로 된 제자의 삶만 살아도 매화와 배롱나무 꽃 같은 향기가 날 터다.’ 발행되지 않은 금년 10월호에 얼마나 아름다운 말과 풍경이 담겼을까. 생각할수록 아쉽습니다”라는 말씀으로 저를 울리셨어요. 또 다른 분은 “기자님 기사를 처음 읽었던 순간을 선명히 기억합니다. KTX 열차 안에서 <KTX매거진>을 처음 접어 든 순간을요. 잠을 자거나 휴대전화 보는 것

이 전부였던 기차 안 제 모습을 <KTX매거진>이, 기자님의 기사가 바뀌 놓았습니다”라고 하시며 몇 년 전 기사부터 심지어 편집 후기까지 줄줄이 읽으셨습니다. “언제쯤 <KTX매거진>이 돌아올까요? 너무나 그립습니다. 애타게 기다리는 애독자로서 그리운 마음 꼭꼭 눌러 담아 보냅니다.” 황송하고 죄송했습니다. 얼굴 모르는 독자님과 매거진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기도 했고요.

마침내, 다행히 1월호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잡지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지금 1월은 해가 바뀌면서 새로 생기거나 달라지고, 한편으로는 역사의 뒤로 물러나는 것이 많은 때지요. 경주는 동해남부선과 중앙선이 선로를 옮겨 여러 역이 문을 닫아요. 소식을 듣고 경주역을 비롯해 추억 물씬한 역들을 다녀왔습니다. 포항에는 아름답고 독특한 조형물 스페이스워크가 들어섰더라고요. 이곳들을 소개할 수 있어 기쁩니다. 사랑하는 잡지를 만드는 저희의 하루하루가 즐거웠듯 독자님이 잡지를 읽으며 같은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몇 년 동안 열정을 바쳐 함께 잡지를 제작하고도 독자님께 제대로 인사드리지 못한 이영란 편집국장님, 이내경 기자, 표다정 기자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TX매거진> 편집장 김현정



“우유로 세상을 건강하게
우유에 진심을 담다”



“좋은 우유를 위한
당신의 선택 나100%”

나100%
체세포수 1등급
세균수 1A등급





“한반도 교통의 새 지평 여는 혁신의 한국철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6일 취임한 나희승 한국철도 사장에게 방역 체계 구축부터 탄소중립 정책까지 포부를 들어 봤다.

철도는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성장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철도 투자를 더욱 확대하면서 철도 중심 교통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철도 사장으로 취임한 소회가 궁금합니다. 한국철도는 120년 이상을 여객 운송과 물류의 대동맥으로서 경제 발전의 근간이자 일상의 동반자로 국민과 함께해 왔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철도 투자가 도로 투자를 넘어서면서 철도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시기에 철도 정책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2004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개통한 한국 고속철도는 전국 곳곳을 반나절 만에 연결하며 삶과 사회를 혁신적으로 바꾸었습니다. ‘한국철도 신 르네상스’를 연 한국철도는 이제 대륙으로 향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머잖아 대륙으로 나아가는 열린 공간이 될 한국철도가 당면한 과제 중 하나가 경쟁력 강화입니다. 고속철도 수혜 지역을 확대하고 공공 주택이나 환승 센터 건립 같은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종합 물류 사업을 다각화해 물류 적자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내실을 다져 철도 중심 교통 정책에 부합하는 동시에 한반도 교통의 새 지평을 여는 한국철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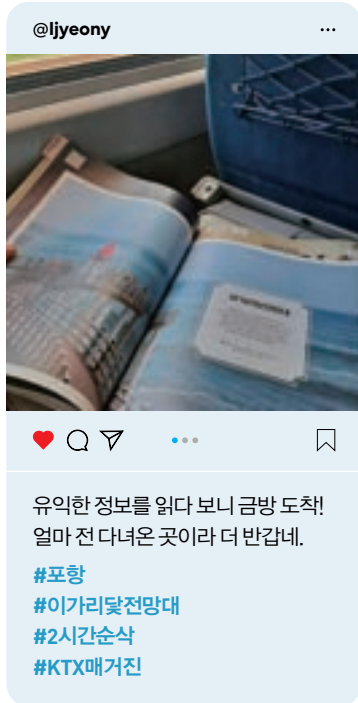
한국철도는 국제철도연맹,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될 정도로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해 왔고, 사장님께서 취임사에서 밝힌 운영 원칙 중 첫 번째도 안전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철도 안전 유지 방안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힘든 시기를 보내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그랬듯이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것이며, 그럼으로써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에 힘을 보태고자 한국철도는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탄탄한 철도 방역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선제 대응에 방점을 둔 방역 체계를 가동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승하차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철도 안전 관리 기술을 도입하고 예방 중심의 선제 관리에 나서겠습니다. 물론 역사와 객차를 하루에 두 차례 이상 집중 방역하거나 운행 열차를 3분 30초마다 환기하는 기존 방역 시스템은 철저히 유지해 나가려 합니다. 세계 최고의 안전성과 정시율을 자랑하는 한국철도는 해외 선진 철도와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방역 대응 체계를 견고히 해 직원과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철도를 만들겠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재직 시절에 남북·대륙 철도 연결을 시대적 소명으로 여기고 연구를 다수 진행하셨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에 이

르는 철도 네트워크의 가교로서 한반도와 한국철도가 지니는 의미가 특별할 것 같습니다. 2018년 12월에 남과 북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으며, 이에 앞서 한국철도는 같은 해 6월에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가입했습니다. 이는 한국철도가 유라시아 대륙에 진출할 기반을 마련한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한국이 국제철도협력기구 회원국 지위로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국제 열차를 운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을 평양, 중국 베이징, 러시아 모스크바와 잇는 열차는 한반도와 동북아 사이의 단절된 공간을 복원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그때 한반도는 닫힌 영토, 폐쇄적 영토에서 열린 영토 개념으로 의미가 확장돼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을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 주요 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결해 가는 남북 철도, 그리고 대륙 철도는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입니다. 한국철도는 세상을 바꾼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위대한 도약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는 탄소중립을 선도해야 할 책임감이 막중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한국철도는 어떻게 부응해 나갈 예정인가요. 철도는 친환경 교통의 최고봉이며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 핵심 기간산업입니다. 환경보호와 경제 발전을 함께 추구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철도가 지닌 의미는 매우 큼니다. 최근 ESG 경영이 화두로 떠오른 만큼, 정부와 보조를 맞춰 저탄소·친환경 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이미 한국철도는 지난해 12월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선언’ 1주년을 맞아 환경부가 주관하는 탄소중립 주간 캠페인에 동참해 국민 인식 제고와 참여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저탄소 제품 사용하기, 인쇄 시 종이 사용 줄이기, 공용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교체하기 등 내부 정책을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철도는 2012년 경부선 KTX를 시작으로 지난해 중앙선 KTX-이음까지 10년 연속 ‘올해의 녹색상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탄소중립을 선도하여 친환경 한국철도의 명성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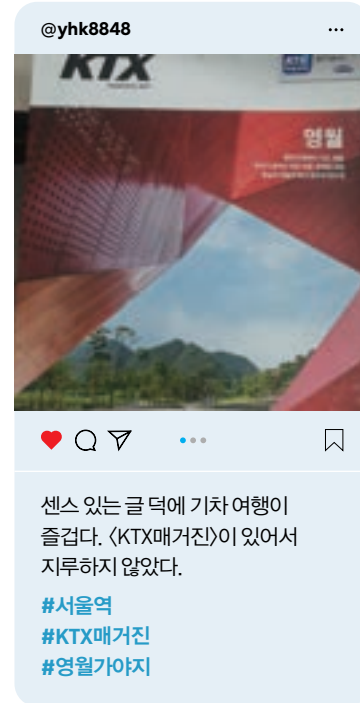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기차와 관련한 추억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몇 년 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7일간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눈 덮인 지평선 너머 일출에, 저녁에는 아름다운 노을과 끝없이 펼쳐진 자작나무의 장엄한 광경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남북·대륙 철도가 하루빨리 연결돼 모두가 KTX를 타고 시베리아의 멋진 설경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①



내 손안에 펼쳐지는 KTX매거진

SNS에 #KTX매거진을 태그해 올려 주세요.

follow



기적

북방경제 중심지! 글로벌 비즈니스의 을 만듭니다!

미세먼지가 적은 천혜의 청정 자연환경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규제 완화, 편리한 생활환경, 간편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자유롭고 폭넓은 기업활동을 보장합니다.



국제복합 산업지구
세계적인 인력·기술·자본이 융합된 국제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

동해시 구호동 일원



국제복합 관광도시
연1억명 이상이 방문하는 환동해 최고의 해양 명품관광지

동해시 망상동 일원



첨단소재 융복합산업지구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첨단소재부품산업 클러스터

강릉시 옥계면 일원



25769 강원도 동해시 해안로 231(천곡동)
efezadmin@korea.kr

북평 장기임대단지 2차 공고 중(8필지 4190㎡)

기간 '21.12.27.~'22.1.24. 홈페이지(공고) www.factoryon.go.kr

문의 033.539.7671

독일 공업지대를 대표하는 도시 뒤스부르크의 산업 시설이 미술관으로 변모했다.



© MKM Duisburg / Herzog & de Meuron © Photo: Simon Menges

MUSEUM KÜPPERSMÜHLE



퀴퍼스뮐레 미술관

뒤스부르크의 19세기 산업 시설이 미술관으로 변모했다. 1860년대에 지어 제철소, 곡물 공장 등으로 쓰이며 이 도시의 역사와 함께한 건물이다. 세월의 흐름 속에 1972년 용도 폐기한 건물을 건축가 듀오 헤어초크와 드 뢰롱이 리모델링해 지난해 9월 문을 열었다. 영국 런던의 화력발전소를 테이트 모던으로 단장해 세계적 명성을 얻은 이들은 이번에도 과거의 흔적을 물씬 풍은 현대 미술관을 선보인다. 루르강을 따라 수많은 폐공장이 늘어선 뒤스부르크에 퀴퍼스뮐레 미술관이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다. 굴뚝에서 더 이상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는다 해도 옛 건물이 할 역할은 여전히 있다.

→ www.museum-kueppersmuehle.de





동물의 날도 기억해 주세요

1월 31일은 국제 얼룩말의 날이다. 수많은 동물이 멸종 위기에 놓인 지금 '있었는데 없습니다'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일 때다.

는 코뿔소의 난자로 인공수정을 시도 중이다. 그나마 암컷 한 마리는 노쇠해 복원 프로젝트에서 은퇴했다. 2600만 년간 생존해 왔고 19세기 중반만 해도 100만 마리 이상이었던 코뿔소가 불과 백수십년 사이에 이런 처지가 되었다. IUCN 적색 목록을 보면 원래 환경에서 생존하지 못하고 보호시설에서 근근이 생명을 이어 나가는 야생 절멸종이 85종, 야생 절멸이 코앞인 멸종 위기·위기·취약 등급 종이 4만 종이다. 조사 대상인 13만 8000여 종의 28퍼센트가 넘는다. 그럼에도 인간은 여전히 위기종을 포획하고 서식지를 파괴한



국제 얼룩말의 날
01.31



세계 거북의 날
05.23



국제 호랑이의 날
07.29



세계 코뿔소의 날
09.22



세계 원숭이의 날
12.14

과가라는 종의 얼룩말이 있었다. '있다'가 아니라 '있었다'다. 얼굴과 몸 앞부분까지 줄무늬가 선명하다가 중간부터 없어지는 독특한 생김새의 얼룩말로, 남아프리카 초원이 서식지였다. 이 매력적인 얼룩말은 1870년대에 야생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1883년 네덜란드의 한 동물원에서 사육하던 마지막 한 마리마저 수명을 다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지구상에서 과가 얼룩말이 멸종되었음을.

산업혁명 이전에는 대부분 자연의 섭리에 따라 생명이 번성하고 멸종했다. 이 섭리를 인간이 비틀었다. 인간은 자연을 훼손하고 수많은 생물을 식용·약용·미용 목적으로 포획하거나 채취했으며 취미로 사냥했다. 어어, 하는 사이에 동물과 식물이 줄어들고 심지어 사라졌다.

이대로 두어도 괜찮은가, 멸종할 존재는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온 좋게 생존한 종끼리만 살아가겠는가. 그럴 수는 없다. 무엇이 왜 멸종했는지, 멸종이 지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내고,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야 했다. 1964년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레드 리스트가 출범했다. 전 세계 동식물과 균류 현황을 조사하는 기구는 '적색 목록(레드 리스트)'을 발표한다. 이들의 연구 결과, 한때 지구에서 인간과 공존했으나 지금은 영영 사라진 종은 카스피호랑이, 황금두꺼비, 핀타자이언트거북, 카리브해몽크물범, 웃는올빼미 등 땅·바다·하늘을 가리지 않고 무려 935종에 이른다.

멸종된 종을 붙들고 울고만 있기엔 상황이 급박하다. 현재 지구상에 북부흰코뿔소는 암컷 두 마리가 전부다. 먼저 죽은 수컷 두 마리에게서 정자를 추출해 냉동해 놓았고, 살아 있

다. 2010년에서 2021년까지 밀매에 희생된 천산갑은 100만 마리에 달한다. 고기는 식용으로, 비늘은 약재로 쓴다고 잡아들여 결국 천산갑 어덜 종 모두가 멸종 우려 등급에 오르게 했다. '산을 뚫는 갑옷'이라는 이름을 지닌 천산갑도 인간의 탐욕 앞에서는 무력했다. 코끼리, 사자, 호랑이, 상어, 독수리가 못 견디는 것을 작은 어류나 곤충이 버티라.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생물이 지구 늘어난다.

여전히 희망은 인간이다. 세계가 10년간 꾸준히 어획 할당량 정책을 시행하자 멸종 위기종인 참치 7종 가운데 4종의 위기 등급이 하향 조정되었다. 한국인이 좋아하나 한국에서는 자취가 사라진 백두산호랑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지키고 있다. 중국이 서울 면적의 23배에 이르는 1만 4100제곱미터 땅을 국가공원으로 지정하고 보호 조치를 실시한 결과 2017년 27마리에서 2021년 50마리로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1월 31일은 국제 얼룩말의 날이다. 2월 셋째 토요일은 세계 천산갑의 날, 5월 23일은 세계 거북의 날이다. 1년에 동식물을 기념하는 날은 100여 일. 멸종 위기 생물이 이토록 많고 그 책임이 인간에게 있으니 1년 모든 날을 그들에게 돌려주어도 모자라다. 우주에서는 '창백한 푸른 점' 하나에 불과한 지구에 생물 150만 종이 어우러져 살아간다. 인간이 발견해 종을 지정한 생물이 이 정도다. 과학자들은 1000만~2000만 종에 이르리라 추정한다. 거대한 생명의 그물. 얼룩말이 사라진 지구는 지금의 지구와 결코 같지 않을 것이다. 얼룩말이 살지 못하는 지구가 인간에게 안전한 터전일 리도 없다. 기회가 아직은 남아 있다. 진심 어린 관심이 필요하다. **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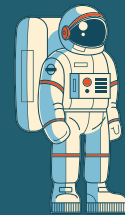
우주라는 멋진 신세계

연구 대상을 넘어 여행 대상으로. 과거 상상 속 공간이던 우주가 이제 실현 가능한 여행지로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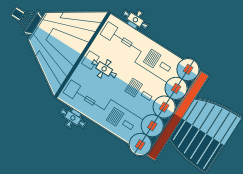


1966년 방영을 시작한 미국 SF 드라마 <스타 트렉>에서 우주 함선 엔터프라이즈호를 운항한 제임스 커크 선장이 아흔 살 나이에 진짜 우주로 날아갔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지 52주년을 맞은 지난해 7월 20일, 블루오리진의 뉴세퍼드가 배우 윌리엄 새트너,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등을 태우고 우주로 떠났다. 이들은 지상에서 100킬로미터 위, 지구와 우주의 경계선인 카르만 라인을 넘어 지구를 감상했다. 며칠 앞선 7월 11일에는 버진그룹 회장 리처드 브랜슨의 버진갤럭시가 약 88킬로미터 위를 다녀왔으며, 9월 15일에는 스페이스엑스의 일론 머스크가 쏘아 올린 크루드래건이 575킬로미터 상공에서 매일 지구를 열다섯 바퀴 이상 돌고 귀환했다. 수억 원 이상의 '상품 가격'에도 날로 길어지는 대기자 명단이 우주여행을 향한 관심을 대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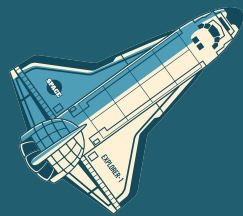
윌리엄 새트너는 착륙 직후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경험"을 했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글썽였다. 2021년에 그 심오한 경험을 한 사람은 스물여덟 명. 열세 차례 유인 우주 비행 가운데 여덟 번이 민간 우주여행이었다. 이제 우주여행은 꿈이 아니라 '비싼 현실'이다. 여행 앞에서 우리가 언제나 해야 하는 질문이 있다. '어디로'와 '왜'다. 목적지가 우주인 여행, 엄청난 비용을 들여 우주에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업가들은 여행객으로 암 투병 생활을 했던 간호사를 초청하는 등 의미를 부여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제프 베이조스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구 생태계 복원 사업에 4억 4300만 달러(약 5200억 원)를 기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주여행이 한층 가까워진 지금, 몇 사람의 벅찬 감동에 그치지 않고 아름다운 푸른 별 지구를 사랑하는 계기가 되기를. **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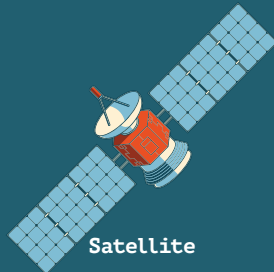
Astrona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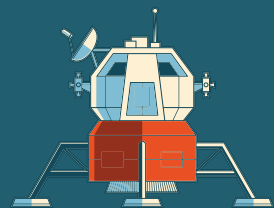
Space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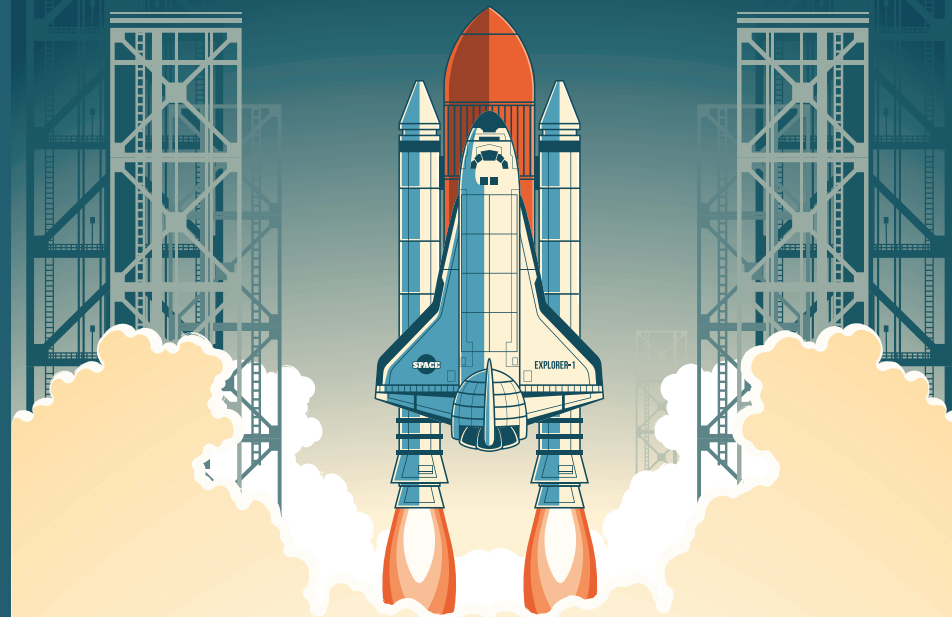
Shutt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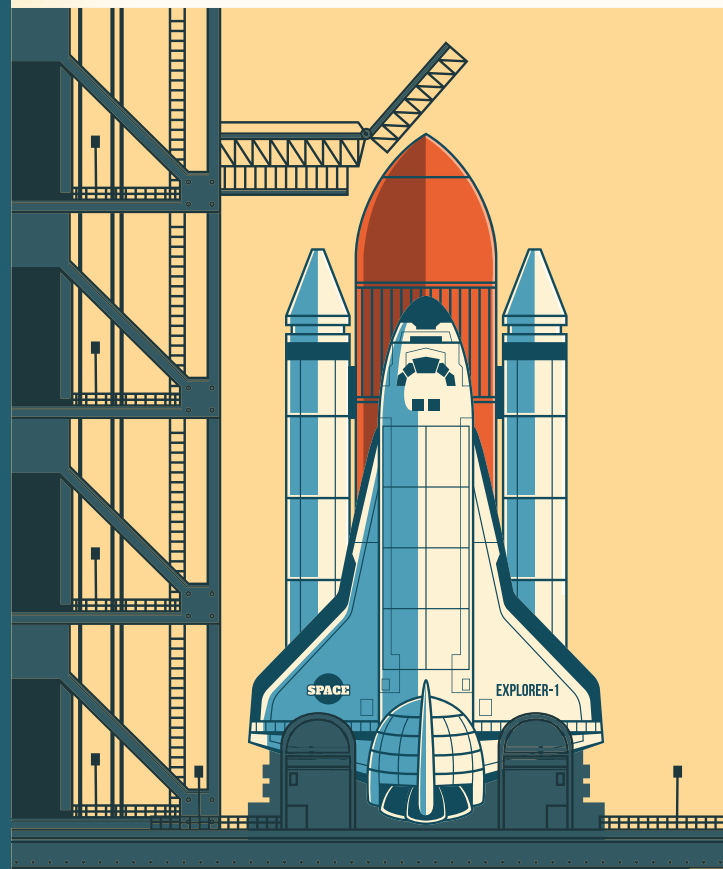
Satellite



Lunar Module



SPACE



▶ 민간 시장의 성장

모건 스탠리는 우주산업의 민간 시장 규모가 2018년 3500억 달러에서 2040년 세 배가량 증가하리라고 예측했다.

3500억 달러



1조 달러



▶ 점차 커지는 관심

2021년 10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국제우주대회에는 110개국이 참가했다. 국제우주연맹이 매년 개최하는 대회는 참가국과 인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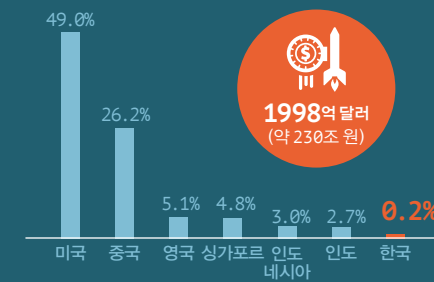
2011년 60여 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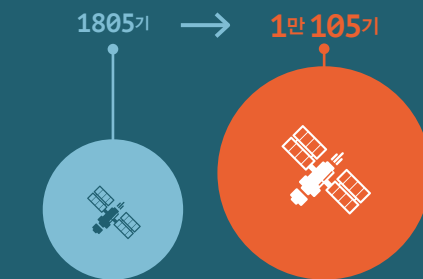
2021년 110개국

▶ 각국의 우주 기업 투자

2009년 이후 2021년 2분기까지 1553개 우주 기업에 투자된 금액은 약 230조 원으로, 이 가운데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2퍼센트 수준이다.



1998억 달러 (약 230조 원)



▶ 우주여행 상품 빅3 비교

민간 우주여행을 주도하는 세 업체의 여행 상품을 비교 분석한다.

버진갤럭시



25만 달러 (약 3억 원)



여행지 고도 약 88킬로미터



체류 시간 약 14분



탑승 인원 6명(정원 8명)

블루오리진



20만~30만 달러 (약 3억 원)



여행지 고도 약 107킬로미터



체류 시간 약 10분



탑승 인원 4명(정원 6명)

스페이스엑스



5500만 달러 (약 642억 원)



여행지 고도 약 575킬로미터



체류 시간 약 3일



탑승 인원 4명(최대 7명)



국립공원 여권 여행

한국 안에서도 여권 들고 도장 찍으며 재미있게 여행한다.



01

지리산국립공원

산악형 국립공원 중 면적이 가장 넓은 지리산국립공원은 1967년 한국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지리산국립공원 도장에는 지리산을 상징하는 귀여운 반달가슴곰이 찍혀 있다. 예부터 한반도 사람들의 기상과 혼이 서린 곳이라 여긴 지리산은 금강산, 한라산과 함께 삼신산(三神山)이라 불린다. 이름이 지닌 무게만큼 지리산 일대에는 영남과 호남의 지붕 역할을 하는 웅장한 봉우리와 계곡이 많다. 북쪽으로는 만수천에서 낙동강으로 물길이 이어지고, 남쪽으로는 섬진강이 흐른다. 대자연의 큰 품이 생명을 따뜻하게 안아준다.

문의 055-9970-1000



02

경주국립공원

한국에서 유일한 사적형 공원답게 신라 문화의 정수인 불국사, 석굴암을 비롯한 유적이 찬란하다. 신라 시조인 박혁거세의 탄생 설화가 담긴 우물 나정과 불교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차돈의 순교비 등 1000년 역사 속을 거닌다. 8개 지구로 이루어진 공원에는 내륙뿐 아니라 바다도 포함돼 있다. 죽어서 나라를 지키는 용이 되겠다는 문무왕의 해상능을 비롯해 부채꼴 주상절리의 절경도 놓치기 아깝다. 귀를 간질이는 파도 소리가 배경 음악이 되어 풍경이 주는 감동이 더욱 커진다. 문화유산과 자연경관 모두 다 가진 국립공원으로 역사와 지형을 한번에 살펴보기 좋은 장소다.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 해도 손색없다.

문의 054-778-4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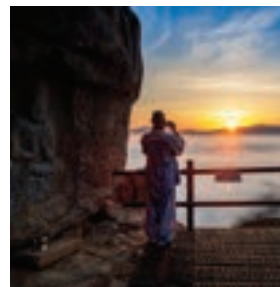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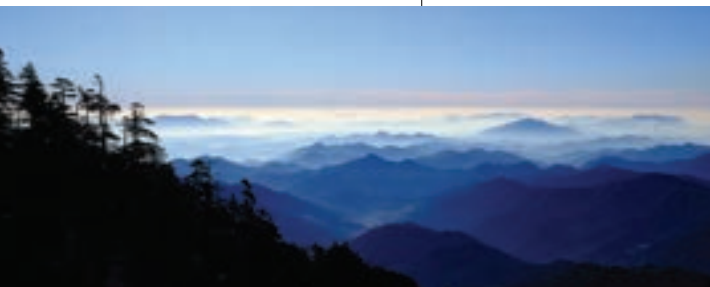


03

태백산국립공원

한민족은 태백산을 영산(靈山)으로 여겼다. <삼국사기>에는 “신라에서는 태백산을 3산5악(三山五岳) 중 하나인 북악(北岳)이라 하고 제사를 받들었다”라고 기록했다.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천제단이 자리한 정상에 서면 백두대간과 함께 멀리 동해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주목 군락지로도 유명한 이곳을 겨울에 새하얀 눈으로 뒤덮여 낭만적 설경을 뽐낸다.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을 간다는 주목의 눈꽃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매년 1월 말에는 태백산눈축제, 6월 초에는 태백산철쭉제가 열리는 데 팬데믹으로 개최 여부가 달라지니 미리 알아봐야 한다.

문의 033-550-0000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특별한 여행을 위해 국립공원 여권을 준비했다. 탐방객은 여권에 각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동물·문화재·경관을 새긴 인증 도장을 찍으며 여행한다. 디자인이 서로 다른 도장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외한 스물한 곳을 모두 탐방하면 메달, 기념품과 함께 추첨을 통해 생태탐방원 숙박권을 증정한다. 올겨울엔 여권을 챙겨 국립공원으로 떠나자.



04

설악산국립공원

설악산국립공원은 많은 동식물이 살아가는 생태계의 보고로 한국의 다섯 번째 국립공원이다. 1982년에는 한국에서 최초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지정되기도 했다. 산을 오르다 생각지 못한 야생동물을 만날지 모르니 주변을 잘 살필 것. 한반도 중앙에 자리한 설악산은 인제군 쪽을 내설악, 속초시와 고성군 양양군 쪽을 외설악이라고 한다. 특히 흔들바위, 호박바위, 기동바위, 넓적바위 등 암석 지형의 경관이 아름답다. 1월 15일까지는 설악산 설악동에 탄소중립 야영장을 시범 운영한다. 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한 야영장이다.

문의 033-801-0941



05

가야산국립공원

우뚝 솟은 상왕봉이 소 머리를 닮았다 하여 '우두산'이라 부르는 가야산국립공원. 우두산 꼭대기에는 가을에도 마르지 않는 우비정(牛鼻井)이 있다. 사서 <고기(古記)>는 해동의 10승지 또는 조선팔경 중 하나인 가야산을 "산형은 천하에 절승 중 제일이다"라고 기록했다.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든 팔만대장경을 봉안한 자리한다. 팔만대장경을 보존해 온 해인사에서 나라를 지키려 한 선조의 간절함을 가늠해 본다. 해인사 앞자락을 굽이치는 흥류동 계곡에는 신라의 문장가 고운 최치원 선생의 자취가 남은 농산정과 물길을 따라 가야산 소리길이 이어져 산책하기 좋다.

문의 055-930-8000



06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섬이 많은 바다'라는 지명에 걸맞게 국립공원 안에 400여 개의 섬이 있다. 전남 신안 홍도에서 여수 돌산면에 이르는 면적도 한국 국립공원 중 가장 넓다. 오밀조밀 모인 섬과 구불구불한 해안선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아스식해안을 형성했으며, 홍도·흑산도·백도 등의 기암절벽이 절경을 이룬다. 홍도의 동백꽃숲은 사진 찍기에 안성맞춤이다.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가 발견되는 곳으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설치된 상괭이 캐리커 조형물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어 보자.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와 접점이 떠 있는 섬이 발길을 이끈다.

문의 061-550-0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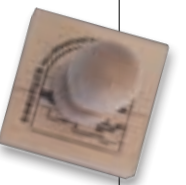


07

무등산국립공원

광주를 대표하는 명산으로 꼽히는 무등산국립공원은 1972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가 2013년 국립공원 제21호로 이름을 올렸다. '등급 없는 산'이란 이름은 빼어난 아름다움이 세상 어느 산과도 비길 바 없다 해서 붙은 것이다. 수직 절리상의 암석 지형인 입석대·서석대·규봉이 이 산의 보물이다. 특히 노을이 질 무렵 햇살을 반사해 수정처럼 반짝이는 서석대가 하이라이트다. 수정봉이라는 별명이 잘 어울린다. 신라 시대 원효대사가 창건한 원효사와 통일신라 시대 사찰 중심사를 기점으로 한 원효계곡·용추계곡 등산로도 사계절 내내 인기 코스다.

문의 062-230-2031





#보여 줄게, 금손으로 태어날 나

월드비전 베이직포겔스 손으로 하는 건 다 못하는 SS급 무능력자가 비늘을 잡아보려 한다. 아프리카 소녀들이 생리대가 없거나 뭇잎을 사용하거나 생리 중에는 등교도 포기한다는 이야기에 큰 결심을 했다. 키트로 간단히 만든다니 도전! 바느질 선이 삐뚤삐뚤해도 이해해 주세요. 핸드메이드잖아요... 문의 02-2078-7000

김규보



#안녕하세요, 파워 워킹 전도사입니다

LAR_친환경 인솔 뱀부 집에서 회사까지 5킬로미터를 걸어서 출근한다. 건강해지는 느낌에 많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뿌듯하다. 그렇다고 운동화만 신기는 곤란한 노릇. 친환경 패션 브랜드 LAR이 대나무 원사와 인진쑈로 만든 폭신한 깔창을 내놴다. 네네, 이거 깔고 내내 파워 워킹 할게요. 문의 02-499-1110



#청소하느냐 청소되느냐 그것이 관건

트리플블랙_Z5 이쯤이면 다음 생이나 돼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겠으나, 아무튼 새해니까 지난해와 같은 목표를 세웠다. 사무실 책상 깨끗하게 유지하기. 강력한 흡입력, 고성능 필터, 예쁜 디자인이 마음에 쏙 드는 미니 청소기가 도와줄 것이다. 물론 내년 이맘때엔 이것도 청소 대상이 될지 모른다. 문의 1577-0407

김규보



#힘들게 지웠지만 빼 보려 합니다

아이리버 스마트 체중계 SB-803P 위대한 정신은 불가능에 도전하고 김규보는 다이어트에 도전한다. 8개 센서가 전신 데이터를 정밀하게 측정해 체중은 기본이고 체지방, 체지방률, 근육량, 비만도 등 20가지 신체 정보와 그 변화를 앱으로 보여 준다. 다다음 생까지 고장 나지 않아야 할 텐데. 문의 1577-5557

작심삼백만일

올해를 목표 달성 원년으로 만들어 줄 아이템을 선정했다.



#이 세상 누구보다 날 사랑해

ONDO_리추얼 키트 올해는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 한다. 일단 '장비'부터 갖추고 시작한다. ONDO의 리추얼 키트는 감정을 치유하는 스머징 스틱과 원석으로 이루어진다. 팔로산토와 에르바산토, 백수정과 자수정, 오묘한 푸른빛의 방해석을 머리맡에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기분이다. 문의 070-8065-3610

김혜림



#연필의 시간

서울공예박물관 아트 슝 연필 키보드로 휘리릭 글을 쓰다 보면 손으로 쓰는 감각이 어떤 것이었는지 잊게 된다. 새해엔 글씨를 처음 쓰기 시작하는 마음으로 연필을 쥐어 볼 생각이다. 서울공예박물관 아트 슝에서 만난 이 납작한 연필은 독특한 그림감과 서정적 문구로 글 쓰는 시간을 즐겁게 만들어 준다. 문의 02-6450-7000



#키덜트 시장은 내가 접수한다

비온뒤_A5 데코포켓 6공 파일 예쁜 쓰레기? 아니다. 무엇이든 모아 두고 보면 보물인 법. 올해엔 '어른이'로서 스티커를 잔뜩 모으고 싶다. 포켓이 나뉘어 크기가 각기 다른 스티커를 안전하게 보관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모아 놓은 스티커를 앨범처럼 넘기며 구경할 때 느끼는 쾌감은 덤. 문의 02-574-7154

남혜림



#털뭉치야 건강하자

위그힐 위시케어 키트 뽀짝뽀짝 털뭉치가 활기차게 뛰어놀 때가 옛그제 같은데 강아지도 나이를 먹는다. 이 제품은 노령 반려동물을 위한 검사 키트다. 소변만으로 간편하게 건강을 확인할 수 있다. 반려동물에게 위험한 당뇨병, 방광염 등 열 종류의 질병을 감지한다니 안심. 올해는 더 사랑해야지. 문의 070-8866-7749



겨울엔 간식

봄·여름·가을도 그렇지만, 겨울 역시 양보할 수 없는 간식의 계절이다. '다음 중 올바른 간식을 고르시오.'

4.4점



• 세브일레븐 x 고래사어묵우동 •

김현정 오오, 다양한 어묵. '이 중에 하나쯤은 네 취향이 있겠지' 하는 고래사어묵의 패키지가 느껴진다. 매운맛 버전 출시 부탁드리고요, 어묵 하면 국물인데 용기가 국물 마시기 힘든 구조인 점도 아쉽네요. ★★☆☆ / 김규보 어묵은 신비롭게 맛난 음식이고 우동은 아름답게 맛난 음식이다. 이런 입장에 무슨 말을 보태랴. 신비로우리만큼 아름다운 어묵 우동을 후루룩 짹짹 하면서 내 입장은 더욱 확고해졌다. ★★★★★ / 강은주 4종으로 이뤄진 어묵의 구성이 알차다. 특히 구운 어묵을 한 입 베어 무니 입안 가득 훈연 향이 밀려온다. 추운 날이면 자꾸 생각나겠다. ★★★★★ / 남혜림 간장 베이스 국물이 진해서 정말 맛있어요. 어묵도 식감이 다양해서 맛있습디다. 어묵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도 이걸 계속 맛있네요. 우동 좋아! ★★★★★

2.6점



• 삼립호빵 따끈하끈 로제호빵 •

김현정 알고 보니 고추장이 들어간 K-로제... 다음부터 이름으로 혼란 주지 않기, 약속! 고추장은 웬만한 음식과 다 잘 어울리지만, 감자튀김에도 고추장을 찍어서 맛있게 먹었지만, 호빵은 예외라는 사실을 이번에 알았다. ☆☆ / 김규보 다른 분들 반응이 좋지 않아 긴장하며 거름 먹었지만 내 입장이 틀리지 않단 사실만 확인했다. 이 매콤한 호빵이 호빵계에 대변혁을 일으키리라는 게 내 입장이다. ★★★★★ / 강은주 '따끈'은 오케이, '하끈'은 가우똥. 살짝 알근한 기운이 있긴 하지만 임팩트가 없다. 그래도 다양한 재료로 이뤄진 소의 식감은 꽤 입체적이었다. ★★☆☆ / 남혜림 로제라는 이름은 참 예쁜데, 맛이... 애매한 매콤함이 오히려 반감을 불러오네요. 호빵은 역시 단팥이 최고인 걸로. '심플 이즈 베스트'라는 말은 진리입니다. ★

4.5점



• 이마트24 아임이 못생긴아이스군고구마 •

김현정 '얼평' 멈춰! 맛있고 예쁘다. 못생긴 고구마라니요, 이름 바꿔 주세요. ★★★★★ / 김규보 헤림 씨가 왜 껍질까지 먹느냐고 물었을 때 당황했지만 내 입장을 깨끗하게 견지했다. 껍질의 적당한 탄대를 곁들인 군고구마 속살이 군고구마는 맛나다는 내 입장을 강화했다. ★★★★★ / 강은주 아이스 군고구마라... '뜨거운 아이(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범접할 작명 센스 앞에서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맛이 모든 흥결을 덮고도 남는다. 보드랍고 달콤하기가 마시멜로를 뛰어넘는다. ★★★★★ / 남혜림 군고구마 좋아하신다면 당장 드세요. 두 번 드세요. 전자레인지에 넣어 돌리기만 해도 이런 본격적인 고구마 맛이 나다니. 비닐을 뜯자마자 훅 끼치는 군고구마 냄새에 행복하네요. 군고구마 러버는 기뻐서웁니다. 영영. ★★★★★

3.1점



• 동서식품 핫초코 미떼 오리지날 마시멜로팩 •

김현정 1년 동안 먹을 설탕을 한 잔으로 해결해야 할 절박한 사연이 없다면 안 마셔도 되겠다... 그래도 미떼 광고는 좋아합니다. ☆ / 김규보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을 내 입장은 핫초코 미떼는 겨울이 딱이라는 것이다. 마시멜로는 핫초코 미떼에 빠뜨려야 제맛이라는 새로운 입장으로 세울 수 있었다. ★★★★★ / 강은주 고백하건대 핫초코를 즐기는 편은 아니지만, 이걸 귀여운 마시멜로 때문이라도 겨우내 한 박스 마련해 두고 싶다. 마시멜로 녹여 가며 먹는 핫초코의 맛. 아, 겨울이다. ★★★★★ / 남혜림 마시멜로가 귀여워요. 핫초코도 달달해요. 좋아요. 마시멜로의 단맛이 너무 독보적이라 핫초코가 투머치초코로 변해 버리는 단점만 빼면요. 마시멜로를 먹고 나면 핫초코에서 씹살한 맛이 느껴질 정도예요. ★★☆☆



엔다이브

샐러드계의 '쫄쫄미'가 나타났다. 생긴 것이 꼭 조그만 배추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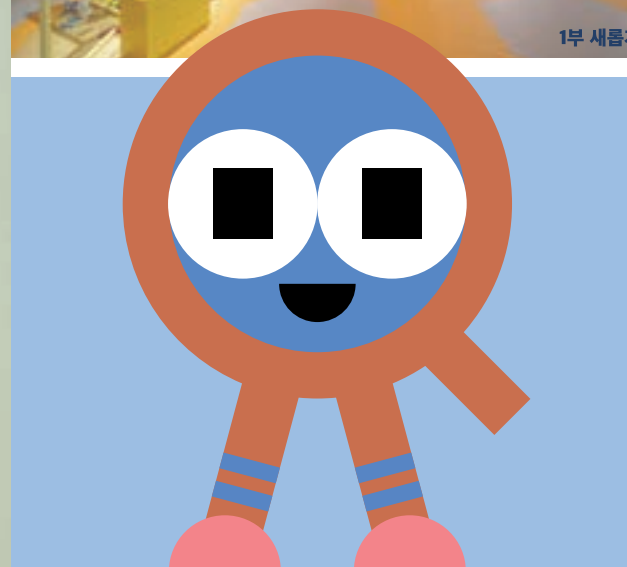
'유럽의 꽃상추'라 부르는 채소 엔다이브가 제철이다. 엔다이브는 치커리 뿌리를 어두운 곳에서 재배해 수확한다. 알배추를 닮았지만 아이 손바닥만 한 크기라 더 귀엽다. 타원형에 끝이 뾰족하며 잎은 노랗고 줄기는 순백색이다. 노랗고 동그란 것이 한 겹씩 뜯어지니 꽃잎을 모아 놓은 듯하다. 태생이 치커리이니만큼 씹쌀한 맛과 아삭한 식감이 특징. 그 덕에 샐러드 재료로 사랑받는다. 열량이 100그램당 17킬로칼로리에 불과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애용된다. 천연 인슐린 이눌린을 함유해 성인병 예방 효과도 있다. ①

이해! 발견! 공감



1부 새롭게 관찰해요

생각주머니가 커지는 곳,
마음을 나누는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2부 다르게 생각해요



어린이박물관 상설전시실 입구



정성 담긴 한 상

광주의 젊은 거리 동리단길에서 마음과 입을 힐링하는 맛집을 찾았다.

1

베러그릭

▲ 그릭볼 7800원 커스텀볼 6900원
아몬드 크림 라떼 6000원
☞ 광주시동구동계천로 163-6
☎ 070-8691-2231

● 담백하고 바삭하게 즐기는 디저트

간편한 한 끼로, 건강한 디저트 메뉴로 사랑받는 그릭 요거트. '베러그릭'은 국내산 1등급 원유로 그릭 요거트를 만드는 카페다. 원유가 요거트로 바뀌는 데 걸리는 시간은 40시간. 먼저 원유와 유산균, 스테비아를 요거트 메이커에 넣고 숙성한 후 냉장 보관한다. 이 작업을 거치면 덩어리가 생기는데, 이를 면포에 싸서 무거운 것으로 눌러 유청을 뺀다. 유청을 제거한 그릭 요거트는 시큼함은 사라지고 담백하면서 은은한 단맛이 감돈다. 제조 과정에서 원유의 주요 성분이 농축되어 단백질·칼슘 함량이 높아지고, 유산균이 풍부해져 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 요거트의 단짠 그레놀라도 유기농 견과류로 직접 굽는다. 다섯 가지 견과류와 메이플·아가베 시럽,



포도씨유를 배합해 섞은 것을 오븐에 굽고, 꺼내 식혀서 다시 섞는 과정을 3~4시간 반복한다. 이런 정성 끝에 고소한 향이 일품인 바삭한 그레놀라가 탄생한다. 시그너처 메뉴 '그릭볼'에는 그릭 요거트에 그레놀라, 바나나, 사과, 키위, 건크랜베리 등을 섞어 풍성하게 올린다. 포만감이 높아 한 끼 식사로 충분하다. 예술가가 작업실로 사용하던 한옥을 모던하게 개조한 실내와 작은 정원이 편안함을 준다.

INFORMATION



커스텀볼은 손님이 토핑을 직접 고른다. 건무화과, 초코칩 등 다양한 토핑으로 니만의 그릭볼을 만들자.

2

시골집

삼겹김치찜 1만 2000원
 닭볶음탕 2만 3000원
 광주시 동구 제봉로110번길 21
 070-8860-7897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한식을 내는 '시골집'은 엄마가 딸에게 줄 음식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요리를 대접한다. 특히 대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메인 메뉴인 삼겹김치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재료, 바로 김치다. 같은 김치라도 숙성도와 배추 상태에 따라 맛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텃밭한 맛이 나지 않도록 양념을 다시 해 김치와 고기, 육수를 넣고 끓인다. 맛을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3-4개월간 달라지는 맛의 김치를 먹어 보고 간을 맞춰 가며 지금의 레시피를 완성했다. 닭볶음탕도 손이 많이 간다.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 손질한 생닭을 소주



● 다정한 손길로 차린 정갈한 한식

와 뜨거운 물에 데친 뒤 불순물을 건어 내고 씻는다. 사과, 양파, 생강 등 스무 가지 재료를 숙성한 양념장을 풀어 닭과 푹 끓인 후 껏임을 올린다. 아침마다 손님에게 제공할 반찬을 만들어 그 반찬으로 식사하며 맛과 신선도를 확인하고, 전남 고흥에서 가족이 직접 농사 지은 쌀로 밥을 짓는다. 정성이 담긴 집밥을 대접하고 싶은 따뜻한 마음이 재료 하나하나에 녹아든다. 50년 된 이층집 내부를 거의 그대로 살린 인테리어에 고흥의 시골집에서 가져온 표주박, 키, 소쿠리, 멍석 같은 소품이 밥상에 정겨움을 더한다.

INFORMATION



닭볶음탕은 냉동 닭이 아닌 국내산 생닭으로 조리한다. 신선한 음식을 손님상에 올리기 위해서다.





INFORMATION



감태주먹밥에는 명란 마요가 곁들여 나온다. 포슬포슬한 감태가 입안에서 부드러운 명란 마요와 어우러진다.

국수에서 제주를 느낀다. 국수 한 그릇만으로도 바다가 떠오르는 곳, '재주당'은 제주가 좋아 재주를 부리는 식당이라는 의미로 지은 이름이다. 창업한 청년들은 고향 광주에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제주 음식을 맛볼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하며 메뉴와 인테리어를 구상했다. 가게 앞에 놓인 제주 전통 가옥의 대문 정낭부터 제주를 연상시킨다. 내부에는 광주 출신 예술가의 작품을 걸어 두었다. 광주와 제주가 느껴지는 인테리어를 눈에 담았으니 코와 입으로 고기국수를 즐길 차례다. 정통 제주 고기국수를 기반으로 레시피를 캐주얼하게 변형한 것이 재주당의 특징이다. 제주에서처럼 돼지고기와 뼈로 국물을 내는 대신 우사골을 사용해 8-9시간 동안 육수를 끓이고, 제주산 치자를 넣어 쫄깃한 면에 고기 고명을 올린다. 국내산 돼지고기를 채소와 된장 등의 재료와 함께 한 시간 삶아 육질이 부드러다. 서해안에서 채취한 감태로 밥을 감싼 감태주먹밥을 곁들이자 눈앞에 바다가 펼쳐지는 듯하다. 제주 음식과 광주 그림, 주인장이 선곡한 클래식 음악이 조화를 이뤄 마음을 토닥여준다.

● 광주에서 만나는 제주 음식

재주당

- ☞ 고기국수 8500원 제주국수 1만원
- 감태주먹밥 6000원
- 📍 광주시 동구 장동로43번길 11
- ☎ 0507-1342-4948

3

+ Tip

광주 원도심 동명동은 낮은 건물이 웅기증기 모여 있어 골목골목 걷는 재미가 큰 동네다. 201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하고 카페 거리가 조성되면서 '동리단길'이라는 별명도 생겼다. 골목마다 아가자기한 카페와 공방, 멋스럽게 인테리어한 레스토랑이 발길을 붙든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폐철길을 단장한 푸른길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동명동을 즐기는 방법이다.



<아하! 발견과 공감>



서울	상설
아이도, 보호자도 신날 소식. 지난해 12월 15일 국립중앙박물관이 어린이박물관을 전면 재단장해 다시 문을 열었다. 2005년 개관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개편으로, 어린이가 역사문화에 호기심을 갖고 다가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시실에 들어서자 기마인물형토기를 형상화한 대형 구조물이 관람객을 맞이하고, 조선의 천문도 '천상열차분야지도' 영상이 시선을 끈다. 총 3부의 전시와 33종의 체험 전시 코너를 운영하며, 영유아 체험 공간 '창작 놀이터'는 도자기 팝업, 빗살무늬토기 지퍼놀이 등으로 흥미롭게 구성했다.	장소 서울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문의 02-2077-9647

새해, 앞장감이 되세요!



교육 분야		
스마트제조 3월	스마트팜 4월	스마트시티 5월
스마트드론 6월	자율주행차 9월	전파소재부품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전파산업 재직자 앞장감 양성 교육을 진행합니다.

* 앞장감이란? 앞장설 만한 인재, '리더'를 가리키는 순우리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초연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혁신적인 전파 활용 기술 확산을 위해 융합 역량을 갖춘 실무형 전파 앞장감을 양성합니다.

한국전파진흥협회 전파방송통신교육원은 전파산업 재직자 앞장감 양성 교육을 통해 전파산업 분야 여성 전문가 양성과 여성 참여 활성화를 이룰 것입니다. 전파산업 재직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육 일정과 과정

교육 분야
4차 산업혁명 관련 전파 이용 6개 분야

교육 과정
분야별 7개 과정(총 42개 과정)
오프닝 세미나, 기술과 산업, 관리와 개발, 전파 측정 실습, 특성화 실습, 현장 견학, 우수 과정
※ 교육 과정 구성은 일부 조정 가능

교육 방식
양방향 실시간 온라인 교육 및 집합 교육

교육 대상
중소벤처기업 재직자
※ 특히 여성 재직자의 관심과 참여를 권고드립니다.

신청 방법
전파방송통신교육원(www.atic.ac) 홈페이지 또는 앞장감 홈페이지(www.앞장감.kr) 교육원 홈페이지 상단 '교육 소개' → '전파 방송/정보 통신 교육' → 교육 과정 선택 → 교육 신청
* 신청 인원 초과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교육비
무료(중소벤처기업 재직자에 한함)

교육 문의
02-317-6191, 6158
yhk@rapa.or.kr, hylee@rapa.or.kr
(전파방송통신교육원 앞장감교육 담당)

2022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서울

01.04~16

아동·청소년 예술 공연 축제인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가 '모두를 위한 공연, 모두를 위한 성장의 시간'을 키워드로 열린다. 영유아 관람객과 축각으로 만나는 <우주·아이·살·춤> 3세 이상 유아 대상의 공연으로 물의 소중함을 전하는 <개굴개굴 고래고래>, 7세 이상을 위한 미스터리 추리극 <살뭉 탐정소> 등이 세상을 모험하기 시작한 영유아와 인생 고민에 빠진 청소년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공연장을 방문하기 어려운 관객은 온라인 공연 스트리밍 플랫폼 '플레이슈터'에서 '온라인 극장 BIG 3'를 찾아, 참가극단의 인기 작품 <즐거운 나의 집> 등 연극 세 편을 관람할 수 있다.

장소 서울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의 문의 02-745-5863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신규상품 출시



6,000만원대로 누리는 2억원가치의 독보적 혜택 프리미엄 멤버십 출시!!

글로벌 리더 컴퍼니로 도약하는 대명리조트의 새 이름

2022년 소노호텔앤리조트 신규회원모집

새 브랜드로 글로벌 체인 사업에 나선 소노호텔앤리조트(구, 대명리조트)가 **VIP 고객을 대상으로 '이그제큐티브클럽(Executive Club)' 멤버십을 출시했다.** 이그제큐티브 클럽은 럭셔리 호텔 서비스와 실속있는 리조트 서비스를 결합한 프리미엄 회원권으로 식음, 골프, 승마, 요트 혜택 등을 담아 고객에게 스펙셜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한다.

이그제큐티브 클럽 멤버십은 기존의 회원권과는 완전히 차별화하여 신규 특별 혜택뿐만 아니라 입회 기간 내내 상시 혜택을 제공받는 것이 특징이다. 정회원은 연간 2인 10회 조식 뷔페와 노블리안 라운지 음료 30회가 무료이며, 호텔 내 휘트니스, 수영장, 사우나, 발렛 파킹 서비스 등이 상시 제공된다. 또한 정규 18홀의 소노펠리체 CC(비발디파크 WEST, EAST, 델피노), 오션월드, 스키, 승마클럽, 요트 등 다양한 레저&스포츠를 이용 가능하다.

소노호텔앤리조트는 국내 최대 규모인 전국 16곳 체인망과 11,000여개가 넘는 객실을 보유하여 업계 1위를 자부한다. 폭넓은 여행지 선정은 물론 레저&스포츠 시설을 신규 회원권 하나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개인 및 법인 명의로 분양이 가능하며, 회원제 상품의 경우 20년 만기시 전액을 반환 해준다.

소노호텔앤리조트 측은 "타 업체와 다른 전문 교육을 이수 레저컨설턴트가 상담부터 계약 및 예약까지 1:1 회원 전담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소노호텔앤리조트 회원권의 가치는 '지속적인 개발과 인수 사업'으로 지난 **10월 22일 소노펠리체 델피노가 그랜드 오픈**했으며, 브레이크힐스 남해 등이 개발 중이다. 특히 이그제큐티브 클럽 멤버십은 회원권 시장에 없는 **독보적인 혜택을 담은 멤버십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이번 신규회원 모집에 대한 **분양 카탈로그**를 배송해드립니다.
KTX 열차 내에 통화가 어려우실 경우, 문자 메시지로 성함 및 주소를 보내주세요. **H.P 010-4140-6540**

문의전화 02)2222.5917
(주말 및 24시간 상담가능)



WHAT'S UP



• SHOW •

〈박쥐〉

대구 | 01.20~29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라 〈박쥐〉를 대구에서 만난다. 한국어로 각색하지 않고 독일어 대사를 그대로 살려, 속고 속이며 꼬이는 인간관계를 그린 원작의 감흥을 충실히 전한다. 대구오페라하우스 상주 연주 단체 디오오케스트라·대구오페라라이어와 지역 대표 성악가들이 출연해 풍성한 하모니를 선사한다.

장소 대구오페라하우스 문의 053-666-6000



• EXHIBIT •

〈빛: 영국 테이트미술관 특별전〉

서울 | 2021.12.21~2022.05.08

18세기부터 동시대까지 빛을 탐구한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았다. 서울시립미술관과 영국 테이트미술관이 공동 기획한 전시로 윌리엄 블레이크, 백남준 등 거장 43명의 작품 110점을 소개한다. 존 브릿의 회화 '도식서 절벽에서 바라본 영국해협' 등 빛을 주제로 한 다양한 매력의 작품이 관람객을 기다린다.

장소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문의 070-8691-1883



• EXHIBIT •

〈역병, 일상〉

서울 | 2021.11.24~2022.02.28

코로나19로 바뀐 우리 삶. 과거엔 어땠을까. 전시는 조선 시대를 휩쓴 역병과 그 속에서 하루하루 버틴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조선 시대 역병에 대한 인식과 치료법을 기록한 〈목재일기〉 〈노상추일기〉 〈조선기행〉 등을 공개하고, 고양이 그림으로 콜레라를 물리치려 한 옛 일상을 조명한다. 병과 관련한 자료와 영상뿐 아니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담았다.

장소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문의 02-3704-3095



• FESTIVAL •

겨울공주 군밤축제

공주 | 01.14~16

'불타는 밤! 뜨거운 공주!' 알밤의 도시 공주가 다섯 번째 군밤축제를 연다. 대형 화로에 밤을 직접 굽도록 한 체험장과 알밤직거래장에서 구매했던 농·축산물을 구워 먹는 군밤그릴존 등을 운영해 맛있는 축제를 즐긴다. 알밤을 활용해 유등, 다식을 만드는 경험도 특별하다. 밤으로 만든 다양한 제품도 전시한다.

장소 충남 공주 고마일원 문의 041-840-8111



• FESTIVAL •

대관령 눈꽃축제

평창 | 01.21~30

대관령 눈꽃축제가 '대관령 이즈백'을 주제로 돌아온다. 스물아홉 번째 진행하는 올해 축제는 대관령 눈마을, 대관령 멧돼지 얼음뎡, 전통 놀이 프로그램 대관령 추억놀이와 눈썰매장 등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눈꽃의 화려함에 빠져보자.

장소 강원도 평창대관령면 송천일원
문의 033-335-3995



프로모션

겨울잠 같은 숙면을 위한 여행, 파크로쉬 리조트앤웰니스

눈앞에 입김이 어리는 한겨울에도 파크로쉬 리조트앤웰니스에서 완벽한 휴식을 누리다.

숲속에서 오롯이 휴식을 즐기며 본연의 나를 찾는다. 새해를 건강하게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을 강원도 정선 파크로쉬 리조트앤웰니스와 함께한다. 파크로쉬는 KTX를 타고 서울역을 출발해 평창 진부역에 내린 뒤(1시간 30분 소요) 택시나 버스를 타고 약 30분이면 닿는 리조트다. 정선 속암리는 '암석 밑에서 숙면하다'라는 뜻의 지명으로, 고대 맥국의 갈왕이 전쟁을 피해 암석 밑에 머물며 숙면을 취했다는 이야기가 전하는 곳이다. 그만큼 고요한 숲속에서 숙면을 취하고 심신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둔 숙소다.

숙면과 휴식에 집중한 자연 속 쉼터

우선 특수 제작한 매트리스와 타입별 배개를 갖춰 숙면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했다. 숙암룸을 비롯한 전 객실에는 손님에게 커피 대신 숙면에 도움이 되는 티를 기본으로 제공한다. 작은 부분에도 고객을 배려한 세심함이 돋보인다. 레스토랑에서는 신선한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건강한 한식과 이탈리아 음식을 맛보고, 사우나와 야외 저쿠지를 포함한 아쿠아 클럽에서는 강원도의 아름다운 설경을 바라보며 워터스파를 즐긴다. 고객의 진정한 심을 바라는 파크로쉬의 마음이 공간 곳곳에 녹아 있다.

차분한 휴식 위한 '윈터 풀' 패키지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웰니스 관광지에 선정된 파크로쉬 리조트 앤웰니스는 비움의 계절 겨울을 맞아 내면을 들여다보고 마음속 무거운 짐을 털어 내는 여행을 제안한다. 패키지는 객실 1박, 아쿠아 클럽 2인과 웰니스 클럽 2인 이용권, 정선 윈터 티 세트와 레스트 키트로 이루어졌다. 레스트 키트는 혼자만의 휴식을 경험하도록 디카페인 커피와 수면 안대, 릴랙스 스톤으로 구성한 셀프 웰니스 키트다. 굿즈에 동봉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세러피 영상을 감상할 수도 있다. 정선 윈터 티 세트는 정선 곤드레와 더덕을 활용한 곤드레 피낭시에, 더덕 양갱을 비롯해 다섯 가지 디저트와 웰니스 티가 어우러진 건강한 겨울 한정 메뉴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로쉬카페에서 제공한다.

문의 033-560-1111



Gallery



'생명의 노래-수류화개(水流花開)', 한지, 캔버스에 먹과 채색, 112x162cm, 2013,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소장

'생명의 노래-수류화개(水流花開)'

김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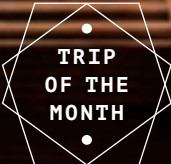
물은 생명이며 생명은 꽃이다. 물을 마셔야 사는 생명은 물가로 와 마시고 만나고 기르면서 산다. 하류로 흐르는 물, 잠시 땅에 머무르는 물, 나무뿌리로 스미는 물이 동물과 식물의 삶을 꽃피운다. 닭이 알을 품고 물고기가 노닐고 새가 지저귀는 꽃 같은 오늘, 숲에서 생명의 노래가 울린다. 풍경은 고이지 않고 부단하게 움직이나, 물과 생명과 꽃의 순간은 영원히 지금일 터. 어제와 내일은 존재한 바 없는 바로 오늘 지금만이 캔버스 속 숲을 채운다. 화쪽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도 꽃이 될까. 아니, 우리는 매번 꽃 같은 지금을 살며 생명의 노래를 부른다. 수류화개. 물이 흘러 꽃이 피는 순리를, 다만 살아 내고 있노라고 캔버스 속 생명이 속삭인다. 그림은 정신을 담는 그릇이라 믿는 김병중은 '생명의 노래' '송화분분' 연작으로 40여 년간 생명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왔다. 이 작품에서 또한 그의 영혼이 거니는 물길과 숲을 만난다. 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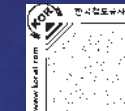
*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꽃이 웃고, 작작 鵲鵲 새가 노래하고>전, 1월 30일까지, 문의 031-8082-4245

Travel



경주 황리단길의 한옥





푸른 휴식, 포항

투명한 바닷바람이
날마다 불어오는 곳.
경북 포항이 마음을 말갱게
만들어 주었다.



●
사망기념공원 목은봉엔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에 나온
목선 '순임호'가 놓여 있다.



마음 구석까지 투명하게 만드는
포항 바다와 마을,
청명한 풍광을 깊이 들이마신다.



거닐다



하늘이 수평선에서 비단을 펼쳐 한 겹씩 땅으로 보낸다. 겹겹이 밀려드는 파동이 곳곳에서 줄무늬를 그린다. 바람결을 따라 수를 놓는 양 하느작거리는 파동은, 나타난 찰나에 사라지면서도 매 순간 무수하다. 가없이 푸르며 내내 일렁이는 비단이 이윽고 땅을 만나 물보라로 부서진다. 꿈꾸다 깬 듯 몽환적인 기분으로 바다를 다시 보았다. 쪽빛 줄무늬 같은 물결, 비단처럼 고운 바다. 왼편에선 월포해수욕장, 오른편 아득한 저기에선 호미반도 풍경이 이곳 사방기념공원 목은봉으로 다가온다. 마음 구석까지 투명하게 만드는 자연을 깊이 들이마신다. 전부 맑은 지금, 가슴에 포항이 어리고 있다.

벽찬 바다, 사방기념공원

목은봉에서 오래 쉬었다. 누구도 이 황홀한 풍경을 쉽게 떠나긴 힘들 것이다. 사방기념공원은 나무를 심어 지반을 단단하게 하는 사방공사가 한반도에서 시행되고 100년이 지난 2007년에 문을 열었다. 햇빛은 산을 울창하게 가꾼 이들을 기억하는 공간 사방기념공원에서 자연은 더 아름답다. 그들의 노고를 닮아 푸르디푸른 산과 바다를 앞뒤에 둔 목은봉엔 작은 목선 한 척이 놓였다. 한편에 ‘순임’ 두 글자가 선명하다.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에서 두식은 할아버지가 물려준 목선으로 혜진을 이끈다. “이 배 이름이 순임호였어?” “우리 할머니 함자야.” “아, 할머니셨구나. 할아버지 진짜 사랑꾼이셨다. 여기서 조그맣게 윤혜진이라고 써 주면 안 돼?” “안 돼. 앞에다 써 줄게.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바닷가 마을 공진에서 온갖 일을 도맡는 ‘만능 백수 흥반장’ 두식과 상처를 입고 공진에 온 치과 의사 혜진은 순임호를 보며 사랑을 약속한다. 살아온 세월이 다르고 성격도 반대인 둘이 서로 알아 가다 멀어지고, 돌아서려다 마침내 마주 서 한배를 탔음을 확인한 목은봉. 바다는 어떤 존재일까. 멀찍이서 감상만 하자면 이리 벽차거늘, 뛰어들어 헤쳐 나가는 일은 마냥 순조롭지 않다. 풍량이 일고 언제는 태풍이 불어닥친다. “비 좀 맞으면 어때. 바람 좀 불면 어때. 우리가 같이 한배를 탔는데.” 대문짝만하게 이름을 써 주겠다는 두식의 말에 혜진은 말한다. 어디에 있느냐보다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소중한 이에게 이런저런 바다는 그대로 바다일 뿐이겠다. 드라마가 차곡차곡 쌓아 올린 서사의 절정에서 두



●●
청하시장에서 드라마 속 장면들을 떠올린다. 두식과 혜진, 공진마을 사람들과 함께 걷고 있는 듯하다.

From the horizon, the sky sends down a layer of silk, one by one. The cool blue layers break up into clouds of spray as they hit the ground. In a dreamy state, I take in the view of the indigo waves and silk-like ocean. I immerse myself in the beauty of Mugeunbong Peak, and let the forces of nature wash away my worldly concerns. With these memories of Pohang, I am better prepared to face the tides of life.

Reflections in Sabang Memorial Park

A wooden boat sits atop Mugeunbong Peak, which gives a splendid view of the sea and nearby mountains. The word ‘Sun-im’ has been inscribed on one side of the boat. In the Korean drama *Hometown Cha-Cha-Cha*, the boat was passed down to Du-sik by his grandfather. Hye-jin asks, “The Sun-im is the name of this boat?” Du-sik replies, “It’s my grandma’s name.” “Your grandfather must’ve been totally romantic. Couldn’t you have learned from him? And if it was given to you, could you write my name here in small letters?” “I’ll write it up front in big bold letters.”

Du-sik, who is known as Mr. Handy in the seaside village of Gongjin, pledges his love for the dentist Hye-jin. Despite having led vastly different lives, they have chosen to ride the same boat in life. The ocean, even when viewed from a distance, is overwhelming. There are bound to be storms and challenges, but even the

☞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포항역까지 2시간 20여 분이 걸린다.





● 호미반도 동편의 어촌 석병1리는 <갯마을 차차차>에서 주인공들이 사는 마을로 등장했다.

식과 혜진을 축복하던 포항 바다는 여전히 속삭인다. 삶도 결국 그러하리라고.

<갯마을 차차차>의 기억, 청하시장

포항엔 사방기념공원을 비롯해 <갯마을 차차차>의 배경이 여럿 있다. 그중 공진시장으로 등장한 청하시장과 두 주인공이 사는 마을 석병1리를 방문했다. 청하시장에선 청호철물, 보라슈퍼 등 드라마의 주요 장면 촬영지를 만났다. 드라마는 끝났어도 여운을 즐기려 찾는 이들이 수시로 몰려들어 분위기가 흥겹다. 그때 장면을 이야기하고, 사진을 찍고, 한바탕 웃고는 다음 가게로 가 다른 장면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묘사하는 장면은 제각각이나 모두는 기억을 나누는 지금을 함께 새긴다. 저마다 삶에 배어드는 이 순간은 스산한 날 흥 반장처

roughest tides can be overcome by being together. The sea of Pohang whispers that the same goes for life.

Cheongha Market in *Hometown Cha-Cha-Cha*

Hometown Cha-Cha-Cha was filmed not only in Sabang Memorial Park, but also other locations in Pohang. Among the various sites, I visited Cheongha Market and the village of Seokbyeong-ri. Cheongha Market, the closest five-day market to Wolpo Beach, is bustling with K-drama fans seeking the local experience. While recalling their favorite scenes, the visitors take photos in front of familiar stores. The scenes that come to mind may be different, but there is no denying that they share the same affection for the dra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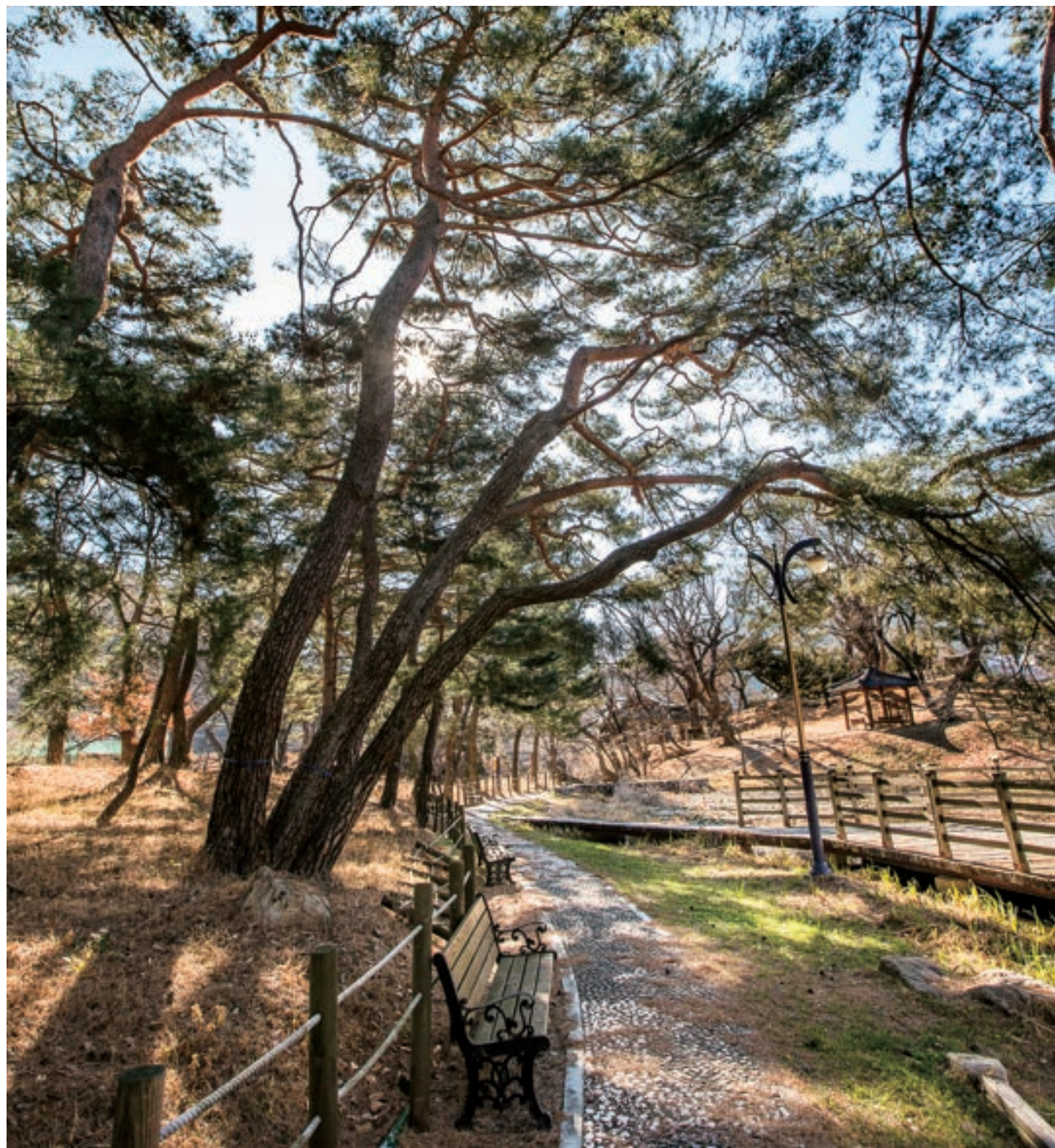


● <갯마을 차차차> 주요 장면의 배경이 된 빨간 등대는 석병1리 포구 방파제 끝자락에 위치한다.

럼 불쑥 튀어나와 마음을 어루만져 주겠다. 호미반도 동편 석병1리에서 촬영지 여행의 마침표를 찍는다. 정말 고요하네, 무심결에 내뱉은 말만 반향이 되어 울리는 평화로운 어촌을 거닌다. 두식의 집을 돌아 골목에 들어, 서걱서걱 발걸음 소리를 귀에 담으면서 혜진의 집에 이르렀다. 대문에서 뒤돌자 아늑한 포구 정경이 한가득 날아든다. 포구를 감싼 방파제 끝 빨간 등대가 폭 쉬고 가라 인사를 건넨다. 포구 가장자리에선 어부가 그물을 정리한다. 만선이면 좋고 아니어도 좋은 한갓진 손놀림이 견실하게 이어지는 마을, 바닷바람은 차갑지만 골목은 따듯하다. 산다는 게 이런 것을, 왜 항상 뒤쫓으려 아등바등했다. “조금 헤매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사니까, 인생이 알아서 재밌는 방향으로 굴러가던데요.” 드라마 속 대사를 읊으며 느릿느릿 골목을 걸어 나간다.

Seokbyeong-ri, which lies to the east of Homi Peninsula, is the last stop on my chase of *Hometown Cha-Cha-Cha*. I mumble to myself, “How quiet.” My words seem to echo throughout the peaceful village. I pass Du-sik’s house and arrive at Hye-jin’s. As I look back from the main gate, the small, charming port comes into view. A fisherman is sorting out his fishing nets in a leisurely, unhurried manner. He works diligently, without seeming worried about how much has caught. The sea breeze is chilly, yet the alley is filled with an unexpected warmth. Why had I led a life of such struggle? A meaningful line from *Hometown Cha-Cha-Cha* plays in my mind: “It’s okay to get lost or take the long route every now and then. Every time that happened, life took me on an interesting ride.”

느끼다



소나무가 두른 덕동문화마을 길과
고택 기와에서 오랜 세월
간직해 왔을 정취가 피어난다.

수백 년 간직한 정취, 덕동문화마을

포항 북서쪽 해발 600미터 언저리의 비탈길을 오르고 내려 비학산과 침곡산 사이에 도착했다. 숲이 에워싼 골짜기 가운데쯤부터 나무들 뒤로 덕동문화마을이 모습을 드러낸다. 소나무 잎을 아삭 씹고 가는 산바람이 싱그럽다. 다시 걸을 시간, 담장이 그림자 한 자락 떼어 두고 몸을 틀어 집 뒤꼍으로 숨는다. 지붕 너머 겨울나무가 굽어보는 마을 길이 담장을 따라 가벼이 휘었다. 정오의 햇살이 쏟아지는 길 저편에선 띄엄띄엄한 고택이 환하게 빛난다. 골짜기로 침잠한 마을에서 족히 수백 년 간직해 왔을 정취가 피어난다. 걸음이 절로 순해지는 길이다.

덕동문화마을은 <농재집>을 저술한 조선 시대 학자 이언팔 선생의 4대손 이강이 거처로 정하면서 여강 이씨 집성촌이 되었다. 짧게는 100년, 길게는 400년간 마을을 지킨 고택들이 오늘도 굳건하게 서 있다. 30여 가구가 명맥을 잇는 집성촌을 눈길 닿는 대로 서성인다. 고택 앞 송림을 가르는 용계천 굽이엔 1546년 건립해 임

Deokdong Culture Village, Exuding Timeless Grace

I climb a slope 600 meters above sea level in northwestern Pohang, and arrive somewhere between Bihaksan Mountain and Chimgoksan Mountain. Deep in the valley, Deokdong Culture Village reveals itself from behind a forest of trees. The village boasts centuries of history, and I find my pace naturally slowing to synchronize with its timeless grace and elegance.

Deokdong Culture Village is where the Yeogang Yi clan settled. The village's old houses are at least a century old, with some dating back to as far as 400 years. Thirty or so households remain today, each playing a part in preserving traditional culture and values. At the bend of Yonggyecheon Stream is Yeonggyejeong Pavilion, which is said to have been enjoyed by Jeong Mun-bu, who served as a military officer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Next to it is a tranquil pond called Hosanjidang. The sophisticated atmosphere, one that



QR코드를 스캔하면
덕동문화마을 등
포항 여행지를
동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짧게는 100년, 길게는 400년간 자리를 지킨
덕동문화마을 고택들이 오늘도 굳건하게 서 있다.



●
 낡은 정자를 개조한
 카페 가배원에선 고수홍차와
 시금치피자 등을 판매한다.

진왜란 때 의병장 정문부가 별서로 누린 용계정이, 그 옆으로는 산책길을 두른 연못 호산지당이 자리한다. 세월이 아니라면 이루지 못할 고아함이 고택과 별서, 연못에 그득하다. 이런 길을 쉬어 잇으랴. 카페 '가배원'의 최명순 대표도 몇 년 전 우연히 들렀다 잊히지 않자 아예 이곳에 터를 잡았다.

용계천 물 흐르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배원에 앉아 고수홍차를 주문하고 서양화가인 최 대표가 그린 풍경화를 감상했다. 연고는 없어도 마을이 좋아 무작정 들어온 자신을 주민 모두 환대하고 보살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담장이 떼어 둔 그림자와 햇살이 쏟아지던 길을 떠올렸다. 순한 걸음들이 수백 년 동안 토닥인 마을 풍경을 고수홍차에 띄우곤 향을 맡는다. 담백하다. 밖에서 용계천 소리가 계속 흘러오는 가배원에 차향이 번진다. 한 모금, 또 한 모금. 덕동이 마음을 적신다.

can only be attained over time, is truly unforgettable. This must have been what captivated Choi Myeong-sun when she dropped by a few years ago. Choi is none other than the owner of Gabaewon, a cafe that specializes in traditional, time-honored teas. I take a seat in Gabaewon, and order a cup of Gushu black tea. The owner shows me her Western-style paintings, and shares fond memories of her early days in the village. She decided to open a cafe here simply because she had fallen in love with the spot, and received the warmest welcome she could imagine from the villagers. Outside, I can hear the constant bubbling of Yonggyecheon Stream. The refined fragrance of the tea has awakened my senses. I take a sip, and another. The spirit of Deokdong spreads with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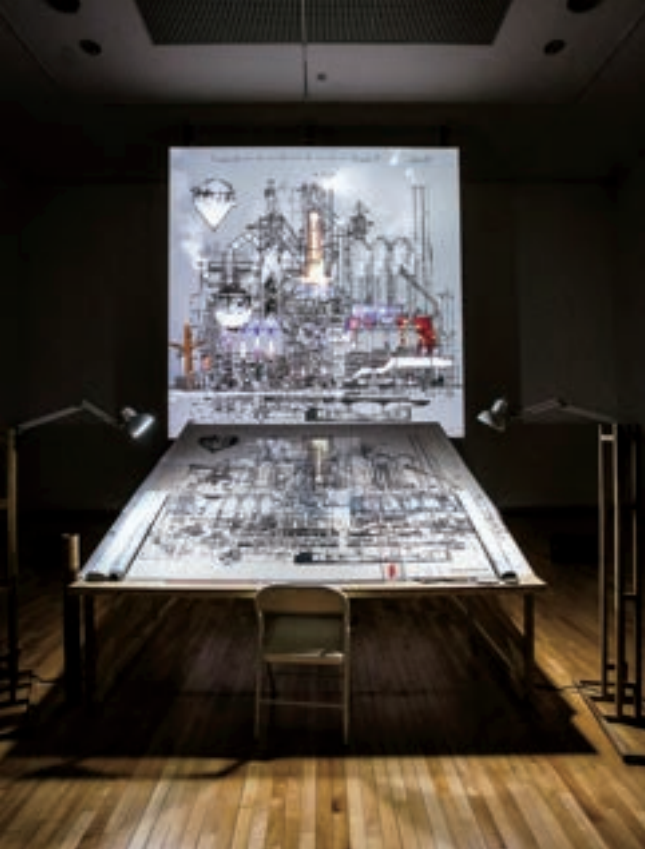




스페이스워크와 포항시립미술관을
품은 환호공원에서
포항의 예술 풍경을 만난다.



누리다



스틸 아트의 향연, 포항시립미술관

포항의 밤을 맞으러 영일만 서쪽 환호공원으로 향한다. 영일대해수욕장과 늘어선 빌딩, 영일만 건너편으로는 포스코가 한눈에 잡히는 전망이 이번 여행의 마지막 순서다. 포항의 밤빛은 어떤 모습일지. 환호공원 언덕을 올라 먼저 포항시립미술관에 들어갔다. 철강 도시 포항의 정체성을 담아 스틸 아트를 선보여 온 포항시립미술관은 현재 <신화를 담다: 꺼지지 않는 불꽃> 전시를 진행한다. 한국의 제철 산업은 기적이라는 표현이 모자란 눈부신 발전을 일궜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한국 철강은 이름 없는 이들이 피땀과 함께 제련한 것이었다. 첫 번째 전시실 장민승 작가의 작품 ‘입석부근’이 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역겹이 빛은 기암과 일순 형성된 빙벽을 대조하는 영상 작품으로, 정직하게 도전해 시대의 꽃을 피운 여러 세대에 보내는 찬사가 장장 50여 분간 펼쳐진다.

철을 재료로 도시 풍경을 재현한 강은구 작가의 ‘제철소의 밤’을 지나, 공을 굴리는 레일을 통해 사회 시스템의 생성과 소멸을 은유한 이창운 작가의 ‘공간지도’를 감상했다. 밤처럼 어두운 전시실에서 별처럼 반짝이는 작품들은, 내일은 오늘보다 밝으리라 믿으며 밤을 지새우던 생명들의 낭랑한 땀방울 같았다. 손쉽게 누리는 편의가 실은 누군가가 뿌린 피땀으로 창조되었다는 진실을 망각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 작품까지 가슴에 꼭꼭 눌러 담고 포항시립미술관을 나선다.

해가 기우는 중이니 계획한 시간과 꼭 맞다. 미술관 옆 길을 10분 정도 오르자 봉우리 위 하늘에서 꿈틀거리는 듯 이리저리 구부러진 선이 나타난다. 완만하다 때로 거친 굴곡을 그리는 선은 여행객이 봉우리에 닿는 순간 압도적인 크기로 현현한다. 최대 높이 25미터, 트랙 총길이 333미터, 무게 317톤, 계단 717개의 초대형 조형물 스페이스워크다. 독일 예술가 하이케 무터와 울리히 겐트의 철강 작품으로 우주유영에서 모티프를 얻은 디자인이 작품 너머 바다와 묘하게 어울린다.

● 포항시립미술관은 1월 9일까지 <신화를 담다: 꺼지지 않는 불꽃> 전시를 진행한다. 문의 054-270-4700



Pohang Museum of Steel Art, a Feast of Steel

I head to Hwanho Sunrise Park, lying to the west of Yeongilman Bay. On this trip, the last view to be imprinted in my mind is Yeongildae Beach, the long stretch of buildings, and the iconic POSCO across Yeongilman Bay. I wonder how dazzling Pohang will be at night. The Pohang Museum of Steel Art, on one of the hills of Hwanho Park, is holding an exhibition titled *Capturing Mythology: The Flame That Never Dies Out*. It is not an overstatement to describe the development of Korea's steel industry as miraculous. Today, the country is recognized as a global leader in steel production thanks to the blood and sweat of laborers. The first work in the exhibition hall is Jang Min-seung's *Ipsuk Bugeun*, which pays tribute to the steelmakers. The video, around 50 minutes long, applauds the efforts that propelled industrial growth using the analogy of an incredible ice wall and unique rock formations.

Also featured are Kang Eun-goo's *A Night at the Ironworks*, which recreates urban scenes using steel, and Lee Chang-woon's *Phenomenon Map*, in which balls rolling along a guide rail symbolize the birth and demise of social systems. The exhibits, twinkling like little stars in the dimly lit hall, are reminiscent of the beads of perspiration on the foreheads of laborers. They convey the message that the small conveniences in life, made possible by the hard work of many, should not be taken for granted. Before leaving the museum, I make sure that each and every artwork is deeply ingrained in my mind.

With the sun going down, I am right on schedule. A ten-minute walk on the trail next to the museum leads to a futuristic steel track shaped like a roller coaster. The walkable art installation measures 25 meters in height and 333 meters in length, and weighs 317 tons. Its overwhelming magnitude can hardly be expressed in words. The space-inspired work, created by German artists Heike Mutter and Ulrich Genth, blends peculiarly well with the sea in the distance.



포항이 선사하는 놀라운 경험, 스페이스워크

계단을 디딜 때마다 땅이 아득해진다. 어느 때부터는 진동의 짜릿한 느낌이 발밑에서 머리끝으로 올라온다. 트랙은 사람과 바람의 움직임을 쫓아 끊임없이 흔들린다. 고개를 슬쩍 들기만 해도 영일만으로 툭 터지는 시야가 허공을 떠다니는 착각을 일으키는데, 진동까지 더해지니 머리카락이 쭈뼛할 정도다. 가장 높은 지점에서 잠시 멈춰 가쁜 숨을 가라앉힌다. 하늘과 땅 사이, 텅 빈 공간의 적요가 머무르는 곳. 침묵하는 공간은 오직 영일만 바다와 어스름 밀려오는 포항 하늘을 보일 뿐이다. 소리가 없는 우주에선 별빛만이 내가 존재함을 일깨울 것이고,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우리는 바다와 하늘을 보고 있다. 소리를 지운 채 시시각각 변화하는 풍경과 눈을 맞춘다. 스페이스워크에 불빛이 켜진다. 영일만을 두른 포항도 빛을 내기 시작한다. 살아 있다는 강렬한 느낌이 발밑에서 머리끝으로 올라온다. 풍량이 일며 언제는 태풍이 불어닥쳐도 우리는 바다를 향해할 거라고, 이렇게 멋진 밤 포항은 말해 주었다. ㉠

Space Walk, Pohang's Newest Experience

Each step takes you closer to the sky and further from the ground. The track sways ever so slightly, tracing the footsteps of people and the rhythm of the wind. The unobstructed view creates the impression that you are walking on air, and the trembling track adds to the thrill. I am standing between the sky and land, and surrounded by the serenity of silence. In a soundless universe, the twinkling stars are what remind us of our existence. The witnesses here are the sea and the sky. In a space undisturbed by sound, I let my eyes fully appreciate the ever-changing scenery of Yeongilman Bay, the sea, and the sky. Space Walk is now lit up for the night, and so is the city of Pohang. The subtle, tingling sensation sent up from the track makes me feel alive. I am encouraged by the waters off Pohang to continue my voyage, no matter what storms life may have in store. ㉡



스페이스워크에서 영일만을 조망한다. 트랙의 진동이 머리끝까지 올라온다. 포항이 선사하는 경험이 강렬하다.



포항의 또 다른 즐길 거리



© 한진관광공사

➔ **죽도시장** 동해안 최대 규모 전통시장으로 꼽히는 죽도 시장은 해방 이후 칠성천에 모여든 좌판에서 시작되었다. 1970년대에 포스코가 들어서면서 활성화된 뒤 현재는 수천 개 점포에서 제철 해산물과 농산물, 떡, 이불, 한복 등을 판매한다. 겨울엔 포항 명물 과메기가 인기가. 문의 054-270-8282

Jukdo Market Jukdo Market, the largest traditional market along the east coast, opened in the 1940s. It has thousands of stores selling various products from seafood to clothes. In winter, you can have a taste of gwamegi (half-dried saury). **Information** 054-270-8282

➔ **포항 시티투어** 포항의 대표 여행지를 편하게 관람하는 방법이 있다. 종일, 반일, 야경, 테마로 나누어 운영하는 포항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다. 매주 토·일요일에 참여 가능한 종일 코스는 오전 9시 20분 포항역에서 출발해 호미곶, 호미반도둘레길, 연오랑세오녀테마공원을 둘러보는 A코스와 경상북도수목원, 보경사, 이가리 닷 전망대, 영일대해수욕장을 들르는 B코스로 구성된다. 매주 금~일요일에 실시하는 야경 코스는 영일대해수욕장, 송도송림테마거리, 형산강에코전망대에서 영일만 불빛이 바다와 어우러지는 장관을 보여준다. 상시 진행되는 테마 코스는 취향에 따라 영일만관광특구, 첨단과학, 생태환경, 학습형 등에서 선택해 포항을 한 가지 주제로 여행한다. 문의 054-278-8500

Pohang City Tour One of the most convenient ways of exploring Pohang's attractions is the Pohang City Tour. Visitors can go on the all-day course, half-day course, nightview course, or themed course. The all-day course is offered on Saturdays and Sundays, with Course A comprised of Homigot, Homi Peninsula Coastal Trail, and Yeonorang Seaonyeo Theme Park, and Course B featuring Gyeongsangbuk-do Arboretum, Bogyongs Temple, Igari Anchor Observatory, and Yeongildae Beach. The nightview course, available on Fridays and weekends, presents impressive views of the illuminated Yeongilman Bay. **Information** 054-278-8500



➔ **포항문화예술창작지구 꿈틀로** 공동화현상으로 활력을 잃은 포항 원도심이 2016년 문화예술창작지구 조성 사업을 통해 예술적 감각이 가득한 거리로 탈바꿈했다. 회화, 공예, 도예, 음악, 공연, 조각 분야 예술가들이 곳곳에 터전을 잡고 예술 활동을 펼친다. 문의 054-289-7918

Dream Factory Road The Culture and Arts Creative District was formed in 2016 when the city lost its former vitality due to deindustrialization. The Dream Factory Road is home to many painters, craft makers, and performing artists. **Information** 054-289-7918

21/22 **monopark** Winter Season
상고대 운해, 눈꽃 **발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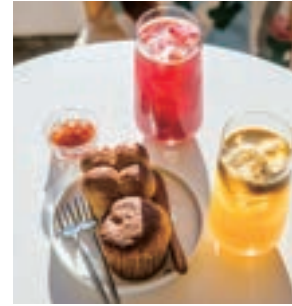


신비한 찰나의 꽃, 상고대
아득한 구름의 바다, 운해
흰눈이 준비한 선물, 눈꽃

흔히 볼 수 없는, 보물 같은 겨울 -
발왕산이 당신을 **진짜 겨울**로 초대합니다



포항의 맛있는 먹거리



→ **애플리** 포항 시내에서 다소 떨어진 기북면에 위치하나 알음알음 찾아오는 손님이 끊이지 않는 카페다. 치유 농장을 꿈꾸며 나무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던 사과 농장이 지난해 8월 카페로 변모했다. 직접 기른 사과와 새싹 보리로 주스와 빵을 만드는데, 건강한 맛이 일품이다. 고객은 인근에서 편백 미로를 체험할 수 있다.
문의 054-243-5206

→ **시민제과** 1949년 포항에서 맨 처음 문을 연 빵집으로, 현재 3대 진정하 대표가 운영한다. 단팥빵을 비롯해 오픈부터 함께한 메뉴의 맛을 지켜 가면서도 유럽에서 공수한 제분기로 연구를 거듭해 일출몽블랑 등 60여 가지 맛깔난 빵을 선보이고 있다. 고객 건강을 위해 쿠키 등 일부 제품은 100퍼센트 유기농 밀가루를 사용한다.
문의 054-243-2330

→ **구룡포 대게** 뜨끈뜨끈하게 찐 대게에서 살을 발라 한 입 넣고 음미하는 순간은 많은 이에게 겨울 식도락의 백미가 되어 준다. 겨울 대게를 맛깔나게 즐기고 싶을 때 어디로 가야 할까. 구룡포는 한국 최대 대게 산지로 전국 유통 물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곳이다. 11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울릉도와 독도 근해, 멀게는 서일본 근해의 수심 200미터 이상 심해에서 건져 올린다. 대부분 누런 주황색을 띠는 구룡포 대게는 껍데기 속을 짙은 담백하고 차진 살이 특징이다. 단백질 함량이 많고 리신, 류신 같은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한 건강식으로도 유명하다. 구룡포 대게 중에서도 품질이 좋은 것은 박달대게로 분류한다. 구룡포수협 수산물판매장에서 그날 낙찰한 신선한 대게를 판매한다.
문의 054-276-1111

Guryongpo Snow Crab The tender white meat of steamed snow crab is a winter delicacy. It is best enjoyed in Guryongpo, which has the largest snow crab market in Korea and accounts for half of the local distribution. Snow crabs living in waters as deep as 200 meters are caught along the east coast from November to May the following year. Guryongpo snow crabs are orange-red in color, and have fleshy meat beneath their shells. They are known to be rich in protein and essential amino acids such as lysine and leucine. Fresh catch is auctioned off on a daily basis, and sold at the Guryongpo Suhyup Fisheries Market.
Information 054-276-1111

Apple The cafe is located in Gibuk-myeon, some distance away from downtown Pohang, but sees an endless stream of visitors. It used to be an apple farm offering the experience of picking your own fruit. On the menu are fresh juices and bread made from home-grown apples and barley grass.
Information 054-243-5206

Simin Bakery As the first bakery in Pohang, Simin Bakery opened in 1949. It has since expanded its selection from red bean buns to over 60 types of delicious baked goods using a mill specially brought in from Europe. Selected products, like cookies, are made from 100% organic flour for the health of consumers.
Information 054-243-2330



해양관광도시 1번지 포항

드라마촬영지 각광! 언택트 힐링명소

‘해양관광 1번지’ 포항시에 각종 드라마, 다큐멘터리, 예능프로그램들이 문전성시
천혜의 자연 경관 푸른 바다를 품은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포항의 명소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삶을 여행처럼,

바다에서 내륙까지, 경북 경주를 걷고 느꼈다.
여행하는 매 순간이 우리 삶처럼 아름다웠다.

경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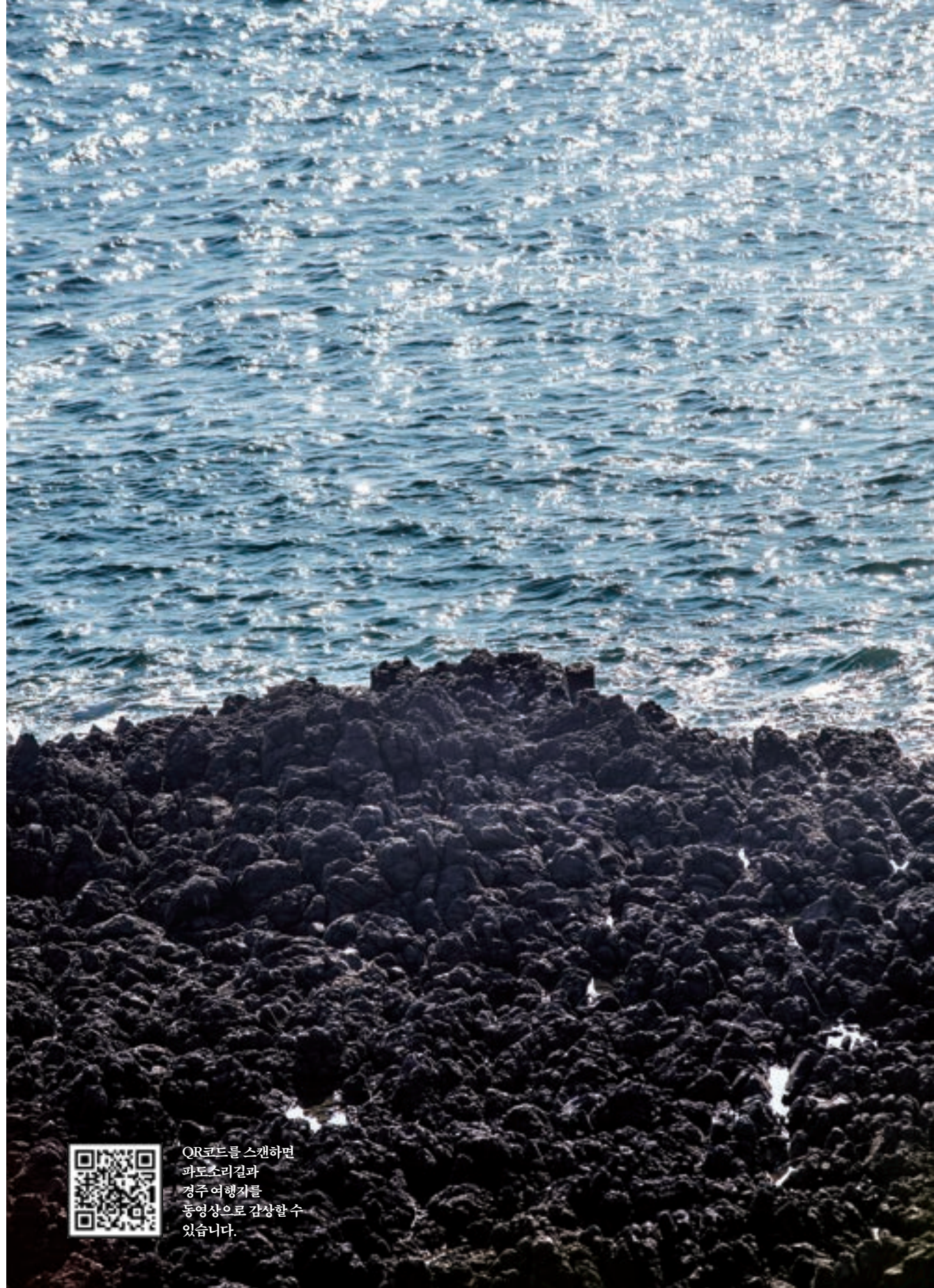
은빛 햇살이 쏟아지는 바다로 다가갔다. 조금씩 번지는 빛의 물결이 어느 순간 시야를 덮었고, 다른 모두는 햇살 뒤로 숨어들었다. 우리는 바다를 응시했다. 걸음을 멈췄으며 빛과 눈을 마주쳤다. 바다가 내어 주는 파란 서정으로 숨을 쉬었다. 해가 솟은 지 얼마 안 된 시각, 놀랍도록 눈부신 경주 바다가 펼쳐지고 있었다.

햇살과 함께 걷는 파도소리길

읍천항에서 경주 여행을 시작했다. 바다를 기점으로 정한 건 경주를 새롭게 그리기 위해서였다. 천년 도읍의 역사가 선명하고 자취 또한 건재하나, 그 위에 지금 경주를 겹쳐 그리고 싶었다. 옛일만 기웃거리기엔 경주의 오늘이 이토록 찬란하니까. 시야를 메운 저 읍천항 아침 바다처럼. 이곳에서 하서항까지 1.7킬로미터에 이르는 파도소리길을 햇살과 함께 걷는다. 가뭇하게 사라지는 새벽 공기가 잔향을 흠뻑려 정신을 맑히고, 간단없이 흐르는 파도 소리는 발걸음을 활기있게 만들어 준다.

읍천항을 지나자 해안과 맞붙은 길이 나온다. 폭은 넓

+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신경주역까지 2시간 10여분이 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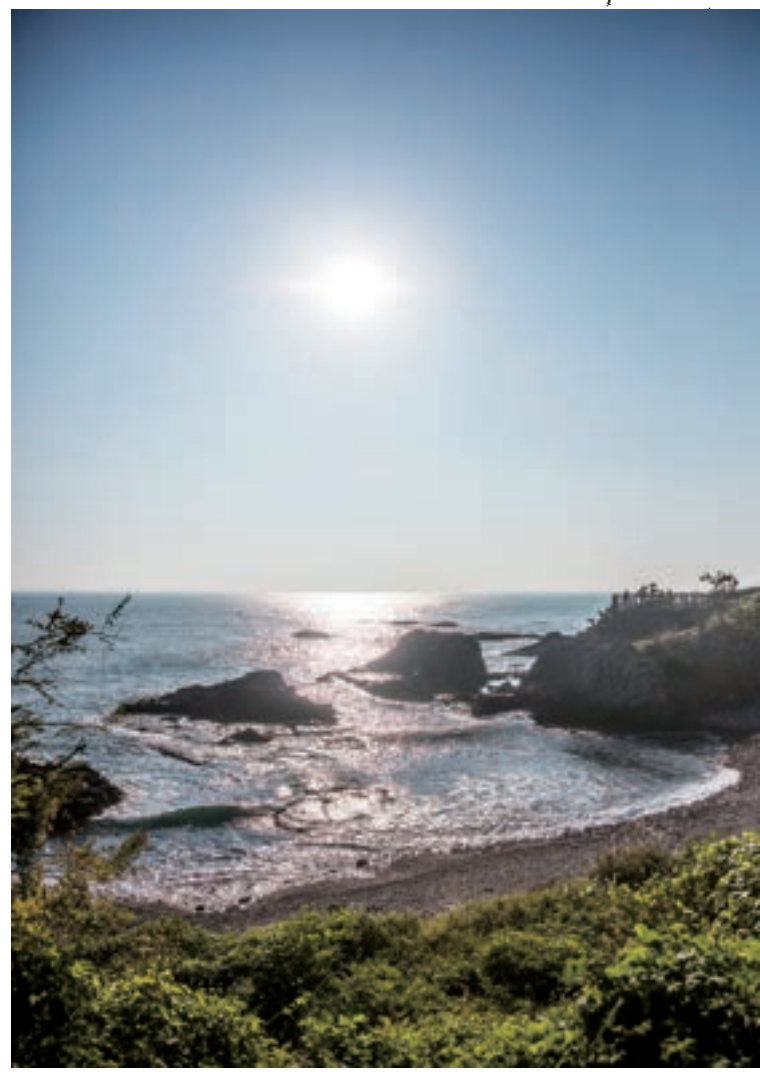


QR코드를 스캔하면
파도소리길과
경주 여행지를
동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지 않다. 오르막도 내리막도 내리 아담하다. 때론 구부러져 다음 길이 드러나지 않는다. 경주 파도소리길은 자그맣고 순하며 해안선을 따라 흔들린다. 대단하다 할 순 없는 길, 그리하여 바다는 깊이 스민다. 자신을 감춘 채 파도와 소리에 온전히 집중하도록 하는 길을 유명하듯 나아간다. 나긋한 하늘, 감미로운 바다의 노래. 여러 굴곡을 통과해 바다에서 돌아난 주상절리를 만났다. 수백만 년 혹은 수천만 년 전에 용암이 굳어 만들어진 육각과 오각의 기묘한 돌덩이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가마득한 과거 어느 날에 그랬듯이 하얀 포말이 부챗살 모양 절리를 쓰다듬고 대해로 빠져나간다. 절리 가장자리는 윤슬에 에워싸여 거무스름하게 반짝이고 있다. 자연이 생성 소멸하는 과정을 낱알이 알 방도는 없어도 세월을 머금은 절리는 오래도록 신비로울 것 같다. 뜨겁게 타오른 땅이 바다로 엮이듯 용암은 순식간에 식으면서 주상절리가 됐다. 어수선한 일상이 달군 마음을 경주 바다에 대어 본다. 검은 돌덩이와 하얀 포말과 푸른 하늘이 밀려와 가슴을 어루만진다. 은빛 햇살이 쏟아지는 바다에서 걸음은 점점 느려진다. 종종 멈추기도 했지만 실은 멈추지 않았다. 마음은 계속 하늘을 담고 바다를 마신다. 경주 파도소리길 광활한 풍경이 우리를 흘러간다. 하서항에 이르러 첫 번째 여정을 마무리했다. 가운데 하늘로 올라선 태양이 다음 여정을 안내한다. 태양을 쫓아 서쪽으로 발길을 옮긴다. 토함산을 넘어 경주 내륙에 닿았다.

계절마다 다른 정취, 경주엑스포대공원

바람이 고운 오솔길을 걷다 돌아보았다. 나무들 틈에서 이곳 들머리가 시야에 잡힌다. 입구를 통과하고 한참 지났는데, 그리 많이 오지는 않은 것이다. 긴 시간 느리게 배회한 숲은 경주 바다의 파란 서정을 닮았다. 마음에 들어와 서걱거리는 바람과 나무를 경주의 기억에 얹는다. 토함산 끝자락, 경주엑스포대공원에서 고



●●
바다에 온전히 집중하도록 하는 길을 유명하듯 나아간다. 나긋한 하늘, 감미로운 바다의 노래.

●
파도소리길은 읍천항에서 하서항까지 1.7킬로미터에 이르는 해안 산책 길이다.

즈넉한 순간을 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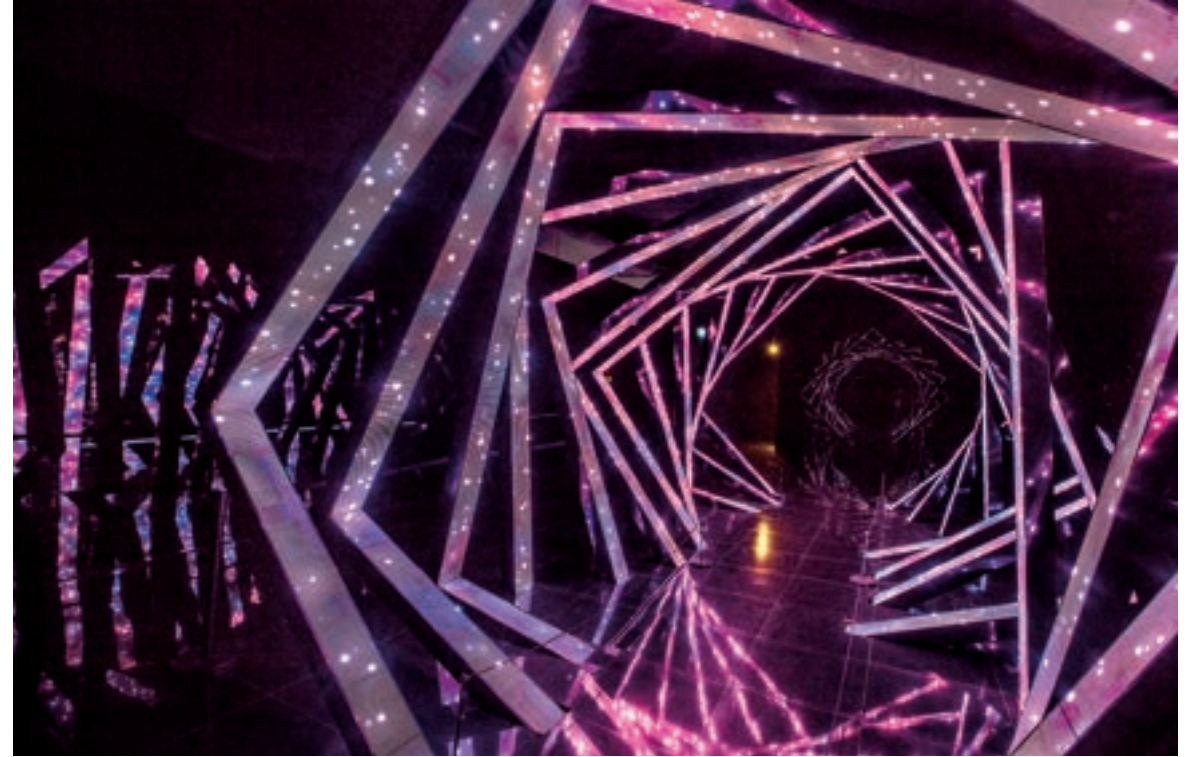
1998년에 문을 연 경주엑스포대공원은 황룡사 구층목탑을 형상화한 경주타워를 비롯해 정원과 산책로, 솔거미술관, 다양한 체험 시설로 경주 시민과 여행자에게 사랑받았다. 축구장 80개가 들어갈 만큼 널찍한 공원 곳곳에 잘 다듬은 산책로가 놓여 어느 때 와도 계절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공원 입구에서 솔거미술관으로 가는 길에 비밀의 정원을 감상했다. 나뭇잎이 흔들대는 수면에 경주타워가 비치는 정원 벤치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봤다. 저들의 배회도 긴 시간 느리게 이어지리라. 정원을 빠져나와 비움명상둘레길을 거쳐 천마의 궁전에 다다랐다. 경주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모티프로 제작한 거대한 미디어 아트 '찬란한 빛의 신라'가 여기서 시작된다. 첨성대를 상징하는 입체 조형물 주변으로 LED 조명이 별빛처럼 내리는 '경계에 서다', 천마총 금관과 황금 꽃비가 관람객의 움직임을 따라 흔들리는 '찬란함을 잇다', 석굴암 조성 과정을 색과 선으로 함축해 사방에 투영한 '별과 이야기하다', 실�크로드의 시작점이던 서라벌, 그리고 사막과 오아시스를 몽환적 물결로 묘사한 '오아시스를 만나다' 등 총 여덟 작품이 천마의 궁전 건물을 빼곡 채웠다.

경주가 간직한 유산을 현재 언어로 표현한 전시를 하나하나 읽어 나간다. 짙은 어둠을 밝히는 빛 축제가 관람객의 시선을 제 품으로 거두어들이고, 우리는 정원에서 보낸 한때를 끌어와 찬란한 이곳 빛의 순간과 아우른다. 익숙한 문화유산을 새롭게 느끼는 공간에서 더디 흐르는 시간과 나란히 걷는다. 바다를 떠다니는 양 작품 속을 부유하는 동안 잡다한 생각이 찾아오고 감각은 깨어난다. 경주 한편에서 조우한 경주의 모든 시간과 공간. 기대를 뛰어넘는 광경에 내내 만족스럽던 관람을 마치고 다시 산책로로 갔다. 계절이 선사한 색을 입고 약동하는 경주엑스포대공원의 리듬에 맞춰 걸음을 옮긴다. 천천히, 오랫동안 경주를 걸었다.

여행과 여행을 잇는 경주의 휴식

여행과 동떨어진 머뭇이 아닌 여행과 여행을 잇는 머뭇을 바랐다. 경주이기에 가능한 특별한 휴식을 찾아 황리단길로 향했다. 잘 보존된 기와집과 현대식 건물들이 나란한 황리단길은 트렌디한 카페, 공방, 레스토랑이 즐비해 밤낮 북적이는 거리다. 골목에서 흘러나오는 들뜬 분위기를 만끽하며 돌아다니던 중 뜰이 예쁜 한옥에 당도했다.

● 경주엑스포대공원은 경주타워를 비롯해 정원과 산책로, 다양한 체험 시설을 갖췄다. 문의 054-748-3011



●● 짙은 어둠을 밝히는 미디어 아트 '찬란한 빛의 신라'가 관람객의 시선을 제 품으로 거두어들이고.

●●

기와지붕 아래에서 소나무가
햇살을 받는다. 대청 양옆으로는 한지
문창살이 은은한 빛을 낸다.



● 황리단길과 경주대릉원을
비롯해 경주 곳곳에는
다양한 한옥 숙소가 있다.



기와가 운을 내는 지붕 아래에서 소나무 한 그루가
후 햇살을 받고 있다. 뜰을 감싼 나무 기둥이 소나무
앞까지 그림자를 드리우고, 담장 밑동에 무더기로 핀
꽃은 열은 향기를 바람에 실어 보낸다. 대청 양옆으로
는 한지를 바른 문창살이 은은한 빛을 낸다. 황리단길
거리를 살짝 비껴 대문을 넘어선 찰나에 사위가 고요
해졌다. 대청을 올라 뒤꼍에서 넘어온 벌레 몸을 넣는
다. 포근한 햇살. 황리단길과 경주대릉원 사이에 위치
한 한옥 숙소에서 여행의 경험이 일순 확장된다.

머무를 시간, 경주의 한옥

‘소설재’는 통일신라 시대에 쓰인 우물을 중심으로 터
를 다지고 뜰과 한옥을 만들었다. 축대와 기둥을 전통
방식으로 쌓아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막았으며, 대
들보와 서까래는 사계절 단단한 미송을 써 뒤틀리거
나 갈라지지 않도록 했다. 대문 옆 1층은 숙소와 카페
이고 2층에도 숙소인 누각을 세웠다. 2층에서 창을 열
자 바깥으로 층층이 가득한 한옥 용마루와 남산 능선
의 풍경이 방 안으로 밀려든다. 창에 유리를 덧대 열지
않아도 방에 풍경이 고인다. 빛살이 어리는 방에서 문
창살 틈으로 파고드는 경주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뜰
로 내려와 다시 대청에 앉았다. 뒤꼍 담장에 붙은 대나



무에서 쇠쇠 소리가 날아오더니 대문을 지나 황리단길로 사라진다. 집에 밀려드는 풍경과 거리로 날아가는 소리를 마음에 담는다. 손끝까지 따듯해지는 지금, 경주에 밤이 찾아오고 있다.

헤아리건대, 휴식은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단절이라기보다 돌을 하나로 맺는 연결일 테다. 오늘 하루 우리는 경주를 살았다. 바다에서 내륙에 이르는 길 곳곳에서 삶을 이었다. 천년 도읍의 건재한 자취 위에 현재 경주를 겹쳐 그린 오늘이 어제와 다름없이 저물어 간다. 나무 기둥 그림자가 담장까지 늘어졌으니 곧 어둠이 들고 뜰에 밤하늘이 내리겠다. 휴식이 아니고는 무엇도 떠오르지 않는 밤의 어귀에서 별빛을 기다린다. 대청을 건넌 대나무 소리가 뜰을 스쳐 거리로 나아간다. 소리 한 자락 쥐어 들고 밤의 경주를 산책한다. 들뜬 분위기가 흘러나오는 골목 어디쯤에서 손바닥을 폈다. 쇠쇠, 골목에서 경주의 소리가 들린다. 오늘이 아름답다. 그리하여 경주는 내일도 아름다울 것이다. ㉠



들뜬 황리단길에서 한옥 대문을 넘어선 순간, 온 사위가 고요해진다. 대청에 어린 별이 따듯하다.



안녕,

경주역. 불국사역

지난해 12월 28일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진
경주의 17개 역을 뜨겁게 기억한다.



그림다는 말은 나에게 뜨거운 존재였다는
의미일 것이다. 우리는 경주역이 그림다.
덜컹덜컹 커덩 커덩 역으로 들어온 기차가 수학
여행 온 학생을 쏟아 내면 경주역 광장은
잠시 학교 운동장이 되었다. 오와 열을 맞
추려 꼼지락대는 학생과 인원을 점검하
느라 바쁜 선생님이 수선스럽던 광장. '국
민 수학여행지' 경주의 대문 격인 경주역
은 교복 입은 학생들로 종종 복잡했다. 그
뿐이랴. 포항·대구·울산을 기차로 연결
하는 사통팔달 요지이자 경주 시내버스
대부분이 거치는 지역 교통의 중심이기도
했다. 보따리 이고 기차를 기다리는 상인
부터 알콩달콩하며 역을 빠져나가는 신혼
부부까지, 경주역은 이 도시에서 가장 활
기찬 공간이었다.

이제 그 시절 풍경은 역사가 되었다.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의 일환으로 2003년 시작한 울산~포항 복선 전철화 사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노선을 가동하면서 기존에 경주를 통과한 동해남부선과 중앙선이 지난해 12월 28일 운행을 종료했다. 폐선 길이는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긴 80.3킬로미터에 이른다. 경주에 살지 않더라도 많은 이에게 낯익은 경주역, 불국사역을 비롯해 지역 사람의 애환이 어린 모화역, 사방역, 청령역, 건천역 등 17개 역 또한 폐선과 마찬가지로 같은 날 무대에서 퇴장했다.

신경주역에서 새 출발 하는 경주 기차의 시간

동해남부선과 중앙선을 대체하는 노선은 도심 외곽을 지난다. 시내를 관통하는 기존 노선이 신라 천년 고도의 문화유산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고민한 결과다. 경주역 기능은 KTX가 운행 중인 신경주역에 통합됐다. 그리고 조만간 신경주역은 경주역을 오가던 무궁화호는 물론이고 KTX와 KTX-산천, KTX-이음, SRT 등 모든 고속열차가 정차하는 첫 번째 역이 된다. 그때 우리는 그리운 경주역 풍경을 신경주역에서 만날 수 있다. 위치도, 시대도 다르지만 사람이 기차에 타고, 기차가 사람을 내려놓는 사연은 변치 않을 것이기에. 새 노선의 아화역, 서경주역, 안강역 또한 동해남부선과 중앙선 역들이 그랬듯 지역 사람의 애환을 품고 기억해 주겠다.

1918년 문을 연 경주역과 불국사역은 103년이란 시간을 역사에 새겼다. 104년, 그리고 그 이상의 시간은 없다. 경주역 광장에 가득한 학생과 불국사역 앞에서 불국사행 버스를 기다리는 여행객도 더는 보기 힘들다. 하지만 기차는 계속 달린다. 104년째 시간을 신경주역에 넘긴 경주의 역들은 영원히 달릴 기차처럼 마음과 마음에 남을 것이다. 그 시절 뜨겁게 살았던 경주역과 사람들이 그림다. ㉔



경주에서 사라지는 주요 역



모화역



나원역



사방역



양자동역



입실역



청령역

© 한국철도



모화역

경주 최남단 역으로 1937년에 역무원을 배치하고 영업을 개시했다. 모화라는 이름은 신라 때 불교에 귀의한 이들이 식발한 머리카락을 여기서 불태우고 불국사로 들어간 데서 유래한다. 모화역은 인근 유동 인구가 줄어 2007년 일반 열차가 정차하지 않는 역이 되었다.

사방역

선비를 많이 배출해 이름 붙은 사방리에서 경주역과 같은 해인 1918년부터 기차를 운행했다. 1945년 선로를 광궤로 개량하고 1958년 신축해 현재 모습을 갖췄으나 이용객 감소로 2007년 문을 닫았다. 폐역이었지만 상대 기차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교행역으로 활용됐다.

입실역

불국사로 들어간다는 뜻의 입실역은 가을이면 연안리 황금 들판을 배경으로 기차가 달리는 풍경을 선사했다. 1921년 설립돼 시대 변화에도 불국사역을 관리하는 보통역 지위를 2015년까지 유지했다. 입실역의 교행 기능은 근처에 신설한 외동신호장이 있고 있다.

나원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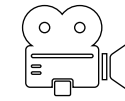
1935년에 개업한 나원역은 교통의 중심이던 경주역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상 이용객이 많지 않아 오랜 기간 간이역 역할을 했다. 2008년과 2015년에 각각 여객과 화물 취급을 중단했으나 동해남부선 폐선 이후 서쪽에 이설한 선로의 서경주역이 기능을 통합했다.

양자동역

양동마을에서 1킬로미터 남짓 떨어진 양자동역은 한때 매년 2만~3만 명이 이용했지만 배차 간격이 길어지면서 승객이 줄었고 사방역과 함께 폐역이 됐다. 양동마을이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뒤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들르는 사진 스폿으로 알려졌다.

청령역

곳곳에 무성한 푸른 대나무가 그대로 이름이 된 청령리 주민들이 역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해 1967년 역무원을 배치하지 않는 간이역으로 만들었다. 단출한 지붕 아래 벤치 두 개와 팻말 하나만 놓였고, 형산강과 들녘을 뒤에 두어 청령역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여기가 바로 그곳

그 장면, 강릉이어서 더욱 아름답다. 바다와 커피 향이 그윽한 강원도 강릉의 여러 촬영지를 소개한다.



바다를 보고, 숲을 거닐고, 커피를 즐기고 싶을 때 각각 어울리는 도시는 정말 많다. 그러나 이 모두 만족스러운 도시를 궁리할 땐 대번에 두 글자가 떠오른다. 강릉. 세 가지 향이 짙은 강릉은 남쪽 도직해변에서 북쪽 향호해변에 이르는 길 어디에서나 드넓은 동해를 만날 수 있다. 주문진, 경포, 강문, 정동진 등 강릉이 품은 해변이 하나하나 근사해 오직 바닷가 투어만으로 뿌듯한 시간을 누린다. 강릉솔향수목원, 대관령자연휴양림, 안반데기가 내어 주는 숲 향기 역시 강릉 여행을 특별하게 만든다. 바다에서 내륙으로 조금만 이동해도 곳곳에서 숲이 여행자를 반긴다.

또 하나, 커피를 빼고 강릉을 설명하기 힘들다. 안목해변은 강릉 시민에게 특별한 장소로, 커피 자판기가 밀집해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감상하고자 동전 몇 개 들고 찾는 이가 많았다. 자판기마다 커피 맛이 달라 안목해변을 순례하듯 방문하는 이가 늘었는데, 2000년대엔 바리스타들이 정착하면서 커피 거리를 이루었다. 오늘날 안목해변에는 각각 독특한 향과 맛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가 즐비하다.

이런 강릉의 바다, 나무, 커피는 영화나 드라마, 뮤직비디오의 배경이 되어 왔다. 방탄소년단이 버스 정류장을 설치하고 앨범 사진으로 촬영한 향호해변을 비롯해 드라마 <남자친구>의 심곡항, <도깨비>의 영진해변 같은 촬영지가 인기를 끌며 명소 자리매김했다. 세 가지 향기를 만끽하는 여행이 즐겁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드라마 속 공간을 거니는 순간은 행복하다. 강릉에선 지금도 내일의 명소가 될 촬영 현장이 여기저기에서 펼쳐진다. 2017년 12월 KTX 개통에 이어 향후 부산, 인천, 전남 목포와 연결돼 광역 철도 교통망의 축이 될 강릉은 앞으로도 마음 설레는 여행지로 각광받을 것이다. **1**

There are many cities where you can admire the sea, take a walk in the woods, and enjoy a cup of coffee. If you're thinking of doing all three, only one destination comes to mind: Gangneung. You will be greeted by impressive sea views along the long stretch of beaches, from Dojik Beach in the south to Hyangho Beach in the north. The woody scents of Solhyang Arboretum and Daegwallyeong Recreation Forest engage your senses, making your trip all the more memorable.

Gangneung is also famous for coffee. Anmok Beach used to be lined with coffee vending machines, and many locals headed there with coins jingling in their pockets. In the 2000s, trendy cafes began popping up in the area, and the coffee street was formed. Today, Anmok Beach is home to a diverse range of cafes with unique offerings.

Not surprisingly, many movies, dramas, and music videos have been filmed in Gangneung. The bus stop on Hyangho Beach is where BTS shot their album cover, and the popular television series *Guardian: The Lonely and Great God* was filmed on Yeongjin Beach. Both have become top travel destinations. The city has grown more accessible with the opening of the Gangneung KTX line in December 2017, and plans to boost its appeal among tourists by providing train services to Busan, Incheon, and Mokpo. **1**

강릉



이곳에서 촬영했어요



🎬 드라마 <남자친구> @심곡항

한 번도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지 못한 수현과 그와 반대로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진혁의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 <남자친구>의 이야기는 심곡항에서 절정에 달했다. 빨간 등대 앞에서 만나 서로 껴안는 주인공. 먼바다에서 파도가 밀려와 돌을 축복하는 신은 드라마에서 손꼽히는 명장면이다.

Encounter captures the love between Su-hyeon, and Jin-hyeok. The plot reaches its climax at Simgok Port. The scene of the waves rushing in, as though blessing the couple, has been picked by viewers as one of their favorite moments.



🎵 방탄소년단 앨범 <You Never Walk Alone> 재킷 @향호해변

세계가 환호하는 방탄소년단도 강릉을 찾았다. 2017년 2월에 발매한 앨범 <유 네버 워크 얼론(You Never Walk Alone)> 재킷을 촬영하기 위해 서였다. 포즈를 취하고 버스 정류장에 앉은 멤버들이 화면을 반으로 가른 수평선과 어우러진 사진은 방탄소년단을 상징하는 이미지 중 하나로 각인되었다. 이후 향호해변은 아이들의 성지로 떠올랐다.

K-pop sensation BTS shot the cover of *You Never Walk Alone*, an album released in 2017, in Gangneung. The photo shows the seven members sitting at a bus stop, with the sea and horizon in the background. It has become an iconic image of the boy band, and Hyangho Beach is considered a top pilgrimage site for BTS fans.



🎬 영화 <나는 보리> @주문진마을

평범한 보리의 가족이 남다른 게 하나 있다면 보리를 제외하고 다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가족을 사랑해 자신 또한 청각을 잃게 되길 기도하는 보리의 이야기를 잔잔하게 담은 영화 촬영지가 주문진마을이다. 파스텔 톤으로 표현한 바다가 보리의 내면을 맑게 드러낸다. 촬영지가 김진유 감독의 고향인 덕분에 풍경이 한층 깊게 다가온다.

What sets Bori's family apart from others is that Bori is the only family member who can hear. Out of love for her family, she hopes to lose her sense of hearing. The movie was filmed in the town of Jumunjin. The pastel tones of the ocean seem to reflect the innocence of childhood.



🎬 드라마 <도깨비> @영진해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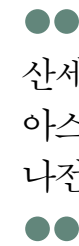
생일을 맞은 은택이 방사제에 앉아 케이크 촛불을 끈다. 그러자 김신이 나타나 메밀꽃 다발을 건넨다. 메밀꽃 꽃말은 연인. 이야기 전개를 암시하는 장면은 광활한 바다와 자그마한 방사제를 배경으로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영진해변은 지금도 많은 이가 도깨비해변이라 부르며 강릉 여행 필수 코스로 선택한다.

Kim Shin presents a bouquet of buckwheat flowers to Eun-tak, who is sitting on a breakwater. The buckwheat flowers mean lovers, hinting at the story that is about to unfold. The romantic scene was filmed on Yeongjin Beach, also known as Dokkaebi Beach.

따스한 소리가 들리는

한국의 마지막 비둘기호가 달렸던 강원도 정선선.
지금도 나전역은 마음을 다독이는 소리를 들려준다.





산세를 살피고 달래서 낸 한 줄기 철길이
아스라하다. 과거 비둘기호 기적 소리처럼
나전역에는 오늘도 따스한 소리가 울린다.

2002년 환경부가 <한국의 아름다운 소리 100>이라는 책을 냈다. 한국 고유의 소리 100가지를 선정해 CD와 함께 담은 책이다. 가시연꽃밭의 폭우 소리, 싸리비로 낙엽 쓰는 소리, 가마솥 끓는 소리, 남대천 연어 돌아오는 소리. 목록만 보아도, 일상에 쫓겨 사느라 잊고 지내던 무언가가 치밀어 오른다. 그 가운데 한 항목이 마지막 비둘기호 정선선 기적 소리다. 거대한 산이 어깨 맞대고 이어진 고장, 산세를 살피고 달래서 겨우 낸 단선 철도에 대한민국 마지막 비둘기호가 구불구불다녔다. 쪽 뺨은 인생은 남의 얘기 같았을 고단한 사람에게 괜찮다, 천천히 가자 말하는 기차였을 것이다. 어제의 아름다운 소리가 역사로 남은 곳에서는 오늘 어떤 소리가 들릴까 궁금해 정선선 나전역을 향했다. 산에 둘러싸인 작은 역이 카페가 되었다 했다.

카페이자 '현직' 간이역, 나전역

민트색 산뜻한 나전역은 1969년 10월 문을 열었다. 이전까지 화전민이 '비단 밭(나전, 羅田)'을 일구던 동네가 탄광촌이 되면서다. 정선의 첩첩산중 땅 아래에는 '검은 황금' 석탄이 빼곡하게 묻혀 있었다. 일 자리를 찾아 전국에서 사람이 모여들어, 유사 이래 정선 인구는 최대치를 기록했다. 석탄과 사람을 실어 나를 수단이 급한 데다 여기는 겨울에 눈이 잦고 도로 사정 여의치 않은 강원도 산골이다. 간신히 마련한 철도에 매달려 사람들은 출퇴근하고 통학하고 장 보러 다녔다. 단선이라 상행과 하행 열차가 번갈아 운행하는 소박한 시간표에, 여름엔 천장에서 털털 소리 내며 돌아가는 선풍기가 유일한 냉방 기기였으나 기차도 역도 북적북적한 시절이었다.

석탄으로 번영한 역은 석탄 산업의 쇠락으로 시들어 갔다. '산업 역군'이라 칭송받던 전체 6만 2000여 명 광부는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이후 10년 사이에 8000여 명만 남았다. 오기는 이 줄어든 역은 2011년 역무원이 없는 무배치 간이역이 되었다. 나중에 기차가 무정차하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철거 논의가 나오기도 했다. 다행히 역은 살아남았다. 당장의 필요와 불필요만 따지다 많은 것을

☐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청량리역에서 정선아리랑열차를 타고 나전역까지 3시간 40여 분이 걸린다. 코로나19와 정선선 공사 상황에 따라 운행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없는 세상에서 나전역은 작은 기적이다. 역무원이 없어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사람들이 뜻을 모았다. 마침내 2020년 11월, 주민 협동조합이 역 전체를 카페로 단장해 새롭게 선보였다. 기차역 한쪽에 카페를 열거나 폐역을 카페로 활용하는 경우는 있어도 '현직 역' 건물 전체가 카페로 변모한 사례는 처음이다. 정선아리랑열차가 나전역에 정차하기에 기차 타고 나전역을 방문하는 일도, 카페가 된 기차역에서 기차가 지나가는 풍경을 감상하는 일도 가능하다. 벽면에 열차 시각표가 자랑스레 게시돼 있다.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으니 카페 탁자에 웬 서랍이 있다. 역 직원이 실제 사용한 사무용 책상이어서 그렇다고 정현인 대표가 설명해 준다. 요즘은 맞이방이라 부르는 대합실 특유의 긴 나무 의자, 역장님 책상, 제복, 전화기 하나까지 원래 나전역 물품이다. 매표소는 부엌이 되었고, 과거에 표 사고 건네받는 창구로는 주문한 음식이 나온다.

메뉴 또한 특별하다. 역 이름을 딴 나전역크림커피가 대표 메뉴다. 정선 특산물 곤드레로 크림을 만들어 우유, 에스프레소와 섞어 마신다. 우유·커피·곤드레크림이 세 층을 이루는 커피는 보기에 예쁘고 맛의 조화도 훌륭하다. 협동조합은 어디서나 내놓는 흔한 메뉴 대신 나전역만의 메뉴를 개발하고 싶었다. 곤드레를 넣어 튀긴 아란치니, 곤드레크림커피가 그 결과물이다. 최근에는 주변 농민이 재배한 사과를 이용해 사과라테, 사과밀크티를 출시했다. 음료와 아란치니, 샌드위치, 바구니에 담아서 주는 피크닉 세트도 인기다. 손님들은 승강장 바닥에, 나무 벤치에 식탁보 깔아 음식을 두고 경치를 감상하면서 소풍 나온 기분을 만끽한다. 카페 창문으로는 햇살이 한 움큼 쏟아지고 정선의 산과 하늘, 물과 바람이 기른 곤드레가 들어간 커피와 빵을 맛본다. 행복이라는 말이 손에 쥐여지는 느낌이다.

오늘 더욱 빛나는 주인공이 되어

이 역은 드라마와 영화, CF의 배경으로도 활약했다. 1992년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비롯해 1995년 드라마 <모래시계>, 2008

+ 나전역 카페 즐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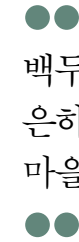
1969년 문을 연 나전역은 석탄 산업이 쇠락하면서 역무원 무배치 간이역이 되었다. 찾는 이 드물던 역을 주민이 주도해 카페로 예쁘게 꾸몄다. 정선아리랑열차가 이곳에 정차하는 덕분에 기차 타고 방문하는 것도 가능하고, 카페에 앉아서 지나가는 기차를 바라볼 수도 있다. 이곳에서는 정선 특산물인 곤드레를 활용한 메뉴를 내놓는다. 곤드레크림을 올린 커피, 곤드레를 듬뿍 넣은 빵 등이다. 문의 033-563-3646

● 민트색이 화사하고 별 잘 드는 카페는 실제 나전역 대합실의 나무 의자, 역무원이 사용한 책상, 전화기 등을 활용해 꾸몄다. 역무원 제복을 걸치고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다.





●●
승강장에는 흰색 나무 이정표를 복원해
놓았다. 한쪽은 아우라지, 한쪽은 정선,
가운데에 가장 큰 글씨로 나전.
주인공이 된 간이역의 존재가 사랑스럽다.
●●



백두대간 함백산이 곳곳하고, 밤하늘에는 은하수가 흐르는 곳 고한. 주민이 힘을 합쳐 마을을 호텔로 꾸미자 여행객이 찾아왔다.

년 서태지와 심은경이 등장한 통신사 광고 등이다. 2015년에는 드라마 <킬 미 힐 미>에서 두 주인공이 이별 여행을 떠나 어린 시절을 곱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장면이 나왔다. 그토록 중요한 장면을 왜 여기서 촬영했는지 알 것 같다. 어여쁜 건물과 고즈넉한 풍경. 세월을 머금은 역에는 만남과 헤어짐, 성공과 실패, 떠남과 귀환의 정서가 고여 있다. 이런 곳에서는 생각을 하게 되고, 상대방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며, 속내를 털어놓고 싶어진다.

승강장의 나무 이정표도 역 분위기와 잘 어울려진다. 한쪽은 아우라지, 한쪽은 정선, 가운데에 가장 큰 글씨로 나전. 내다볼 것도, 돌이켜볼 것도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역이면 충분하다. 도시 사람이 '나전'이라는 역명을 모를지라도 여기서만은 나전역이 주인공이다.

역을 둘러보는 내내 마음에 스크린이 펼쳐진다. 승강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광부가 되려 찾아온 수많은 청춘의 눈이 별처럼 가로등처럼 빛났을 테고, 대합실은 등교 시각에 맞춰 기차를 기다리면서 수다 떨고 장난치는 학생의 싱그러움이 넘쳤을 것이다. 때마다 기적 소리가 고요한 마을을 깨우고, 사람들은 그 소리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 놀라기도 했으리라. 어제의 애뜻한 공간이 오늘 설레는 여행지로, 주민의 모임 장소로 여전히 살아 있어 고맙다.

18번가의 기적 '마을호텔18번가'

탄광의 기쁨과 슬픔이 차례로 지나간 동네가 정선에는 여러 곳이다. 정선에서 마지막 문 닫은 삼척탄좌 정암광업소가 있는 고한읍은 그 변화의 파도를 가장 격렬하게 겪었다. 1985년 읍 승격 당시 3만 2000명에 달한 고한읍 인구는 현재 10분의 1가량으로 줄었다. 사람이 빠져나가자 동네에 생기도 사라졌다. 늘어 가는 건 빈집뿐이었다.

이대로 두기 안타까워한 몇몇이 기운을 내서 뭉쳤다. 이 고장 고한은 백두대간 함백산이 곳곳하고, 사방의 산이 뿜어내는 공기가 맑으며, 밤에는 은하수가 강처럼 흐르는 곳이었다. 요즘 사람은 공기 좋고 몸과 마음 폭 쉴 수 있고 조용한 데로 여행을 간다 했다. 바로 고한이 그

● 고한18리 마을 골목 전체가 '마을호텔18번가'를 이룬다. 폐업한 고깃집을 숙소로 리모델링하고 마을회관, 카페, 세탁소, 음식점, 이발소, 사진관, 극장이 부대시설이 되었다.

런 장소임을 깨달은 주민들이 힘을 합쳐 골목을 쓸고 쓰레기를 치우고 꽃을 심었다.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도 어제 같던 고한18리는 하루하루가 달라졌다. 협동조합을 창립했고 마침내 '마을호텔'을 함께 기획했다. 여행을 떠나 호텔에서 휴식하며 부대시설을 즐기듯 마을 전체가 하나의 호텔을 이루자는 생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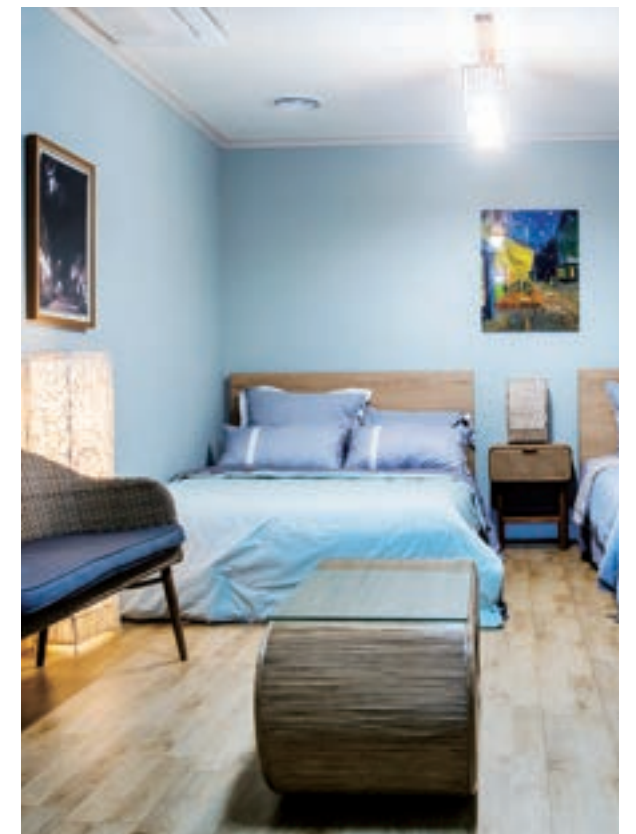
폐업한 고깃집을 객실 세 개 규모의 호텔로 리모델링했다. 작가와 디자이너를 모셔 담을 화사하게 꾸미고, 함백산이 야생화로 유명하다는 사실에서 착안해 LED 플라워 공예를 익혀 골목과 건물을 구석구석 장식했다. 숙박만 한다고 호텔이 아니다. '마을호텔18번가'는 호텔 인근 마을회관, 카페, 세탁소, 음식점, 이발소, 사진관, 극장이 모두 부대시설이다. 고한 토박이 사장이 20년 가까이 조리해 온 중국집, 광부가 즐겨 먹던 연탄구이를 전문으로 하는 고깃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은 숙박 손님에게 10퍼센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주민은 '호텔리어'로서 친절한 웃음과 재미난 이야깃거리로 손님을 맞는다. 차츰 마을이 SNS 화제로 떠오르더니 전국에서 마을호텔18번가의 시도를 배우러 오고, 정부 기관이 주는 상도 받았다. 가만두었으면 그저 낡아 갔을 마을이 오늘을 사는 마을, 내일을 이끄는 마을이 되었다.

여전히 아름다운 정선의 소리

바리스타가 치익 소리를 내며 커피를 추출한다. "여기 정말 예쁘다" 감탄하는 손님의 웃음소리와 도란도란한 말소리가 섞인다. 한국의 마지막 비둘기호 기적 소리가 울린 정선 나전역은 지금도 기분 좋은 소리가 가득하다. 누구에게나 자리 내어 주며 같이 가자 하던 어제의 열차처럼 지금도 나전역과 정선에서는 마음 다독이는 소리가 들려온다. 주민이 마음을 모아 역과 마을을 단장하고 손님을 맞으면서 만들어내는 이 소리를 '다시 오늘, 한국의 아름다운 소리' 명단에 올리고 싶다. 역 나무 의자에 앉아 생각한다. 내리고 타기 바쁜, 스쳐 지나가는 장소를 넘어 여행의 목적지가 되는 기차역을 가진 건 행운이라고. 사방의 산이 작은 역과 여행자를 안아 주는 듯 포근하다. ❶

+ 마을호텔18번가 즐기기

주민이 만든 협동조합이 '마을호텔18번가'를 운영한다. 객실 세 개 규모의 호텔은 나 홀로 여행객부터 가족 단위까지 이용하도록 쾌적하고 깔끔하게 꾸몄다. 바로 옆 카페 '수작'에서 조식도 제공한다. 숙박객에게는 음식점, 세탁소, 사진관 등은 물론 정선을 대표하는 폐탄광 문화시설 삼탄아트마인과 하이원리조트 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곳의 성공에 힘입어 마을호텔 2호점 개장을 준비 중이다. 문의 www.hotel18.co.kr





Treasure of Korea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방

- 두루 헤아리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시간

'사유의 방'은 삼국시대에 제작한 국보 반가사유상 두 점을 나란히 전시한 공간이다. 이전에는 두 점의 국보 반가사유상을 교대로 전시했는데 이제 '사유의 방'에서 함께 볼 수 있다. 박물관은 이 전시실을 조성하면서 최초로 건축가와 협업해 반가사유상의 에너지와 전시 공간이 하나가 되어 어우러지도록 했다. 전시실의 기울어진 벽과 바닥, 천장은 현실을 벗어난 듯 초현실적 느낌을 자아내고, 별을 닮은 천장의 은은한 빛은 우주의 무한한 공간을 상징한다. '반가(半跏)'란 오른쪽 다리를 왼쪽 무릎 위에 올려놓은 반결가부좌의 자세를, '사유(思惟)'는 얼굴에 손을 살짝 댄 채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을 뜻한다. 삶에 대한 깊은 고민과 깨달음을 담은 반가사유상의 미소는 사유의 여정 끝에 도달한 깨달음의 찰나를 보여준다. 두루 헤아리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시간, '사유의 방'에서 특별한 경험의 여정을 시작하길 바란다.

A Room of Quiet Contemplation: Immersing in Deep Thought

A Room of Contemplation features two pensive bodhisattva statues, both national treasures produced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The two statues used to be exhibited one at a time, but are now side by side in the same room. The exhibition hall was designed through the museum's first-ever collaboration with an architect. The slightly inclined floor and walls give off a surreal vibe, and the softly glowing ceiling symbolizes the infinite universe. The gentle smiles of the bodhisattva statues represent the moment of attaining enlightenment after profound thought and introspection. Your encounter with these two statues will let you embark on your own journey of contemplation.

☎ 02-2077-9000 🌐 www.museum.go.kr

Culture



CULTURE
OF THE
MONTH

수묵화가 감미선의 작품

묵묵하게, 담담하게

墨墨(묵묵)하게 쓰고,
淡淡(담담)하게 그린다.
수묵화가 강미선은
마음의 풍경을 시간과 자연이라는
화폭에 내어 놓는다.

강미선



대미필담(大味必淡). 정말 좋은 맛은 필시 담백하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강미선이 눌러 쓴 네 글자 앞에서 문득 ‘맛’이란 단어를 ‘멋’으로 바꾸고 싶어진다. 그의 글씨와 그림엔 언제나 담담한 멋이 흘러 넘친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미감의 완벽한 균형 상태를 이루기 위해 그는 온갖 수고로운 일을 묵묵히 감내한다. 여러 겹의 한지를 쌓아 올린 뒤, 표면을 붓으로 두드려 질감을 도톰게 만들고, 그 위에 담묵으로 재차 덧발라 수묵만이 도달할 수 있는 오묘한 먹빛을 완성한다. 시간과 공기와 영감이 빚어낸 그의 오돌도돌한 화폭을 바라보는 동안, 진정한 멋이란 그리 소란하거나 요란하지만은 않음을, 또한 결코 쉬이 얻을 수 없음을 깨닫는다.

“요즘엔 소리 없이 사는 일에 대해 생각하곤 해요. 두보의 시 ‘춘야희우(春夜喜雨, 봄밤에 내리는 기쁜 비)’에 나오는 ‘윤물세무성(潤物細無聲, 소리도 없이 만물을 적시네)’이라는 구절이 좋아서 그걸 써 보기도 했어요.” 봄비처럼 바지런했을 그의 손길을 잠시 상상해 본다.

강미선의 하루는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된다. 빛이 완전히 스미기 전, 모든 사물이 적오에 잠긴 시간. 가만히 앉아 명상을 하고, <금강경>을 읽는다. 6년 전 그는 광주의 한 사찰에서 <금강경>을 처음 건네받았다. 잘 아는 스님이 이 불경을 읽으면 마음이 맑아지고 생각도 샘솟을 거라 했다. 반신반의하며 펴 들었다. 그게 바로 모든 것의 단초가 될 줄은, 나중에야 깨닫게 된다.

<금강경>, 모든 것의 연결 고리

중견 수묵화가로서 강미선은 수묵이라는 양식이 지닌 저력을 펼쳐 보이하고자 조용히 사투를 벌여 왔다. 한지 마티에르(재질감) 작업을 통해 ‘여



“수행하는 이들이 사경을 하듯, 저도 작품 하는 사람으로서 저만의 사경을 시작했습니다.”



● ‘금강경 金剛經-지혜의 숲’ 앞에 강미선 작가가 서 있다.

●●
 “그거 아세요? 감물은 연듯빛 땡감으로만 들일 수 있다는 거. 감이 주황색으로 익기 시작하면 염색할 수가 없답니다.”
 ●●

자 박수근'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독보적 작품 세계를 구축하며 인정받았으나, 화려한 색깔과 형상을 선호하는 예술계의 흐름 속에서 수묵이 할 일은 무엇인지 한동안 치열하게 고민해야 했다. 지난봄에야 불현듯 다가온 것이 <금강경>이었다.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금강경>은 읽거나 지니는 것만으로 복이 깃든다.’ 제게도 그렇게 <금강경>이 작업의 실마리를 던져 주었어요. 사찰에서 수행하는 이들이 사경을 하듯, 저도 작품 하는 사람으로서 저만의 사경을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10년에 걸쳐 수집한 한지를 꺼냈다. 강원도 원주와 지리산 마천골 등지를 돌아다니며 그러모은 귀한 것들이었다. 빛깔과 무늬가 저마다 다른 여러 장의 한지를 겹겹이 배접해서 말리고, 그것을 다시 손바닥만 한 크기로 잘랐다. 이때, 칼로 자르지 않고 손끝으로 푹푹 떼어 질감을 살렸다. 지문이 다 닳을 만큼 고된 일이었다. 이렇게 잘라 낸 종이 위에 <금강경>을 한 자씩 써 넣었다. 수행에 가까운 작업을 이어가길 100여 일, 끝내 총 5149자를 완성하기에 이른다. ‘금강경金剛經-지혜의 숲’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금강경>의 근간인 공(空) 사상은 ‘마음을 한데 머물게 하지 마라’ ‘모든 형상이 허망하다’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적어 내려간 글의 마지막 두 줄은 제 발원 기도문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저 인연 맺는 모든 이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한 자 한 자 눌러 썼지요.”

작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강미선은 ‘금강경金剛經-지혜의 숲’ 작업에서 배접한 종이를 떼어낸 판 위에 조각보처럼 근사한 격자무늬가 만들어진 것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그러다 문득 작업실 마당에 떨어진 땡감을 발견하곤, 그것을 거의 으깨듯 판에 문지른 뒤 색깔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침 여름이었다. 햇살은 눈부셨고, 감물 먹은 한지는 나무 빛깔처럼 곱고 은은하게 말라갔다. 천연 염색에 조예가 깊은 작가의 즉흥적인 아이디어가 또 다른 대작 ‘무언가無言歌’를 착상하고 있었다. 이 대목에서 그는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귀띠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감물은 연듯빛 땡감으로만 들일 수 있다는 거. 감이 주황색으로 익기 시작하면 염색할 수가 없답니다.” 그렇게 6월 말부터 부지런히 땡감을 모으고, 자르고, 믹서를 세 대나 고장 내면서 즙을 짜다. 처음에 으깬 과육으로 그린 것과 달리, 이번엔 본격적으로 붓을 들어 나한을 그렸다. 점을 한 번 찍고, 크고 작은 ‘무한대(∞)’를 각기 한 번씩 이어 한붓그리기를 하면 나한의 머리, 가슴, 가부좌 튼 다리가 완성된다. 수많은 나한이 모여 앉은 ‘무언가無言歌’의 정경은 화가의 눈빛처럼 따뜻하고도 심연한 것이었다.

문매헌에서 만난 것들

화가로서 강미선의 원칙은 단순하다. 그저 ‘할 수 있는 것만 한다’. 조급함을 물리치고 욕심을 덜어



● 강미선은 문매헌에서 수행하는 마음으로 매일 주어진 작업을 해 나간다.

내야 비로소 그릴 수 있다고 믿는다. 얼핏 소박하고 단출해 보이지만, 정신적으로는 그 누구보다 호사스러운 생활일 것이다. 그렇기에 그는 눈앞에 있는 것만을 오래 응시한 뒤 화폭에 옮긴다. 아침에 붓을 들고, 어둠이 내리면 붓을 놓는다. 서울 통의동 골목에 자리한 작업실 문매현은 강미선의 예술가적 자존과 일상의 풍치가 집약된 공간이다. 오랜 세월 그가 이어 온 ‘관심觀心’ 연작의 소재도 모두 이곳에 모여 있다.

문매현의 소담한 마당에는 그 이름처럼 매화 몇 그루와 함께 모란, 토종 국화가 마당에 심겨 있다. 마당 뒷문에 놓인 싸리비는 유독 눈에 익다. ‘관심觀心-세심洗心’의 화폭에 담긴 바로 그 빗자루다. 강화도에서 가져온 연꽃과 10년 동안 기른 파초는 쌀쌀한 바람을 피해 실내로 들어왔는데, 이 역시 ‘관심觀心-연蓮’과 ‘관심觀心-파초芭蕉’의 모델이 된 바 있다. 그리고 보니 ‘무언가無言歌’ 작업에 쓴 땀감을 여름내 떨근 상서로운 감나무도 창밖에 우뚝 서 있다. 헐벗다시피 한 나뭇가지 위에는 까치밥으로 남겨 둔 열매 서너 개만이 매달렸다. 쓸쓸하고도 풍요롭다.

“감이 50개도 채 열리지 않더니, 지난가을엔 대풍이라 200개도 넘게 열렸을 거예요. 그걸 다 거둬들여서 동네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죠. 날짜도 기억해요. 10월 24일. 그날 감을 수확한 뒤에 그린 그림이 ‘관심觀心-감1’입니다.” 가로 4미터가 조금 안 되는 널찍한 화폭엔 감나무 가지가 커튼처럼 드리웠다. 한지와 먹의 담담한 빛깔은 안개처럼 아스라하고, 주홍색으로 한껏 영근 감은 당장이라도 손에 잡힐 듯 탐스럽다. 강미선은 이 감나무가 “달릴 것만 달려” 보기 좋았다고 했다. “감나무가 수목의 소재로 쓰이는 것은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예요. 중국이나 일본에는 감나무 그림이 흔치 않은 데 비해, 우리 화단에서는 풍요로



● '서가도書架圖'는 전통적인 서가도 구성으로 매화, 도자기, 찻자리 등 일상적 풍경을 담아낸다.

〈수묵: 쓰고 그리다〉전

강미선은 한지와 먹의 물성을 즐겨 활용하는 작가다. 금호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번 초대전에서는 〈금강경〉 5149자를 담은 '금강경金剛經-지혜의 숲'을 포함해 최근 작품을 선보인다. 일상의 풍경과 사물을 담아내던 강미선의 시선은 이제 한시와 〈금강경〉으로 확장하고 있다. 전시는 2월 6일까지. 문의 02-720-5114



강미선 1961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홍익대학교 동양화과와 동 대학원 동양화과를 졸업했다. 1985년 서울 관훈미술관에서 연 첫 개인전 이후 총 31회의 개인전을 서울, 부산, 인천, 울산, 제주, 중국 베이징·난징, 타이완 타이베이 등지에서 열었다. 2007년에는 중국 난징예술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며 수묵의 근원을 탐구했다. 강미선의 작품은 단순한 그리기를 넘어 바탕인 한지 표면에 질감을 부여해 독특한 조형성을 이룬다. 경주 남산의 선각육존불이나 서산 마애삼존불처럼 우뚝두툽한 마티에르가 한국적 미감과 맞닿아 있다는 믿음에서다. 그는 오늘도 통의동의 작업실 문매현에서 쓰고, 그리는 중이다.

● '관심觀心' 연작은 작가가 응시하는 일상의 풍경이다.

은 가을 풍경을 표현하고자 감나무를 즐겨 그리죠.” 그의 마음 한편에는 ‘한국적인 것’에 대한 애착이 단단히 자리한 듯했다.

수묵, 쓰며 그리며

강미선은 2021년 한 해 동안 쓰고 그린 것을 모아 <수묵(水墨), 쓰고 그리다>전을 연다. 수묵 안에서 쓰기와 그리기는 결국 하나라는 깨달음이 작품 곳곳에 묻어난다. 중국 원나라의 서화가 조맹부는 ‘서예와 그림에 근본적 차이가 없다’라는 ‘서화동원론’을 주장했다. 강미선은 그 사실을 아주 오래전 자연스레 체득했다. “유년 시절부터 서예를 시작했으니 이미 ‘쓰기’가 체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수묵을 전공하면서 자연히 쓰기와 그리기가 하나로 만난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금강경>이나 두보, 상건의 시구가 들어 있는 강미선의 작품을 보고 못사람은 종종 ‘여기 쓰인 서체가 무엇이야’라고 질문한다고 했다. 글씨란 본디 상형(象形)이므로, 서체에 구애되기보다 그저 일보이배하는 마음으로 한 자씩 그려 가는 일이 중할 뿐이었다.

“‘제파산사후선원(題破山寺後禪院, 파산사 뒤의 선원)’이라는 작품에서 ‘담영공인심(潭影空人心, 못 그림자가 사람의 마음 비우네)’이란 시구를 발췌해 써 보았어요. 절간의 연못 한가운데 달 그림자가 내린 풍경을 묘사한 것이죠. 동양에서는 예부터 달을 맨눈에 담는 것이 아니라, 물이나 술잔에 쏘 달을 보고 향유했답니다. 그런 은유적인 풍경이야말로 수묵의 근간이죠.” 오래 보아야 느낄 수 있는 은유적인 멋, 오랜 시간이 흘러도 닳지 않는 은은한 감흥. 강미선의 수묵엔 요즘 세상에 참 귀한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 그 속에 오래도록 머물고 싶다. **18**



N 오징어 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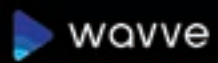


잘 봐, OTT 싸움이다

디즈니 플러스 진출에 이어 HBO 맥스가 한국 상륙을 예고한 지금, OTT업계에서 진정한 '오징어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OTT

WATCHA



코드커팅, 아니 제로 TV 시대

'본방 사수' 시대가 저물고 '다시 보기'와 '몰아 보기'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지금 OTT 플랫폼 바깥의 콘텐츠는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소비하는 대부분의 콘텐츠가 OTT 플랫폼으로 유통된다는 것이다.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긴장감 넘치는 위화도회군 장면이나 MBC 드라마 <웃소매 붉은 끝동>의 절절한 이마 키스 장면을 놓쳤다 한들 각 회차의 방영 종료 시점부터 쿠팡플레이(태종 이방원)와 웨이브(웃소매 붉은 끝동)에서 원하면 언제든 '다시 보기' 할 수 있으니, '본방 사수'의 의미를 지키기란 쉽지 않을밖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OTT 가입자는 약 1100만 명에 달한다. 코로나19 시대의 문화생활을 온전히 OTT 플랫폼에 내맡기는 사람이 늘어난 만큼 이 숫자는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다. 한국보다 먼저 OTT 사업이 시작된 미국에서 탄생한 단어 '코드 커팅(cord cutting)'은 이러한 최근 콘텐츠 시청의 흐름을 잘 보여 준다. 선을 끊는다는 뜻의 이 말은 유료 케이블 방송 가입을 해지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현상을 표현한다. 다만 여전히 IPTV 기반으로 OTT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한국 상황을 보다 적절히 묘사한 단어는 '제로 TV'다. 말 그대로 전통적 형태의 가전인 TV를 없애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해 콘텐츠를 시청한다는 의미다.

오리지널 콘텐츠 속 K-콘텐츠

그렇게 TV를 버리고 OTT 플랫폼으로 옮겨 온 시청자는 입을 모아 말한다. PPL과 클리셰로 일관하는 지상파 드라마를 견딜 수 없다고. 창작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검열이 엄격한 지상파 방송국 대신, 창작의 자유를 허하는 OTT 플랫폼 환경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편이 작품의 질을 높이기 유리하다는 것이다. OTT 플랫폼에서 자체 제작·투자해 독점 서비스하는 콘텐츠, 즉 오리지널 콘텐츠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했다. 최근에는 OTT 플랫폼 간 경쟁력이 곧 오리지널 콘텐츠의 존재감이라 할 만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분야의 선구자 격인 넷플릭스는 알폰소 쿠아론의 영화 <로마>부터 최근 제인 캠피언 감독의 <파워 오브 도그>에 이르기까지 거장 감독의 따끈한 신작을 방구석 1열 앞에 만들어 바치며 영화 산업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그런가 하면 K-좀비의 새로운 지평을 연 드라마 <킹덤>이나 최근 파이널 시즌을 공개하며 화제를 모은 스페인 드라마 <종이의 집>처럼 다양한 문화, 다양

한 장르의 시리즈물을 제작하고, 그 전편을 한날한시에 공개해 전 지구를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기도 한다. 사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위시한 K-콘텐츠가 지금처럼 주목받는 데에는 이러한 운용 방식의 공이 크다. 지난해 12월 24일부터 190여 개국 2억 1400만 구독자에게 공개한 한국 드라마 <고요의 바다>가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기대되는 이유다. K-콘텐츠만큼 K-OTT의 성장세도 두드러진다. 티빙의 드라마 <술꾼 도시 여자들>은 여성 시청자의 폭발적 호응에 힘입어 시즌 2 제작을 공언했고, 웨이브의 드라마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쿠팡플레이의 드라마 <어느 날> 역시 유료 구독자 수를 늘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며 토종 OTT 플랫폼의 성장 가능성을 엿보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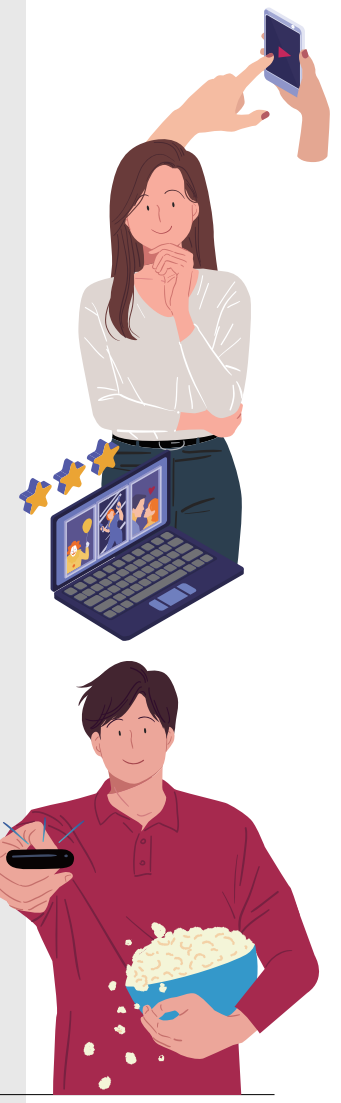
사라지는 친구들, 다시 만날 친구들

지난해 12월 30일부로 한국 넷플릭스의 재생 목록에서 미국 드라마 <프렌즈>와 <빅뱅 이론>이 사라졌다. 이튿날인 31일에는 미국 드라마 <모던 패밀리>와 영국 드라마 <셜록> 시리즈도 자취를 감췄다. 슬프긴 하지만, 이 시리즈들은 새로운 소속을 따라 바빠 이동하는 중이다. 미국 ABC에서 방영한 <모던 패밀리>는 이미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날 수 있고, NBC의 <프렌즈>는 곧 한국에 상륙할 HBO 맥스로 다시 돌아올 예정이다. 전통의 제작사들이 자체 OTT 플랫폼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플랫폼이 서비스하던 자사 콘텐츠를 빠르게 거둬들이고 있다. 이렇게 이탈하는 시리즈는 점점 늘어날 테지만, 넷플릭스가 상황을 좌시하지만은 않을 터. 시청자 입장에서 이제 곧 OTT업계에서 벌어질 치열한 '오징어 게임'을 그저 흥미롭게 지켜보면 될 일이다. 점입가경으로 흘러가는 OTT 플랫폼 대전, 제대로 즐기는 법을 다음 장에서 소개한다. **㉸**

+ OTL 말고 OTT

OTT는 'Over the Top'의 약자다. 여기서 Top은 TV에 연결하는 셋톱 박스(set-top box)를 뜻한다. 그러니까 OTT란 (기존 유료 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셋톱 박스를 벗어나' 다양한 모바일 기기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뜻하는 말이다. 최근엔 지상파 방송사나 케이블 방송 사업자도 VOD를 통해 OT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계 대표 주자인 넷플릭스는 1997년 비디오와 DVD 대여 사업에서 출발해 2007년부터 OTT 서비스를 개시했다. 넷플릭스는 시리즈의 전 회차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몰아 보기(빈지뷰잉, binge-viewing)' 열풍을 주도했다. 오프닝 건너뛰기, 모든 콘텐츠에 적용 가능한 자막 서비스 등도 전통적 TV 시청 관습을 깬다.

OTT OTT



내게 맞는 OTT 찾기



한 줄 평 | 주목 콘텐츠 | 다시 보기 | 사용자 프로필



- 오리지널 콘텐츠의 오리지널.**
궁극의 '몰아 보기' 시리즈물. <오징어 게임>과 <지옥> 이전에 <킹덤>과 <스위트홈>이 있었다. <보건교사 안은영>이나 <D.P.>처럼 소재와 장르의 다양성도 확보한 K-콘텐츠의 기세가 남다르다. 지난 연말 공개한 <고요의 바다>에 이어 웹툰 원작의 <지금 우리 학교는>, 배우 김혜수의 출연으로 눈길을 끄는 <소년 심판>도 곧 나올 예정이다. 글로벌 팬덤을 거느린 대작 <기묘한 이야기>와 <더 크라운>의 새 시즌도 놓칠 수 없다.
- 참신한 소재의 밀도 높은 다큐멘터리.** 문어의 모습을 담아내며 수중 생물의 '동물권' 논의를 촉발한 <나의 문어 선생님>은 아카데미상 후보에 지명될 만큼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체조계 성폭력 문제를 다룬 <우리는 영원히 어리지 않다>처럼 사회 이슈를 날카롭게 파고드는 콘텐츠도 일군을 이룬다. K-콘텐츠의 인기는 장르를 막론한다. <남야: 여섯 나라에서 만난 노부부 이야기>는 한국 다큐멘터리를 원작으로 6개국에서 동시 제작한 시리즈다.
- '빠른 재생'과 '건너뛰기'가 절실한, 몰아 보기 콘텐츠에 중심인 사람.** 남들 보는 건 다 봐야 직성이 풀리는 트렌드세터.



- '어른이'의 꿈과 희망.**
디즈니와 픽사와 마블의 대표작.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스타워즈> 시리즈 전편을 원하면 언제든 볼 수 있는 유일무이한 OTT 플랫폼이라니. 디즈니 플러스의 경쟁력은 픽사, 마블, 20세기스튜디오 등 많은 제작사를 인수하며 몸집을 불린 디즈니 왕국의 방대한 아카이브다. <토이 스토리>부터 MCU(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최초의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드라마 <완다비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 디즈니의 고전 만화 컬렉션.** <증기선 윌리>로 대표되는 '특별한 생쥐 미키' 시리즈와 <아기 돼지 삼형제>를 비롯한 '빈티지 디즈니' 시리즈의 사랑스러운 2D 애니메이션은 짙막한 러닝타임에 오밀조밀한 기승전결을 갖춰 몇 번이고 다시 봐도 눈을 떼기 힘들다. 무엇보다 이 고전 만화 컬렉션은 1990년대 <디즈니 만화동산>을 보고 자란 3040세대의 향수를 강렬하게 자극한다.
- 내 가족의 꿈과 희망을 수호하는 행복한 사람.** 다소 빈약한 한국어 자막까지 너그럽이 포용할 수 있는 영어 능력자.



- 선택과 집중, 유려한 미니멀리즘.**
4K의 선명한 화질과 돌비 애트모스의 만남. 음향에 대한 스티브 잡스의 각별한 애정을 계승해서일까. 애플 TV 플러스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것은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한다는 사실이다. 이뿐 아니다. 4K HDR 영상에 최적화된 콘텐츠 항목을 따로 만들 만큼 궁극의 시청각적 즐거움을 제공한다. 이토록 호사스러운 시청 환경은 그 자체로 애플 TV 플러스의 가장 큰 경쟁력이다.
- 명장의 손길이 닿은 오리지널 콘텐츠.** 로버트 드니로와 리어나도 디캐프리오가 출연한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신작 <킬러스 오브 더 플라워 문>, 조엘 코언 감독의 첫 단독 연출작으로 알려졌으며 덴절 워싱턴과 프랜시스 맥도먼드가 출연한 <맥베스의 비극>, 윤여정과 이민호가 출연하고 한국어·일본어·영어 3개 국어로 진행되는 글로벌 프로젝트 <파친코>가 공개를 앞두고 있다. 아직은 '다시 보기' 할 수 없지만, 두고두고 '다시 보게 될' 콘텐츠다.
- 애플 추종자.** 모든 애플 기기와 자유롭게 호환되니 풍요로운 콘텐츠 생활을 즐길 수 있다.



- 나를 가장 잘 아는 플랫폼.**
뉴트로 열기 속 옛날 드라마. 1990-2000년대 콘텐츠 유행이 식지 않은 모양이다. 뉴트로에 폭 빠진 청년 혹은 그때 청년이던 중장년이라면 왓차에서 서비스하는 옛날 드라마에 주목해도 좋다. <가을동화> <네 멋대로 해라> <대장금> <하이킥> 시리즈, <연애시대> <커피프린스 1호점> 등 제목을 열거하는 것만으로 가슴이 설레는 그 시절 드라마가 다양하게 포진했다. 비슷한 시대를 공유하는 홍콩 영화와 드라마도 알차게 준비했다.
- 귀신 같은 '왓차 익스클루시브'.** 2012년 영화 추천 서비스에서 출발한 왓차는 현재 콘텐츠 별점 서비스 앱 '왓차피디아'와 '왓차'(구 '왓차플레이')로 이원화됐다. 빅데이터가 왓차의 주특기이니만큼 개인화된 큐레이션을 토대로 타율이 높은 독점 콘텐츠 라인업을 마련한다. <체르노빌> <왕좌의 게임> <와이 무언 킬> <킬링 이브> 등은 물론이고 유튜브 콘텐츠 <줄줄소>의 확장판을 투자, 제작, 독점 공개해 '왓차 익스클루시브'의 확장성을 증명했다.
- 여럿이 한 콘텐츠를 보며 채팅을 즐기는 '왓차 파티'에 참여하거나 감상한 콘텐츠에 하나하나 별점을 남기며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내향형 '인싸'.**



- MZ세대가 사랑하는 TV.**
'리얼리티'가 난무하는 티빙 오리지널. 배우 공유와 박보검이 출연해 이목을 끈 <서복>은 영화로서 티빙의 첫 오리지널 콘텐츠였으나 존재감을 크게 떨치지 못했다. 의외의 수확은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환승연애>다. 이별과 사랑이 교차하는 달콤 씁사래한 풍경을 조망하며 시청자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시원한 흥행은 <술꾼 도시 여자들>이 이뤘다. 시리즈 속 진솔하면서 애뜻한 솔자리가 청년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 CJ 계열 방송사 콘텐츠.** CJ ENM의 OTT 플랫폼인 티빙은 tvN, Mnet, OCN과 JTBC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는 데 특화돼 있다. <유 퀴즈 온 더 블럭> 같은 예능 프로그램이나 <유미의 세포들>처럼 특독 튀는 소재가 돋보이는 드라마는 물론이고 <스트릿 우먼 파이터 ON THE STAGE>의 VOD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소개한다.
- '연애'와 '연애'에 두루 관심이 많은 혈기 왕성한 2030 시청자.** 다소 자극적인 예능 요소로 이뤄진 콘텐츠를 즐기는 편.



- 빨리빨리 민족을 위한 '퀵서비스'.**
역사와 연륜의 지상파 콘텐츠. 지상파 3사와 SK텔레콤이 합세해 만든 '푹(POOQ)'에서 출발했기에 '다시 보기' 서비스를 매우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순풍 산부인과> <무한도전>을 비롯해 인기리에 방영한 약 30만 편의 VOD 라이브러리를 갖췄다. 그 덕에 OTT 플랫폼 1인당 평균 사용 시간 통계 1위(236.8분)를 기록하며 넷플릭스를 제쳤다. 최근엔 '스튜디오 웨이브'를 창립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꾀하고 있다.
- 로맨스 판타지 하면 중국 드라마.** <상견니>를 시작으로 중국 드라마 열풍이 심상치 않다. 특히 최근에는 <진정령> <친애적의기군> <전문중적진천천> <춘화추월> 등 절절한 로맨스와 화려한 볼거리로 화면을 수놓는 로맨스 판타지 드라마가 대표적 '중도 정주행 추천작'으로 거론된다. 이 중 상당수는 웨이브에서만 독점 공개한다.
- 촉촉한 감수성을 지닌 드라마 팬.** 적어도 세 편 이상 동시에 정주행한다.

사람들이 아드벡을 처음 마실 때 반응은 두 가지다. 좋거나 싫거나. 잘 모르겠다, 혹은 그저 그렇다는 어중간한 반응은 단언컨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을, 다른 이에게는 거부하고픈 당혹을 선사하는 것이다. 낮과 밤의 대비만큼 명백하게 엇갈리는 반응은 아드벡만의 스모크 향에서 기인한다. 장작 향을 닮은 진한 스모크 향이 한 모금 마시는 순간 더 강렬하게 몸속으로 파고든다. 처음엔 당혹스러울지 몰라도 마실수록 묘하게 빠져드는 향과 맛, 이것이 바로 아드벡의 매력이다.

아드벡은 18세기 대영제국 정부가 스코틀랜드

섬과 바다의 맛

Islay

아드벡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러섬에서 탄생한 위스키 아드벡은 바다를 닮은 향과 맛으로 명성을 쌓았다.

● 아드벡은 남북 길이 40킬로미터의 작은 섬 스코틀랜드 아일러에서 생산한다.



© marinas.com

증류소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자 1789년부터 밀주 형태로 위스키를 생산했으며, 1815년에는 면허를 취득해 대량으로 주조하기 시작했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섬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빚은 위스키는 이내 독특한 향이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비결은 탄소 함유량이 60퍼센트 미만인 석탄 피트. 주조 첫 단계인 보리 건조 과정에서 아일랜드섬 곳곳에 굴러다니다시피 널린 피트로 불을 때는데, 이때 보리에 숯내가 입혀진다. 원료로 쓰는 냇물의 피트 성분도 스모크 향을 배가한다. 이런 아드벡은 아일랜드섬이 ‘위스키 성지’로 알려지는 데 크게 기여했다. 스코틀랜드 서쪽 해안에 위치한 아일랜드섬은 남북으로 40킬로미터, 동서로 32킬로미터 규모에 인구가 3000여 명에 불과한 작은 섬이다. 하지만 이 섬에는 아드벡을 포함해 보모어, 라가불린, 라프로익처럼 이름만 들어도 감탄이 터지는 위스키 증류소가 10여



● 아일랜드섬이 아닌 어디에서도 구현할 수 없는 진한 스모크 향은 세계가 아드벡을 찾고 즐기는 이유다.



● ‘아드벡 10년’은 스모크 향과 목직한 보디감이 조화를 이루는 아드벡 대표 브랜드다.

개나 있다. 증류소마다 피트를 활용해 주조하는 개성 넘치는 위스키가 세계적 인기를 끄는 덕분이다. 아드벡 또한 지난 7년간 ‘올해의 세계 위스키’에 네 차례 선정되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아드벡에는 바다가 담겼다. 스모크 향을 음미하는 동안 스코틀랜드섬 갯벌 내음을 연상하게 된다. 이국 정취가 물씬한 아드벡은 발렌타인 같은 저명한 블렌디드 위스키의 블렌딩 재료 중 하나이기도 하다. 2011년엔 원액을 국제 우주정거장에 올리고 2년 6개월간 숙성하는 이벤트로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렇듯 오늘날 굳건한 위상을 지니고 있지만, 아드벡은 한때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 위스키업계가 극심한 침체기를 맞은 1980년대 초반 주조장을 폐쇄한 이후 10년 만에 두 번째로 폐쇄하기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피트로 혼연한 스모크 향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대중의 기호에 맞추는 변화를 꾀한 결과 1997년 재기에 성공했다. 오랜 지질 활동이 빚은 진한 피트 향에 스코틀랜드의 바닷바람과 수백 년 노하우를 가미한 단 하나의 위스키, 아드벡은 그렇게 독특한 맛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①



● 향을 모아 주는 글렌캐런 전용 잔으로 아드벡을 더욱 깊이 있게 즐긴다.



있지도 않은 문장은 아름답고

이제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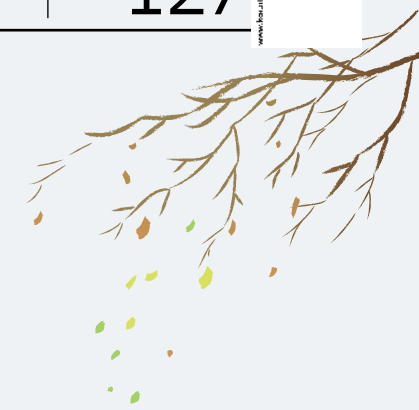
있지도 않은 문장은 아름답고 노인의 마음을 생각한다. 아침이 되면 머리에 흰 가루가 내려앉아 있습니다. 노인의 마음으로 노인의 길을 걸으면 겨울바람이 불어오고 손과 발이 얼어붙고. 걷고 걷다 보면 어느 곁에 허리가 굽어 있다. 이 고독이 감옥 같습니다. 말을 나눌 곳이 없어서 종이를 낭비하고 있다. 있지도 않은 문장은 아름답고. 아직 쓰이지 않은 종이는 흐릿한 혼란과 완전한 고독과 반복되는 무질서를 받아들인다. 손가락은 망설인다. 손가락은 서성인다. 노인의 마음으로 말한다는 것. 노인의 마음으로 적어 내려간다는 것. 휘파람을 불 때도 노인의 마음으로. 노래를 부를 때도 노인의 마음으로. 노인은 어쩐지 외롭고. 노인은 언제나 다리가 아프고. 노인은 짐짓 모르는 척 고요히 물러나고. 노인은 노인의 마음으로 가만히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나는 조금씩 조금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노인의 마음은 망설임을 갖고 있고. 노인의 마음은 말하지 않는 앞서기를 떨어뜨리고. 노인의 마음으로 거리를 걸으면 있지도 않은 문장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있지도 않은 문장은 있지도 않은 문장으로 다시 인사를 건넨다. 안녕하세요. 나는 점점 더 불박인 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람은 차고. 구름은 자고. 나무는 잎을 만나지 못하고. 비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흰 가루는 점점 더 수북이 쌓입니다. 있지도 않은 문장은 아름답고. 거리로 나서면 다시 돌는 앞서기 곁으로 노인의 마음이 스쳐 지나간다.

분명하게 봄으로 가는 걸음

아직 말하지 않았다고, 닿지 않았다고 없는 게 아니다. 있지도 않은 문장이 마음속에 있다.

나이가 들면, 이라는 생각을 종종 한다.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겠지. 노인의 기분은 어떤 것일까? 노인의 하루는, 노인의 희망은 어떤 것일까? 슬픔을 느낄 때 노인은 어떻게 막막함 속에서 빠져나올까? 아빠가 노인이 된 이후 이 질문들은 나에게 구체적이 되어, 가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다가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그때의 웅감하고 따뜻한 아빠의 모습이 그려워진다. 아빠는 8개월째 뇌졸중과 싸우고 있다. 늙기 전에 늙은 사람 보는 일이 선행된다. 2020년 아빠는 일흔네 살이었고 당연히 지난해 일흔다섯 살이 되었다. 봄에 아빠는 갑자기 쓰러졌다. 눈을 떴지만 몸의 절반이 움직이지 않았다. 지금은 재활 중이다. 다행히 겨우겨우 걸음을 옮기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해졌다. 일흔네 살의 아빠를 보며 노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일흔다섯 살의 아빠를 보며 노인이구나, 생각한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느리게 걸어가는 모습이 노인의 전형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 해가 뜨는 오후, 35년 된 아파트 놀이터에서 느리게 느리게 앞으로 나아가는 아빠를 보고 있을 때면 시간의 속도는 걸음의 속도와 반비례한다. 우리는 살아 있는 한, 걷기 위해 노력한다. 걷는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증거니까. "아빠에게 꼭 전해줘"라며 한 선배가 나에게 말해 주었다. "누워 있으면 죽고,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면 사는 거야." 아빠는 내 손을 잡고 걸을 때 가끔 말한다. "봄이 되면 더 잘 걸을 수 있을 거야." 나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다면 훗날의 나를 떠올린다. 나에겐 있고, 아빠에겐 없는 봄을. 이제니가 쓴 '있지도 않은 문장은 아름답고'는 어떤 문장일까? 있지도 않으니 알 수 없는 것일까? 있지 않으니 누구나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이 글에서 시 읽기의 본질을 말하고 싶지는 않다. 내가 상상하던 많은 문장이 있다. "아빠 사랑합니다." "아빠, 그때는 제가 죄송했어요." "아빠, 그때 지갑에서 만 원 꺼내 간 사람 저예요. 그리고 사실... 몇 번 더 그랬어요."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 그것은 있지도 않은 문장일 것이다. 또한 아빠의 걸음은 아직 쓰이지 않은 길 위에 생명의 문장을 똑박똑박 새기는 일일 것이다. '이보시오, 내가 아직 살아 있소'라는 문장일까? '이성길이가 아직 건재하오'라는 문장일까? 아빠는 움직이지 않는 왼팔을 찾으며 "우성아, 내 팔 어디 갔니?"라고 묻는다. 그러면 나는 아빠의 왼팔을 손으로 잡고 오른손 가까이 가져가며 "여기 있죠, 아빠"라고 말한다. 아빠의 삶, 아빠의 시간 안엔 무엇인가 부재해 있고, 그러나 그 부재는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며 내 생명을 끝장낼 수도 없다고 아빠는 적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삶의 역설이 여기에도 존재한다. 나는 아빠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아빠의 손을 잡고 아빠의 등을 굽고 아빠 옷을 입히고 아빠랑 같이 화장실에 간다. 아빠 밥을 차려 드리고 아빠가 흘린 것들을 행주로 닦

아 내고 약을 먹인다. "오늘은 복도 처음부터 끝까지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했어." 보고하듯 말하는 아빠에게 "와, 진짜 아빠?"라고 말하는 아들은 그저 이 모든 시간이 감사하고 복되다고 느낄 뿐이다. 나는 여기에 이 나날들을 문장으로 적고 있다. 아빠가 언젠가 내 옆을 떠나면 그때 아빠의 문장도 끝이 나고, 아빠는 있지도 않은 문장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니가 쓴 저 '있지도 않은 문장은 아름답고'를 깊이깊이 더 깊이 새길 수밖에 없다. 슬픔과 기대, 실망과 추억, 존재와 사랑 그리고 당연한 시간들이 모두 담겨 있어서. 있지도 않은 문장의 힘이라니! 이제니는 2008년 신춘문예로 데뷔했다. 내가 2009년에 데뷔했으니 1년 선배다. 이제니의 시를 좋아하는 독자가 많은 걸로 안다. 이제니의 시를 좋아하는 시인도 많다. 나랑 친한 시인은 모두 이제니의 시를 특별하게 생각한다. 문장은 시인을 구성하는 일부이며 전부일 텐데, 그러니 시인의 기쁨과 슬픔, 영광과 좌절도 모두 문장 안에 있을 것인데, 이제니는 아무도 쓰지 않은 문장을 쓰기 위해 시를 쓴다. 아무도 쓰지 않은 문장이라니. 그것이 있거나 한가. 그러니 '쓸 수 없는 문장'일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쓰고 있다. 있지 않은 문장을, 행위와 의지가 오롯이 '문장'이어서. 시인으로서 나는, 이제니의 문장에서 존경과 안도를 동시에 느낀다.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용기, 그러니 나도 한 번쯤 더 있지 않은 세계로 걸음을 옮겨 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안도. 아빠가 성한 오른발로 감각이 없는 왼발을 끌며 나아가는 걸 볼 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무엇인가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나의 생은 말하고 있다. "거리로 나서면 다시 돌는 앞서기 곁으로 노인의 마음이 스쳐 지나간다"라는 문장이 나는 슬프지 않다. 웅감한 아빠, 저 누추한 노인이 분명하게 걸어서 봄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아직은, 우리가 함께 맞게 될, 그러므로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봄이라는 문장을 향해. 추신. 이제니 시인이 제67회 현대문학상을 받았습니. 머지않아 저는 그 문학상을 수상하는 것으로 시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입니다. ☺





**〈북유럽 학교 노르웨이〉
〈북유럽 학교 핀란드〉**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매사 여유롭고 행복지 수가 높을까? 미술, 디자인, 건축을 넘나드는 예술가이자 북유럽 국가와 한국을 잇는 전시를 기획하는 큐레이터이기도 한 저자는 노르웨이와 핀란드에서 20여 년 거주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학교를 방문했다. 자연과 타인을 존중하면서도 개성과 생활력이 강한 그들의 바탕에 교육이 있었다. 한국 학교가 북유럽을 모델 삼아야 한다는 말이 종종 나오지만 갈 길이 아직 멀고 방향도 어지러운 지금, 저자가 현장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 준다. **안애경 지음 가가날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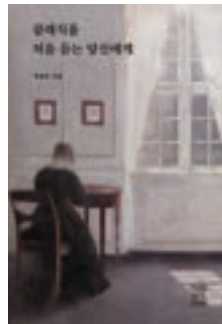
〈꼬리〉

저자는 27년간 2만 시간 이상 잠복·관찰해 시베리아호랑이를 영상에 담아 왔다. 그사이 호랑이는 호기심의 대상으로 우정과 연민의 대상으로 바뀐다. 혹독한 조건 속에서 스스로 생존을 도모해 나가는 강하고 아름다운 존재지만 인간의 시간이 소년, 청년, 노년기로 흐르듯 호랑이도 성장과 노쇠를 겪는다. 저자가 야생 호랑이 '꼬리'와 나는 생명과 우정의 기록이 경이롭게 펼쳐진다. **박수용 지음 김영사 펴냄**



〈마이 페이버릿 앨리스〉

1865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세상에 나온 이래 앨리스는 고유명사가 되었다. 그 매력적인 캐릭터와 모험담은 150여 년간 170여 개 언어로 번역되어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동서고금의 예술가 또한 자기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 왔다. 앨리스 '덕후' 부부가 1865년부터 2018년까지 앨리스 초판본 61종을 모아 소개한다. 토베 안손, 살바도르 달리, 앤서니 브라운 작업본도 있다. **광장하다. 앨리스실랑 지음 난다 펴냄**



〈클래식을 처음 듣는 당신에게〉

정말 좋아서 남에게 알려 주고 싶은 마음. 누구나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정신과 의사이자 예술 애호가인 저자는 어린 시절 클래식 음악에 빠져 그 깊은 세계를 탐구하다 클래식 음악 전용 공간 풍월당을 열고 저서도 여러 권 냈다. 이번 책은 클래식 음악 세계로 들어가려는데 시작이 막막한 이들을 위한 입문서다. 평생 동반자가 될 음악과의 첫 만남을 친절하고 유쾌하게 추천한다. **박종호 지음 풍월당 펴냄**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담는 경주

〈각인(刻印)-한국근현대목판화 100년〉

20세기 목판화의 도전과 성취를 아우르는 대형 기획전이다. 근대 출판 미술을 비롯해 1950년대 후반 시작된 판화 실험과 1980년대 민중 미술, 현대 작가의 작품까지 판화 예술의 흐름을 한눈에 살핀다. 1부에서는 20세기 초반에서 중반에 이르는 시기에 제작한 출판물 표지와 민영환 선생의 순국을 기리는 양기훈의 '혈죽도' 등을 전시한다. 2부는 김억, 정비파, 류연복 같은 종진·원로 작가가 천착한 판화 실험의 결실을 보여 준다. 특별한인 3부는 책 겉장에 상서로운 문양을 새긴 목판인 조선 시대 능화판을 만난다.

기간 2월 6일까지

문의 055-254-4600(창원 경남도립미술관)



〈포스트휴먼 앙상블〉

탈인간중심주의를 의미하는 '포스트휴먼'과 개체들이 모여 조화를 이룬다는 '앙상블'을 합친 전시 제목처럼 인간이 비인간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예술가가 고찰한 결과를 선보인다. 김제민의 그림 '곤질긴 잡초 생명력 기르기'의 잡초 외에도 곰팡이, 인공 지능 등 다양한 '비인간'에 초점을 맞추어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이라는 화두를 던진다. **기간 2월 27일까지 문의 1899-5566(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칸딘스키, 말레비치 & 러시아 아방가르드: 혁명의 예술〉

100년 전 러시아를 뒤흔든 혁명기 아방가르드 작가 49인의 회화 작품 75점이 한국을 찾는다. 카지미르 말레비치의 '절대주의' 등 러시아 정부가 문화재로 관리하는 국보급 회화들이다. 추상미술 선구자로 불리는 바실리 칸딘스키의 '즉흥' 시리즈 중 세 점도 소개한다. 단순하고도 대담한 색채의 조합이 인상적이다. **기간 4월 17일까지 문의 02-724-2260(서울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포스트 네이처-친애하는 자연에게〉

울산 최초의 공공 미술관 울산시립미술관이 문을 연다. 개관 특별전에는 과거 한국 산업 중심지에서 생태·정원 도시로 거듭난 울산의 정체성을 담았다. 미디어 아트 거장 히토 슈타이얼을 비롯해 영국과 독일 등 국제 전시에서 주목받은 정보, 왕홍카이, 백정기 등 세계적 명성을 지닌 작가 16명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하는 기회다. **기간 4월 10일까지 문의 052-211-3800(울산시립미술관)**



안티에이징의 새 이름, 프리주비네이션

노화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 알아봤다.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의학적 트렌드가 항노화에서 노화 예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화가 시작된 피부나 신체 등에 행하는 리주비네이션(재생·회춘술)이 그동안 대세였다면, 이제는 프리주비네이션(예방 목적 재생술)이 떠오르는 것. 이와 관련 줄기세포 안티에이징·항노화 치료 전문가 조찬호 청담셀의원 대표원장의 도움말로 프리주비네이션 치료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조찬호 원장은 "프리주비네이션은 일종의 노화 예방 주사로 여기면 이해하기 쉽다"라고 설명한다. 그는 "이전에는 얼굴의 주름, 두드러지는 피부 처짐, 떨어진 체력, 약해진 면역력 등이 눈에 보이고 나서야 의학적 처치에 나섰다"며, 최근에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 미리 케어하는 데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했다.

물론, 기존 안티에이징 치료가 효과가 없는 것은 전혀 아니다. 하지만 이미 드러난 노화 징후를 지우는 것보다 이 같은 노화 증상이 나타나기 전 건강하고 젊은 체력과 피부를 오래 유지하는 치료가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예방 목적 치료는 노화 징후가 나타나는 것을 최대한 미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 조 원장은 "선제적 안티에이징 치료는 나이에 얼굴이나 체력을 되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현재 젊고 건강한 컨디션과 외모를 오래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선제적 줄기세포 치료

프리주비네이션 치료를 반복할 경우 노화를 지속적으로 미룰 수 있다. 이는 피부 노화는 물론 노화로 인한 컨디션 저하에도 적용된다. 가령 체력이 고갈되고 신진대사가 떨어질 무렵, 전신 줄기세포 정맥 주사를 맞는 게 여기에 속한다. 실제로 프리주비네이션 치료에서 주목할 만한 게 줄기세포 치료다. 청담셀의원은 '줄기세포 헬스케어 디자인'을 표방하며 개인 상황에 맞는 치료를 처방한다. 노화 요인을 분석하고, 젊었을 때의 활력 넘치

는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돕는 게 목표다. 주력 치료로는 전신 줄기세포 정맥 주사인 청셀 프로그램이다. 성체 줄기세포를 채취해 배양하지 않고 링거로 주입하면 재생 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 단백질 항상성 유지로 인한 체력 증진, 항산화 효과, 미토콘드리아 기능 복구, 텔로미어 복구 등으로 체력을 오래 이어간다.


타깃 부위에 줄기세포를 집중 투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성기능을 건강하게 증진·유지하도록 돕는 성셀, 피부 탄력 유지 및 주름 예방을 돕는 미셀, 두피에 직접 줄기세포를 주입해 탈모를 예방하는 모셀, 약해지기 쉬운 인대를 견고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활셀 등이 그것이다. 상황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병행해 취약한 점을 미리 알고 노화에 대비한다. 조찬호 원장은 "선제적 안티에이징 치료는 노화를 영원히 막아 주는 마법은 아니다"라며 "다만 노화가 시작되는 시점을 미뤄, 노화 진행시기를 늦추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치의와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적기에 시술하며 스스로 생활습관을 잘 관리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최근에는 이런 트렌드에 따라 노화가 나타나기 전에 조치하는 20-30대도 적잖다. 이들은 대개 피부·탈모 등 외적 노화 예방에 관심이 많다. 현재보다 탄탄한 얼굴 라인을 위해 선제적 안티에이징 치료에 나서는 것. 요즘에는 '가성비 시술'보다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포미(ForME)족'이 증가하며 효용성이 높은 고가 치료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줄기세포를 활용한 미용 치료를 고려하는 젊은이가 증가했다. 조찬호 원장은 "미래 의학은 발병 뒤 치료하기보다 병을 막는 데 집중한다"라며 "건강한 몸과 외모를 오래 유지함으로써 활기찬 인생을 설계하는 게 건강과 경제적 면에서 모두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날〉

국립무용단이 임인년 새해를 맞아 전통 춤으로 구성된 명절 기획 공연 〈새날〉을 선보인다. 국립무용단의 기존 레퍼토리를 비롯해 손인영 예술감독과 단원들이 창작한 춤을 일곱 편의 소품으로 꾸민다. 한 해의 평안과 안녕을 비는 의식 무 '액막이'를 시작으로 전통악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목한 타악 군무 '태', 팽과리를 들고 추는 '진쇠춤', 한국인의 놀이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평채소고춤' 등이 신명난다. 힘찬 기운을 품고 관객과 호흡하는 전통무용 공연을 즐기며 새해를 색다르게 연다.

기간 1월 29일-2월 2일 장소 서울 국립극장 하늘극장 문의 02-2280-4114




〈2022 예술마루 신년음악회〉

한국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는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와 2019년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에서 만 15세 나이에 최연소 1위를 수상한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예술감독 겸 상임 지휘자 다비트 라일란트 지휘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박쥐〉 서곡,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 슈만의 교향곡 2번을 들려준다.

일시 1월 20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전남 여수 GS칼텍스 예술마루 문의 1544-7669



〈뷰티풀 라이프〉

2016년 초연 이래 서울 대학로 예매 평점 1위를 기록한 연극이 대전을 찾았다. 노인 시점부터 중년, 연애 시절까지 한 부부의 모습을 역순행적 구성으로 풀어낸다. 연애와 결혼 생활을 거쳐, 앞으로 홀로 남겨질 배우자를 위해 이후의 시간을 준비하는 부부의 이야기가 공감을 끌어낸다. 서울 JTN 아트홀에서도 같은 작품을 공연 중이다.

기간 1월 30일까지 장소 대전 이수아트홀 문의 1644-4325



〈장수탕 선녀님〉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 〈장수탕 선녀님〉을 뮤지컬로 감상한다. 엄마를 따라 오래된 동네 목욕탕 장수탕에 간 덕지가 냉탕에서 만난 이상한 할머니 선녀님과 교감하는 내용이다. 덕지가 선녀님과 벌이는 신나는 냉탕 놀이와 신비한 모험이 관객을 판타지 세상으로 이끈다. 아름다운 음악이 원작의 따뜻한 감성을 극대화한다.

기간 2월 27일까지 장소 서울숲 씨어터 문의 02-336-2528



춘천은 1년 내내 축제중!!

춘천에 **만**오세요 **축**이요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



춘천의 주말은 **막이득 닭이득**

나는 **무적의 막국수 파이터**


아차차! 괜찮아요~ **“두근두근 페스티벌”**

축제 최초!! **에브리데이 막&닭 리빙**

〈노웨어 스페셜〉

〈스틸 라이프〉로 베니스 국제영화제 4관왕의 영예를 안은 우베르토 파솔리니 감독의 신작이다. 죽음은 우리 일상 어느 곳이나 있다. 시한부 인생 선고 받은 창문 청소부 존과 세상을 향해 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네 살배기 아들 마이클이 삶과 이별에 대한 질문을 덩달아 주고받는다.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존은 넓은 세상에 혼자 남겨질 아들을 보살피며 좀 특별하고도 평범한 부모를 찾는 여정을 떠난다. 실화를 각색한 이야기가 마음을 적신다. 2021년 12월 29일 개봉.

감독 **우베르토 파솔리니**
출연 **제임스 노튼, 다니엘 라몬트**





〈어나더 라운드〉

따분한 일상을 보내던 교사 니콜라이, 마틴, 피터, 토미가 흥미로운 이론과 마주한다. '인간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퍼센트로 유지할 때 가장 이상적이다.' 일상 속에서 실험해 보기로 한 그들. 목표는 언제나 최소 0.05퍼센트 혈중 알코올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인생을 축제로 바꾸려는 도전이 유쾌하게 펼쳐진다. 1월 19일 개봉.

감독 **토마스 빈터베르그** 출연 **매즈 미켈슨, 토마스 보라센**



〈사막을 건너 호수를 지나〉

휴전국 대한민국 청년에게 평화는 무엇일까? 평화 퍼포먼스 그룹 레츠 피스와 대안학교 주말로드스쿨라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갖고 2018년 시베리아를 횡단했다. 철도가 남북을 연결해 기차로 유라시아 대륙을 넘나들길 바라는 희망을 담아 '서울역을 국제역으로' 캠페인을 기록한 다큐멘터리다. 레츠 피스(Let's Peace), 평화하자. 2021년 12월 30일 개봉.

감독 **박소현** 출연 **황지은, 박승규**



〈청춘적니〉

중국 웹 소설 〈10년을 함께한 여자친구가 내일 결혼한다〉를 원작으로 한 절절한 로맨스가 한국에 상륙한다. 열일곱 살 때부터 10년 동안 사랑을 쌓아 온 뤼친양과 링이아오는 결혼을 앞두고 현실의 냉혹한 벽에 부딪힌다. 사랑만으로는 헤쳐 나갈 수 없는 현실, 관계가 점점 위태로워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운명적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세상으로 뛰어든다. 1월 12일 개봉.

감독 **사모** 출연 **굴초소, 장정의**

호텔 라마다 속초
사랑하는 아이와 떠나는 겨울 바다 여행

올겨울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호텔 라마다 속초의 '키즈 스튜디오 더블룸'을 추천한다. 어린이를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키즈 스튜디오 더블룸은 키즈 텐트와 모닥불 모형, 키즈 베드로 꾸몄다. 아기자기한 인테리어 덕분에 가족 모두 편안하게 여행의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원더풀 키즈' 이벤트도 진행한다. 주중과 금요일, 토요일에 키즈 스튜디오 더블룸 예약 시 할인해 주는 이벤트이니 알뜰하게 겨울 바다 여행을 꾸려보자. 기간은 2월 28일까지.

☎ 1577-0130 🌐 www.ramadasc.co.kr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에서 만나는 '빨강머리 앤' 스토리

"주근깨 빼빼 마른 빨강머리 앤~" 웨스틴 조선 서울이 대원미디어와 협업해 따뜻한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담은 '디어 마이 앤' 패키지를 선보인다. 패키지 이용 고객 전원에게 '앤의 다이어리 세트'를 선물한다. 디럭스 스위트 드림 타입 투숙객에게는 앤의 빨간 머리가 연상되는 체크무늬 파자마를 증정하고, 주니어 스위트 투숙객에게 런치앤바에 준비된 '앤스 애프터눈 티'를 즐기도록 했다. 따뜻한 감성이 있는 겨울 호캉스가 되겠다. 기간은 2월 28일까지.

☎ 02-317-0404 🌐 www.josunhotel.com



롯데호텔 서울
Must be STRAWBERRY, 딸기와 함께

롯데호텔 서울이 매 주말 정오에 페닌슐라 앤 라운지에서 딸기 뷔페 '머스트 비 스트로베리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뷔페에서는 웰컴 푸드 3종과 동카롱, 티라미수, 케이크 등 딸기 디저트 22종을 내놓는다. 샌드위치, 샐러드를 포함한 식사메뉴 13종과 음료 두 잔도 준비했다. 여기에 포르투갈 잼 브랜드 '메이아두지아(Meia-Duzia)'의 물감잼과 초코 스프레드, 팔레트로 구성된 셀프 드로잉 키트도 추가로 제공해 색다른 디저트를 경험하기 좋다. 기간은 5월 8일까지.

☎ 02-317-7131 🌐 www.lottehotel.com/seoul-hotel

Puzzle



* 다 미미에서 타는 친구들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미미만 찾아봐주세요.



자료: 협조: 한빛에듀



〈찾아도 찾아도 끝판왕-1000개 숨은그림찾기: 우리 동네〉

다양한 생활 속 모습에서 숨은 그림을 찾는다. 공원, 백화점, 병원, 빵집, 기차역, 사무실, 공사 현장 등 우리가 사는 세상을 소재로 삼았다. 각 장소와 직업의 특성을 담은 물건이 직업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퍼즐을 풀고 나서 색칠 놀이도 할 수 있다. 귀여운 그림 덕에 즐거움이 배가된다.

자나 컬 지음 한빛에듀 펴냄



한빛에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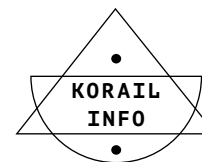


Information



© 오희재

제12회 철도사진공모전
금상 수상작 '설국열차'



- 138 한국철도 소식
- 144 시간표
- 154 편의시설 및 부가서비스
- 156 열차이용 안내
- 158 비상시 행동 매뉴얼





한국철도, '2050 탄소중립 비전선언' 1주년 캠페인 동참

지구를 위해 더 늦출 수 없다는 깨달음 아래 탄소중립이 우선 과제로 떠오른 시대, 한국철도가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선언' 1주년을 맞아 환경부가 주관한 '탄소중립 주간'(2021년 12월 6일~10일) 캠페인에 동참했다. 정부와 공공 기관이 '더 늦기 전에'를 슬로건으로 걸고 탄소 배출 줄이기 실천 활동을 홍보한 행사다.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12월 9일 KTX 객실 내에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를 직접 비치하고,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서울역 맞이방에서 고객에게 손 세정제와 홍보물을 나눠 주며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알렸다. 탄소중립 주간 동안 전국 각역사와 전철역 광고판에 탄소중립 홍보 문구를 내보내기도 했다. 한국철도는 "본사와 지역본부 등 전사적으로 자원과 에너지 절약을 통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라며 "저탄소·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의 이용률을 높이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1



교통 약자 이용 편의 개선 방안 마련

교통 약자가 움직이기 편한 세상이 모두가 이동하기 좋은 세상이다. 한국철도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 약자의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장애인 승하차 도우미 서비스, 교통 약자 우선 창구, 맞춤형 우대 예약 서비스, 청각장애인 수어 서비스 등이 그것이다. 이에 더해 최근 휠체어 없이 보조 기구만 사용하는 장애인 승객으로부터 휠체어석을 폐쇄적으로 운영한다는 지적을 받고 교통 약자 서비스 방향을 '선 불편 해소, 후 제도 보완'으로 잡아 이용객 입장에서 먼저 조치하기로 했다. 한국철도는 "교통 약자의 눈높이는 물론 사회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와 제도를 정비하고, 열차를 탈 때 누구도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 기관 최초, 준법경영시스템 국제 인증 획득

한국철도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 기관 최초로 준법경영시스템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 준법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 표준으로 위법 및 부패 요소 관리, 윤리 리스크 예방 등을 검증해 부여한다. 한국철도는 윤리 경영 체계 재확립, 3無(부패 행위, 갑질, 성비위) 근절 운동 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윤리 리스크 예방 활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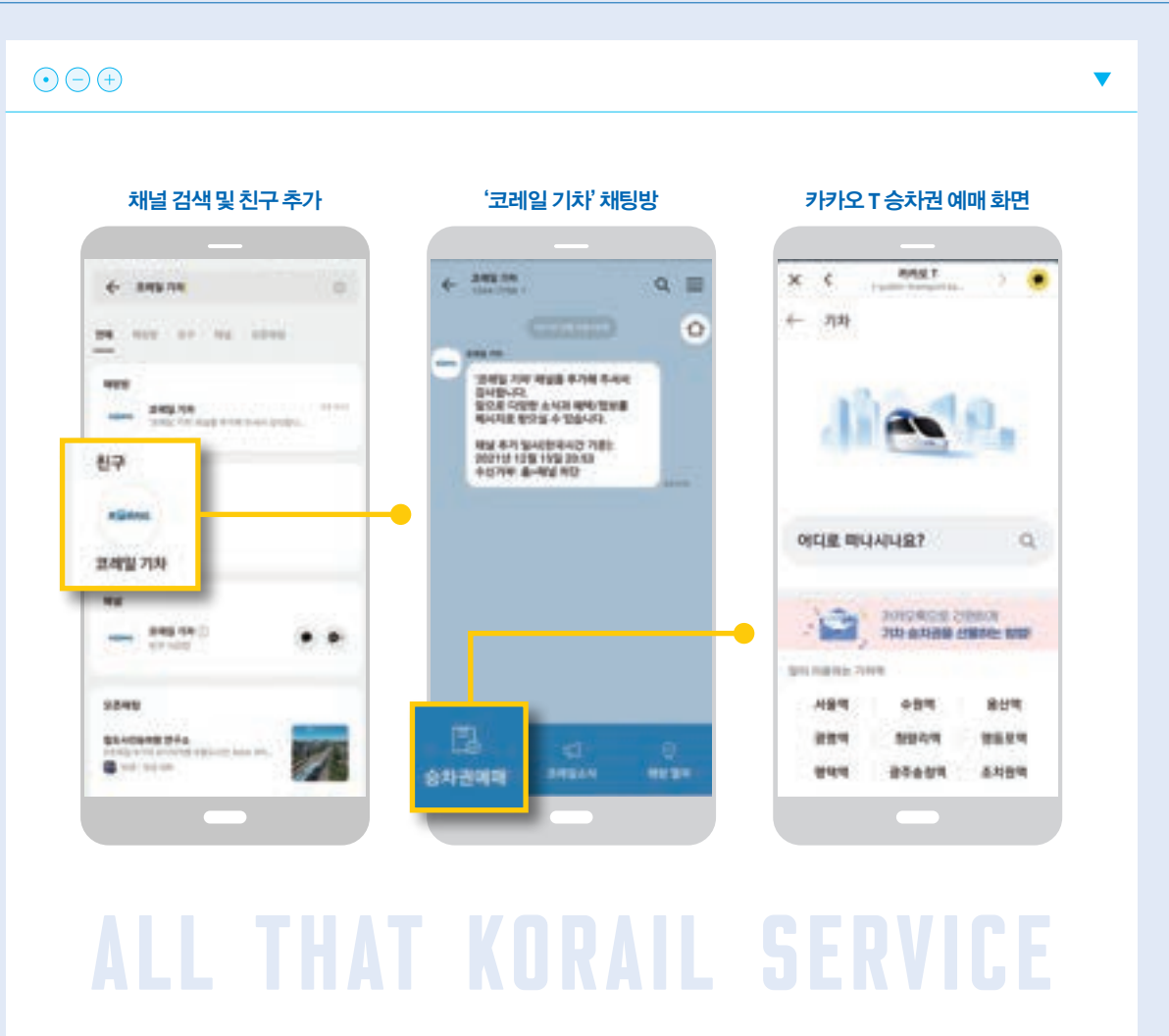
3



정부의 특별방역 대책과 연계해 최고 대응의 방역 강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한국철도가 방역을 강화했다. 확진자가 급증한 수도권 현장을 점검하고, 방역 물품 준비 상황과 전반적 대응 체계를 살폈다. 한국철도는 역과 열차를 매일 2회(KTX 4.5회) 이상 방역하며, 승차 고객 발열 측정기와 함께 승강장 입구에 손 소독기를 설치해 열차 탑승 전 사용하도록 강조해 왔다.

4



ALL THAT KORAIL SERVICE

“열차승차권, 카톡으로 예매하세요” 카카오톡 ‘코레일 기차’ 채널에서 승차권 예매 서비스 제공

승차권, 더욱 편리하게 예매하고 빠르게 이동하자. 한국철도가 지난해 12월부터 카카오톡으로 열차 승차권을 예매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코레일 기차’를 추가한 후 홈 화면이나 대화방에서 ‘승차권 예매’ 버튼을 선택하면 바로 예매된다. 앞서 한국철도는 약 100만 명이 이용하는 ‘코레일 알림톡’ 채널의 이름을 ‘코레일 기차’로 변경해 접근성을 높였으며, 지난해 2월부터는 ‘카카오톡’

앱에서 제공하는 승차권 예매 서비스가 카카오톡과 연동되도록 준비해 왔다. 예매한 승차권을 다시 볼 때는 카카오톡 ‘코레일 기차’ 대화방이나 ‘카카오톡 T’ 앱 이용 내역을 살펴보면 된다. 부정 승차 방지 차원에서 카카오톡과 카카오톡 T에서 승차권 동시 표출은 불가능하다. 한국철도는 철도 이용객이 보다 편리하게 승차권을 구매하도록 포털, SNS 등 민간 플랫폼과 협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소통을 위한

철도상생 플랫폼

철도상생플랫폼(win-win.Korail.com)

철도기술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중소기업 지원정보 제공 및 민원·제안을 처리하기 위한 한국철도 동반성장 포털



한국철도는 **협력과 상생**을 통해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실현합니다!

- 기술제안**
한국철도와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위해 중소기업이 과제를 제안하는 메뉴
- 기술현황**
개발된 과제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메뉴
- 안전용품**
한국철도에서 지정한 안전용품 현황 및 신규 갱신을 신청하는 메뉴
- 기금활용사업**
스마트공장 구축, 혁신파트너십, 창업·벤처 기업, 농어촌상생기금, 레일 + 상생자금 등
- 고객지원**
기업성장응답센터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민원·제안 등을 상시접수할 수 있는 메뉴



TRAVEL NEWS



석굴암

국보이자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석굴암은 신라인의 호국 정신이 깃든 요람이다. 360여 개의 넓적한 돌로 원형 주실 천장을 교묘하게 구축한 기법은 신라인의 빼어난 건축 기술을 방증한다. 1976년부터 유리 벽 밖에서만 관람이 가능하지만, 그 숭고함은 고스란히 전해진다.



불국사

토함산에 자리 잡은 불국사는 수학여행 성지로, 역사 여행지 가운데 선두 주자로 꼽힌다. 불이문에서 내부를 향해 걸으면 다리 네 개가 먼저 보인다. 청운교·백운교, 연화교·칠보교가 극락과 우리를 이어 주는 듯하다. 대웅전과 다보탑, 석가탑은 학창 시절 기억속 그대로 굳건히 자리한다.

찬란한 역사의 흔적을 찾는 여행, 경주



감은사지

외적에게서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문무왕과 그런 아버지의 뜻을 이은 신문왕의 이야기가 서린 곳이다. 현재는 삼층석탑 2기와 금당터, 강당 터가 남아 있다. 금당은 사라졌어도 13.4미터 높이의 삼층석탑이 옛 절의 당당함을 대변한다. 두 석탑을 바라보면서 문무왕의 애국정신을 되새긴다.



대릉원

높고 낮은 능선(陵線)의 향연에 탄성이 절로 나온다. 대릉원은 신라 초기의 무덤이 모인 곳이다. 내부에는 미추왕릉을 비롯해 천마총과 황남대총 등 23기의 능이 있다. 겨울에 눈이 쌓이면 더욱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풍경이 연출된다. 능과 능 사이를 따라 난 길이 유려해 사진을 찍기에도, 산책하기에도 제격이다.



떠나자! 경주 시티투어

한국철도 동대구역 여행센터가 '경주 시티투어' 상품을 판매한다. 편도 KTX 승차권과 시티투어 버스 이용권으로 구성된 상품은 신경주역에서 출발해 동해안 코스와 세계문화유산 코스를 운영한다. 천혜의 자연경관이 담긴 동해를 돌아보는 동해안 코스는 경주전통명주 전시관-감은사지-양남주상절리(파도소리길)-골굴사-괘릉-신경주역순서로 이동한다. 드넓게 펼쳐진 바다 풍경에 마음이 탁 트인다. 세계문화유산투어 코스는 무열왕릉-대릉원(천마총)-분황사-석굴암-불국사를 거쳐 신경주역에 도착한다. 경주 주요 유적을 한 번에 돌아볼 기회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에게도 단연 인기 있는 코스다. 두 코스 모두 투어 소요 시간은 7-8시간이다. KTX와 시티투어 버스를 따로 이용할 때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여행 날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편리하다.

경주 시티투어

시티투어 버스는 신경주역 1번 출구 방면 시티투어 버스 승강장에서 출발한다. 동해안 코스는 화·목·토·일요일, 세계문화유산투어 코스는 매일 운행한다. 예약 인원 15명 미만 시 투어가 취소되며, 취소 여부는 여행일 하루 전 오후 3시 이후 안내한다.

문의 053-940-2223(한국철도 동대구역 여행센터)



KTX/KTX-산천 경부선 하행 From Seoul to Bu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행신 幸信 Haengsin	서울 首爾 Seoul	광명 光明 Gwang myeong	천안아산 天安牙山 Cheonan Asan	오송 五松 Osong	대전 大田 Daejeon	김천(구미) 金泉(龜尾) Gimcheon (Gumi)	동대구 東大邱 Dong daegu	신경주 新慶州 Sin gyeongju	울산 蔚山 Ulsan	부산 釜山 Busan	비고 備考 Remark
1		05:15	05:32			06:14		06:57	07:15	07:28	07:49	
161		05:20	05:37			06:19		07:02	밀양 07:35	구포 08:01	08:14	월
3		05:30	05:47	06:09		06:34	06:58	07:23	07:41	07:54	08:15	
5		06:00	06:17	06:39		07:04		07:47		08:12	08:33	
81		06:05	06:22	06:44	06:57	07:14	07:38	08:02		08:27	08:48	금토일 KTX-산천
181		06:05	06:22	06:44	06:57	07:14	07:38	08:02		08:27	08:48	월화수목 KTX-산천
7	06:13	06:35	06:52			07:34	07:58	08:23	08:41	08:54	09:15	
9		07:00	07:17	07:39	07:52	08:09		08:52		09:17	09:38	
11	07:08	07:30	07:47		08:15	08:34	08:58	09:23			10:03	
13		07:52	08:09			08:49		09:32			10:12	
15		08:00	08:18			09:00	09:24	09:48	10:07	10:20	10:41	
121		08:14	영등포 08:24	수원 08:47		09:57		10:40			11:20	
17	08:30	09:00				09:52		10:35			11:15	
19		09:30	09:47		10:16	10:35	10:59	11:23	11:42	11:55	12:16	KTX-산천
101		09:45	10:02	10:25		10:50		11:33	밀양 12:06	구포 12:32	12:45	
21		10:00	10:17	10:39		11:04		11:47	12:06	12:19	12:40	
123		10:14	영등포 10:24	수원 10:48		11:59		12:42	13:00	13:13	13:34	
163		10:20		10:54	11:07	11:24		12:07	밀양 12:40	구포 13:06	13:19	금토일
23		10:30	10:47	11:09	11:22	11:39	12:03	12:27		12:52	13:13	
25		11:00	11:17	11:39		12:05		12:48	13:07	13:19	13:41	
171		11:33	영등포 11:43	수원 12:07		13:17	13:41	14:05			14:49	토일
27		12:00	12:17	12:39		13:05		13:48	14:07	14:19	14:41	
29		12:27	12:44	13:06		13:32		14:16		14:41	15:02	
31		13:00	13:17	13:39	13:52	14:09	14:33	15:01	15:19		15:47	KTX-산천
103		13:10	13:27	13:49		14:15	14:39	15:04	밀양 15:37	구포 16:03	16:16	
33		13:20	13:37	13:59	14:12	14:29		15:12		15:36	15:58	
83	13:30	13:52	14:09			14:51	15:15	15:39		16:04	16:25	금토일
183	13:30	13:52	14:09			14:51	15:15	15:39		16:04	16:25	월화수목
35		14:00		14:35	14:48	15:05		15:48	16:06		16:34	
85	13:55	14:17	14:34			15:14		15:58			16:38	금토일
185	13:55	14:17	14:34			15:14		15:58			16:38	월화수목 KTX-산천
37		14:21	14:38		15:06	15:25		16:08			16:49	
39		14:30	14:47	15:09		15:34		16:18	16:37	16:50	17:11	KTX-산천
87		14:44	15:01	15:23	15:36	15:53		16:36	16:54		17:22	금토일
41	14:38	15:00	15:17	15:39	15:52	16:09		16:53		17:18	17:39	
89		15:25		16:00		16:23		17:06			17:46	금토일 KTX-산천
43		15:40	15:57		16:25	16:44		17:27		17:52	18:13	
45		16:00	16:17			16:57	17:21	17:45	18:04		18:32	
125		16:04	영등포 16:17	수원 16:41		17:51		18:34		18:59	19:20	
47		16:30		17:04		17:29		18:12		18:37	18:58	
49		17:00	17:18		17:46	18:05	18:29	18:54		19:19	19:40	
105	16:48	17:15	17:32			18:15		18:58	밀양 19:36	구포 20:02	20:15	
51		17:25	17:42	18:05		18:30		19:13	19:31	19:44	20:05	
53		18:00		18:34		19:00	19:24	19:49		20:14	20:35	
55		18:15	18:32		19:00	19:19		20:02		20:27	20:48	
57	18:08	18:30		19:05	19:17	19:34		20:17	20:36	20:48	21:10	
107		18:43	19:00	19:22	19:35	19:52	20:16	20:40	밀양 21:13	구포 21:39	21:52	
127		18:55	영등포 19:08	수원 19:33		20:44		21:27	21:45		22:13	
59		19:00	19:17	19:39	19:52	20:09		20:52		21:17	21:38	
91		19:22	19:39			20:19		21:03		21:28	21:49	금토일
61		19:37			20:17	20:34	20:58	21:23		21:48	22:09	
165		19:46	20:03	20:25		20:49		21:32	밀양 22:05	구포 22:31	22:44	금토
173		19:50	영등포 20:00	수원 20:23		21:33		22:16	22:34		23:02	금토일
93		19:56	20:13	20:35		20:58		21:41	22:00		22:28	금토일
63	19:38	20:00	20:17	20:39	20:52	21:09		21:51		22:16	22:37	
95		20:15	20:32	20:55		21:18		22:01			22:41	금토일
65		20:30				21:22		22:05			22:45	
109		20:50	21:07	21:29		21:54		22:39	밀양 23:12	구포 23:38	23:51	
67		21:00	21:16	21:39		22:04	22:28	22:52		23:17	23:38	
69		21:30	21:47		22:16	22:35		23:18	23:36	23:49	00:10	
111		21:35	21:52	22:14	22:27	22:44		23:27	밀양 00:00	구포 00:26	00:39	
71		22:00	22:17	22:39		23:04		23:47		00:12	00:33	
73		22:30	22:47	23:09		23:34		00:17		00:42	01:03	
97		22:51	23:08			23:48		00:31			01:11	금토일
117		23:00	23:17	23:39	23:52	00:09	00:33	00:56				
119		23:30	23:47	00:09	00:22	00:37						

KTX/KTX-산천 경부선 상행 From Seoul to Busan

2022년 1월 기준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부산 釜山 Busan	울산 蔚山 Ulsan	신경주 新慶州 Sin gyeongju	동대구 東大邱 Dong daegu	김천(구미) 金泉(龜尾) Gimcheon (Gumi)	대전 大田 Daejeon	오송 五松 Osong	천안아산 天安牙山 Cheonan Asan	광명 光明 Gwang myeong	서울 首爾 Seoul	행신 幸信 Haengsin	비고 備考 Remark
116						05:55	06:12	06:25	06:51	07:07		
82	04:45	05:08	05:20	05:38		06:20		06:44	07:10	07:26		월
118						06:34	06:52	07:05	07:30	07:46		화수목금토
166	04:39	구포 04:53	밀양 05:19	05:52		06:34	06:52	07:05	07:30	07:46		월
2	05:10	05:33		05:58	06:21	06:45		07:09	07:35	07:51		
4	05:20		05:48	06:07		06:49	07:07		07:39	07:55		
6	05:40	06:03		06:28		07:10	07:27	07:40	08:06	08:22		
120				06:42	07:05	07:29	07:47	08:00	08:25	08:41		
8	06:10	06:33	06:45	07:03	07:26	07:51	08:08	08:21	08:47	09:03		
84	06:30	06:53	07:05	07:24		08:06	08:24			09:07		금토일
170	06:42		07:10	07:30		08:14		수원 09:25		영등포 09:47	09:56	토일
102	06:16	구포 06:30	밀양 06:56	경산 07:22	07:33	07:56	08:20	08:38	08:51	09:16	09:32	
10	07:00	07:23		07:48	08:11	08:35	08:53		09:25	09:41		
12	07:30	07:53	08:05	08:23		09:06		09:31	09:56	10:12		
86	07:50	08:13		08:38	09:01	09:25	09:43	09:56	10:22	10:38		금토일
14	08:10	08:33		08:58	09:21	09:46		10:10		10:46		
122	08:20	08:43		09:08		09:51		수원 11:01	영등포 11:23	11:32		
104	08:15	구포 08:29	밀양 08:55	09:28		10:10	10:28		11:01	11:17		
16	08:40	09:03	09:15	09:33		10:16	10:33		11:06	11:27	11:44	
18	08:50	09:13		09:38	10:01	10:26			11:10	11:26		
20	09:06	09:29		09:54		10:36	10:53	11:06	11:31	11:47		
22	09:36			10:17		10:58				11:51		
88	09:44	10:07		10:32		11:14			11:57	12:13		금토일
188	09:44	10:07		10:32		11:14			11:57	12:13		월화수목 KTX-산천
24	10:03			10:44		11:26		11:50	12:15	12:31		
26	10:20	10:43	10:55	11:13		11:55	12:13		12:46	13:02		
162	10:06	구포 10:20	밀양 10:46	11:22	11:45	12:10			12:53	13:09		금토일 KTX-산천
28	11:00	11:23		11:48	12:11	12:37	12:54		13:27	13:43		
30	12:00	12:23		12:49	13:12	13:37	13:55	14:08	14:33	14:49		
32	12:30	12:53	13:05	13:23		14:06	14:23		14:56	15:12		
34	13:10	13:33		13:58		14:40	14:57	15:10		15:46		
124	13:25			14:06		14:48		수원 15:58	영등포 16:20	16:29		
90	13:30			14:11		14:53	15:10	15:23	15:49	16:05		금토
106	13:29	구포 13:43	밀양 14:09	14:45		15:27	15:45	15:58	16:23	16:39		KTX-산천
36	14:00	14:23		14:48	15:11	15:36	15:53	16:07		16:48	17:05	
38	14:20		14:48	15:07		15:49	16:07			16:50		
40	14:30	14:53	15:05	15:24	15:47	16:12			16:55	17:23	17:43	
42	15:10			15:51		16:32				17:25		
92	15:20			16:01		16:43			17:26	17:42		금토일
172	15:25			16:06		16:48		수원 17:58	영등포 18:20	18:29		금토일
44	15:45	16:08		16:33		17:15		17:39	18:04	18:20		
108	15:35	구포 15:49	밀양 16:15	16:48		17:30						

KTX/KTX-산천 경전선 하행 From Seoul to Masan-Jinju

열차번호 列車番號	행신 幸信	서울 首爾	광명 光明	천안아산 天安牙山	오송 五松	대전 大田	김천(구미) 金泉(龜尾)	동대구 東大邱	밀양 密陽	진영 進永	창원중앙 昌原中央	창원 昌原	마산 馬山	진주 晉州	비고 備考
Train NO.	Haengsin	Seoul	Gwangmyeong	CheonanAsan	Osong	Daejeon	Gimcheon(Gumi)	Dongdaegu	Miryang	Jinyeong	Changwonjungang	Changwon	Masan	Jinju	Remark
201		05:05	05:22			06:04		06:50	07:23	07:41	07:53	08:02	08:09	08:33	KTX-산천
203		05:40	05:57	06:19	06:32	06:49		07:35 경산 07:46	08:13		08:39		08:51	09:15	KTX-산천
281		06:05	06:22	06:44	06:57	07:14	07:38	08:05	08:38	08:57		09:13	09:20	09:44	금토일 KTX-산천
205		08:25	08:42		09:10	09:29		10:12	10:45		11:11		11:23	11:47	
207		09:06	09:23	09:45		10:10	10:34	10:59	11:32	11:50		12:07	12:12		
285		09:30	09:47		10:16	10:35	10:59	11:26			12:22		12:34	12:58	금토일 KTX-산천
209		10:05	10:22	10:44		11:09	11:33	11:58	12:31		12:57		13:09	13:33	
211	12:28	12:50	13:07		13:36	13:55		14:38		15:26	15:37	15:46	15:51		
213		13:40		14:14		14:39		15:22	15:55		16:21		16:33	16:57	
287		14:30	14:47	15:09		15:34		16:21	16:54	17:12	17:24		17:34		금토일 KTX-산천
283		15:11	15:28		15:56	16:15		17:01	17:34		18:00	18:09	18:16	18:40	금토일 KTX-산천
215		16:20	16:37		17:05	17:24		18:10	18:43	19:02	19:14		19:24		KTX-산천
217		17:35	17:52		18:20	18:39	19:03	19:31				20:32	20:37		KTX-산천
219	17:36	18:05	18:22	18:45		19:10		19:53	20:26				21:02		
221		20:40	20:57	21:19	21:32	21:49		22:35		23:24	23:35	23:44	23:51	00:15	KTX-산천
223		22:10	22:27		23:09		23:33	23:57	00:30			01:02	01:07		KTX-산천

KTX/KTX-산천 동해선 하행 From Seoul to Pohang

열차번호 列車番號	행신 幸信	서울 首爾	광명 光明	천안아산 天安牙山	오송 五松	대전 大田	김천(구미) 金泉(龜尾)	동대구 東大邱	포항 浦項	비고 備考
Train NO.	Haengsin	Seoul	Gwangmyeong	Cheonan-Asan	Osong	Daejeon	Gimcheon(Gumi)	Dongdaegu	Pohang	Remark
297		05:05	05:22			06:04		06:47	07:22	금토일 KTX-산천
231		05:40	05:57	06:19	06:32	06:49		07:32	08:07	KTX-산천
233		06:45	07:02	07:25		07:50		08:33	09:08	
235	07:48	08:10	08:28	08:51	09:03	09:20		10:04	10:39	KTX-산천
237		09:25	09:42		10:10	10:29		11:13	11:48	월화수목 KTX-산천
291		09:25	09:42		10:10	10:29		11:13	11:48	금토일 KTX-산천
239	10:23	10:45	11:02	11:24	11:37	11:54		12:37	13:12	KTX-산천
243		12:41			13:22	13:39		14:22	14:57	
241		13:00	13:17	13:39	13:52	14:09	14:33	14:57	15:33	KTX-산천
245	14:13	14:35	14:52	15:14	15:39	15:59	16:03	16:28	17:03	
295		15:11	15:28		15:56	16:15		16:59	17:34	월화수목 KTX-산천
293		15:11	15:28		15:56	16:15		16:59	17:34	금토일 KTX-산천
247		16:20	16:37		17:05	17:24		18:07	18:43	KTX-산천
249		17:35	17:52		18:20	18:39	19:03	19:28	20:03	KTX-산천
251		20:40	20:57	21:19	21:32	21:49		22:32	23:07	KTX-산천
253		22:20	22:37		23:05	23:24		00:08	00:43	KTX-산천

KTX-이음 강릉선 하행 From Seoul to Gangneung-Donghae

열차번호 列車番號	서울 首爾	청량리 淸涼里	상봉 上鳳	양평 楊平	만종 萬鍾	횡성 橫城	둔내 屯內	평창 平昌	진부(오대산) 珍富(五臺山)	강릉 江陵	목호 墨湖	동해 東海	비고 備考
Train NO.	Seoul	Cheongnyangri	Sangbong	Yangpyeong	Manjong	Hoengseong	Dunnae	Pyeongchang	Jinbu(Odaesan)	Gangneung	Mukho	Donghae	Remark
801	05:11	05:32	05:38		06:23			06:45		07:08			
803	06:01	06:22		06:49	07:12		07:28	07:38	07:48	08:05			
841	07:01	07:22	07:28	07:51	08:14	08:22		08:38	08:47	정동진 09:14	09:35	09:42	
851		07:50	07:56		08:39			09:00	09:09	09:26			토일
805	08:01	08:22		08:48	09:11	09:20	09:29	09:40		10:01			
853		08:45	08:51		09:34	09:43	09:53		10:08	10:25			토일
807	09:01	09:22	09:29		서원주 10:09	10:21			10:40	10:57			
881		09:45		10:11	서원주 10:30			10:55		정동진 11:27	11:48	11:55	금토일
809	10:01	10:22		10:48	11:11		11:26	11:37		11:58			
843	11:01	11:22	11:28	11:50	서원주 12:10	12:21			12:41	정동진 13:10	13:31	13:38	
855		12:05		12:53						13:30			금토일
883		13:00	13:06		13:49		14:04			정동진 14:45	15:06	15:13	금토일
811	13:01	13:22	13:28		14:11	14:20		14:36	14:45	15:02			
813	13:31	13:52		14:18	14:41		14:56			15:23			
815	14:01	14:22		14:48	서원주 15:07	15:19		15:34		15:56			
857		15:10		15:37	16:00					16:37			금토일
845	15:01	15:22	15:28		16:11	16:20	16:30		16:45	정동진 17:12	17:33	17:40	
859		15:50			16:37					17:14			금토일
817	16:01	16:25		16:51	17:14	17:23		17:38	17:47	18:04			
861		18:13	18:19		서원주 18:58			19:26	19:43	19:43			금토일
819	18:01	18:22		18:48	19:11	19:19	19:29	19:39	19:47	20:04			
847	18:31	18:52	18:58		19:41	19:56	20:06			정동진 20:38	20:59	21:06	
821	19:01	19:22	19:28	19:51	20:14	20:23	20:34	20:44		21:06			
863		19:55		20:22	20:45				21:09				금토일
885		20:15			21:03			21:24		정동진 21:57	22:18	22:25	금토
823	20:01	20:22	20:28	20:51	21:13			21:38		21:55			
825	21:31	21:52	22:18	22:41	22:51	23:01	23:11			23:33			
827	22:11	22:32		23:18				23:43		00:00			

KTX/KTX-산천 경전선 상행 From Jinju-Masan to Seoul

2022년 1월 기준

열차번호 列車番號	진주 晉州	마산 馬山	창원 昌原	창원중앙 昌原中央	진영 進永	밀양 密陽	동대구 東大邱	김천(구미) 金泉(龜尾)	대전 大田	오송 五松	천안아산 天安牙山	광명 光明	서울 首爾	행신 幸信	비고 備考
Train NO.	Jinju	Masan	Changwon	Changwonjungang	Jinyeong	Miryang	Dongdaegu	Gimcheon(Gumi)	Daejeon	Osong	CheonanAsan	Gwangmyeong	Seoul	Haengsin	Remark
202		05:00	05:06	05:14	05:25	05:42	06:18		07:00			07:42	07:59		KTX-산천
204	06:16	06:41	06:47		07:03	07:20	07:57	08:20	08:44	09:02		09:34	09:50		KTX-산천
206	08:58	09:24		09:36	09:47	10:04	10:40		11:22			12:07	12:28	12:45	KTX-산천
208	10:06	10:32	10:38	10:46		11:11	11:45		12:28		12:53	13:18	13:34		KTX-산천
282	11:24	11:50		12:02		12:26	13:00	13:23	13:47		14:12	14:37	14:53		금토일 KTX-산천
210		12:40		12:52		13:16	13:51		14:33		14:57	15:22	15:38		
212	12:52	13:18	13:24	13:32	13:43		14:30	14:53	15:17	15:35		16:07	16:35	16:55	
214	14:34	15:00		15:12		15:36	16:10		16:52			17:35	17:51		
284	15:25	15:51		16:03		16:27	17:04	17:27	17:51	18:09		18:41	18:57		금토일 KTX-산천
216		16:50	16:56	17:04	17:15		18:02	18:25	18:49		19:13	19:39	19:55		
218	17:45	18:11		18:23		18:47	19:21	20:03	20:27			20:46	21:02		
286		18:21		18:33	18:43	19:00	19:37	20:00	20:24	20:42		21:14	21:30		금토일 KTX-산천
220		20:00	20:06		20:22	20:39	21:12	21:35	22:01	22:19		22:51	23:07		KTX-산천
288	20:05	20:31		20:43		21:07	21:41	22:04	22:28	22:46	22:59		23:35		금토일 KTX-산천
222		21:08		21:20			22:17		22:59		23:23	23:48	00:09	00:26	KTX-산천
224		21:43	21:49			22:19	22:52		23:34			00:18	00:34		

KTX/KTX-산천 동해선 상행 From Pohang to Seoul

열차번호 列車番號	포항 浦項	동대구 東大邱	김천(구미) 金泉(龜尾)	대전 大田	오송 五松	천안아산 天安牙山	광명 光明	서울 首爾	행신 幸信	비고 備考
Train NO.	Pohang	Dongdaegu	Gimcheon(Gumi)	Daejeon	Osong	Cheonan-Asan	Gwangmyeong	Seoul	Haengsin	Remark
232	05:37	06:18		07:00			07:42	07:59		KTX-산천
234	07:15	07:57	08:20	08:44	09:02		09:34	09:50		KTX-산천
236	09:59	10:40		11:22			12:07	12:28	12:45	KTX-산천
238	10:15	10:52		11:34	11:51	12:04	12:30	12:46		
298	10:41	11:22	11:45	12:10			12:53	13:09		금토일 KTX-산천
240	11:04	11:45		12:28		12:53	13:18	13:34		KTX-산천
242	12:37	13:14	13:37	14:02	14:19			15:03		월화수목 KTX-산천
292	12:37	13:14	13:37	14:02	14:19			15:03		금토일 KTX-산천
244	14:04	14:45		15:27	15:45	15:58	16:23	16:39		KTX-산천
246	15:37	16:14		16:56			17:39	17:55		
248	16:23	17:04	17:27	17:51	18:09		18:41	18:57		KTX-산천
250	18:00	18:37		19:19	19:36	19:49	20:15	20:31		
296	18:56	19:37								

KTX/KTX-산천 호남선 하행 From Yongsan to Gwangju-Mokpo

열차번호 列車番號	행신 幸信	서울 首爾	용산 龍山	광명 光明	천안아산 天安牙山	오송 五松	서대전 西大田	익산 益山	정읍 井邑	광주송정 光州松汀	나주 羅州	목포 木浦	비고 備考
Train NO.	Haengsin	Seoul	Yongsan	Gwangmyeong	Cheonan Asan	Osong	Seodaejeon	Iksan	Jeongeup	Gwangju songjeong	Naju	Mokpo	Remark
401			05:10	05:25		05:55		06:23	06:39	06:58		07:29	KTX-산천
403			05:50	06:05	06:28	06:40		07:08	07:24	07:43	07:55	08:21	KTX-산천
471			06:12	06:27	06:50	07:02	07:21 계룡 07:37	논산 07:55 08:18					KTX-산천
405	06:02	06:24	06:31	06:47		07:16 공주 07:33		07:51	08:07	08:26	08:36	09:01	
473		06:49	06:56	07:11	07:34	07:46	08:03						
491			07:40	07:55		공주 08:37		08:55		09:22			금토일
407	07:20	07:42	07:49	08:04		공주 08:46		09:04		09:39	09:49	10:14	KTX-산천
409			08:22		08:55	09:07		09:35	09:51	10:11	10:21	10:46	
411			09:22	09:37				10:30		10:57			
475			09:36	09:52	10:14	10:27	10:46 계룡 11:01	논산 11:19 11:45	김제 11:57 12:13	장성 12:31 12:45	12:57	13:23	KTX-산천
477			10:10	10:26	10:48	11:01	11:22 계룡 11:38	논산 11:56 12:21					KTX-산천
413		10:34	10:41	11:14	11:26			11:54	12:10	12:29	12:39	13:04	
415			12:20	12:35	12:58	공주 13:22		13:40		14:09	14:19	14:44	KTX-산천
417	12:18	12:40	12:47	13:13	13:27			13:55	14:11	14:30	14:40	15:01	KTX-산천
419	13:05		13:32	13:47	14:10			14:45	15:01	15:21	15:31	15:56	KTX-산천
421			14:50	15:05	15:28	15:40		16:08	16:24	16:44		17:15	
423			15:36	15:51	16:21	16:37		16:55	17:11	17:30	17:40	18:05	
425			16:10					17:13		17:40			
427		16:38	16:45	17:00	17:23	공주 17:47		18:05	18:21	18:40	18:50	19:15	KTX-산천
481			17:12	17:28			18:11 계룡 18:27	논산 18:45 19:10	김제 19:22 19:37	장성 19:56 20:10	20:22	20:48	
429		17:38	17:45			18:25 공주 18:41		18:59		19:28	19:38	20:03	KTX-산천
483			17:50		18:23		18:48						
431			18:35	18:50	19:13	공주 19:37		19:55	20:11	20:29			
433		19:36	19:43	19:58		20:28 공주 20:44		21:02	21:18	21:37	21:47	22:12	
435			20:35	20:51	21:13			21:54		22:29	22:39	23:04	KTX-산천
485			21:11	21:27	21:49		22:16 계룡 22:31	논산 22:49 23:13					KTX-산천
437			21:21	21:36		공주 22:18		22:36		23:03			
439	21:59		22:25	22:41	23:03	23:16		23:44	00:00	00:19	00:29	00:54	

KTX/KTX-산천 전라선 하행 From Yongsan to Yeosu-Expo

열차번호 列車番號	행신 幸信	서울 首爾	용산 龍山	광명 光明	천안아산 天安牙山	오송 五松	공주 公州	서대전 西大田	익산 益山	전주 全州	남원 南原	곡성 谷城	구례구 求禮口	순천 順天	여천 麗川	여수엑스포 麗水엑스포	비고 備考
Train NO.	Haengsin	Seoul	Yongsan	Gwangmyeong	Cheonan Asan	Osong	Gongju	Seodaejeon	Iksan	Jeonju	Namwon	Gokseong	Guryegu	Suncheon	Yeocheon	Yeosu-Expo	Remark
501			05:10	05:25		05:55		06:26	06:42	07:09				07:41	07:55	08:03	KTX-산천
503	06:43	07:05	07:12	07:27	07:50	08:02	08:19		08:37	08:54	09:21		09:39	09:55	10:09	10:17	
581			07:45	08:00				08:44 계룡 09:00	논산 09:18 09:42	09:59	10:26	10:36		11:00		11:19	
505			08:40	08:55		09:25	09:41		09:59	10:16	10:43	10:53	11:05	11:21	11:35	11:43	
507	09:26	09:48	09:55	10:11	10:34	10:46	11:03		11:23	11:40	12:07	12:17		12:41	12:55	13:03	KTX-산천
509			10:55	11:10	11:33	11:46	12:02		12:20	12:37	13:04		13:23	13:39	13:53	14:01	
587			12:15	12:30	12:53			13:19 계룡 13:34	논산 13:51 14:16	14:32							KTX-산천
511			12:20	12:35	12:58		13:22		13:43	14:00	14:27	14:37		15:01		15:20	KTX-산천
543	12:18	12:40	12:47			13:27		13:58	14:14	14:41				15:12	15:26	15:34	토일 KTX-산천
589			13:16	13:32	13:54			14:20 계룡 14:35	논산 14:53 15:18	15:34							금토일
513			14:12	14:28		14:57	15:14		15:31	15:48	16:15			16:47	17:01	17:09	
583			14:40	14:56	15:18	15:31		15:49 계룡 16:05	논산 16:23 16:51	17:07	17:34		17:53	18:08	18:22	18:30	KTX-산천
515		16:38	16:45	17:00	17:23		17:47		18:10	18:27	18:54	19:04	19:15	19:31	19:45	19:53	KTX-산천
517		17:38	17:45			18:25	18:41		19:02	19:18	19:45			20:17	20:31	20:39	KTX-산천
519	18:23		18:50	19:05	19:28		19:52		20:10	20:26	20:53		21:12	21:28	21:42	21:50	KTX-산천
521			20:05	20:21	20:43			21:19	21:35	22:02	22:12			22:36	22:50	22:58	
541			20:35	20:51	21:13	21:26		21:57	22:13	22:40			23:12	23:26	23:34		금토일 KTX-산천
523			21:50	22:05				22:57	23:14	23:41				00:12	00:26	00:34	KTX-산천

KTX-이음 중앙선 하행 From Cheongyangni to Andong

열차번호 列車番號	청량리 淸涼里	양평 楊平	서원주 西原州	원주 原州	제천 堤川	단양 丹陽	흥기 興基	영주 榮州	안동 安東	비고 備考
Train NO.	Cheongyangni	Yangpyeong	Seowonju	Wonju	Jecheon	Danyang	Punggi	Yeongju	Andong	Remark
701	06:00	06:26		06:49	07:06	07:21		07:42	08:02	
781	08:10			08:57	09:14	09:29		09:54		토일
703	09:00			09:47	10:04	10:18	10:32	10:43	11:03	
705	11:00	11:26	11:45		11:52	12:09		12:42	13:02	
707	14:00			14:47	15:05	15:19	15:33	15:44	16:04	
709	16:00		16:43	16:50	17:07	17:22		17:44	18:04	
711	19:00			19:48	20:05	20:19	20:33	20:44	21:04	
713	22:00	22:27		22:50	23:07			23:40	00:00	

KTX/KTX-산천 호남선 상행 From Gwangju-Mokpo to Yongsan

2022년 1월 기준

열차번호 列車番號	목포 木浦	나주 羅州	광주송정 光州松汀	정읍 井邑	익산 益山	서대전 西大田	오송 五松	천안아산 天安牙山	광명 光明	용산 龍山	서울 首爾	행신 幸信	비고 備考
Train NO.	Mokpo	Naju	Gwangju songjeong	Jeongeup	Iksan	Seodaejeon	Osong	Cheonan Asan	Gwangmyeong	Yongsan	Seoul	Haengsin	Remark
402			05:41	05:59	06:16		06:45	06:59	07:25	07:39			
404	05:25	05:52	06:02	06:21	06:40		공주 06:58 07:17		07:51	08:07	08:24	08:41	KTX-산천
474					06:25 논산 06:50	계룡 07:08 07:24		07:49	08:15	08:33		08:55	KTX-산천
472	05:33	06:00	06:10 장성 06:25	06:43 김제 06:58	07:12 논산 07:36	계룡 07:54 08:10	08:29	08:42	09:08	09:24	09:29		
406	07:07	07:34	07:44	08:03	08:20		공주 08:38 08:56		09:30	09:44			
408	08:20	08:47	08:57	09:16	09:35		10:04	10:18	10:44	11:03		11:25	KTX-산천
476					09:05 논산 09:30	계룡 09:48 10:04	10:23			11:05			KTX-산천
410	09:15	09:42	09:52		10:24				11:20	11:34			KTX-산천
412	10:03		10:37		11:06				12:02	12:21	12:26		
492			11:10		11:39		12:07		12:41	12:55			금토일
414			11:25	11:43	12:00		공주 12:18	12:44	13:23	13:28			
416	11:05	11:32	11:42		12:14		12:43	12:57	13:23	13:37			KTX-산천
478					13:10 논산 13:35	계룡 13:53 14:09	14:29		15:03	15:17			KTX-산천
418	12:55	13:22	13:32	13:51	14:08		14:36		15:10	15:28	15:33		
420	13:53	14:20	14:30	14:49	15:06		공주 15:24 15:42		16:16	16:30			
422	14:29	14:56	15:07	15:25	15:45		공주 16:03		16:48	17:09	17:14		KTX-산천
424	15:57	16:24	16:34	16:53	17:13		공주 17:31	17:56	18:40	19:02			KTX-산천
426	17:03	17:30	17:40	17:59	18:18			18:54	19:20	19:34			KTX-산천
428			18:23		18:52			19:20	19:54	20:10	20:15		
484						19:29	19:48	20:01	20:27	20:41			KTX-산천
482	16:31		17:04 장성 17:18	17:36 김제 17:52	18:08 논산 18:33	계룡 18:51 19:07	19:26	19:59	20:15	20:25	20:42		KTX-산천
430	18:02	18:29	18:39	18:58	19:15		공주 19:33 19:51	20:05	20:31	20:45			
432	18:52	19:19	19:29	19:48	20:05				21:01	21:15			
486						20:39	20:58	21:11	21:37	21:51			
434	19:52	20:19	20:29	20:48	21:08		공주 21:26 21:44		22:18	22:34	22:44	23:01	KTX-산천
436			21:00		21:29		공주 21:47	22:12	22:38	22:52			
438	20:55		21:28	21:47	22:06		22:35	22:49	23:33	23:33		23:55	KTX-산천
440	21:57	22:24	22:34		23:03				23:59	00:13			

KTX/KTX-산천 전라선 상행 From Yeosu-Expo to Yong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여수엑스포 麗水엑스포	여천 麗川	순천 順天	구례구 求禮口	곡성 谷城	남원 南原	전주 全州	익산 益山	서대전 西大田	공주 公州	오송 五松	천안아산 天安牙山	광명 光明	용산 龍山	서울 首爾	행신 幸信	비고 備考
Train NO.	Yeosu-Expo	Yeocheon	Suncheon	Guryegu	Gokseong	Namwon	Jeonju	Iksan									

KTX-이음 중부내륙선 하행 From Bubal to Chungju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부발 夫鉢 Bubal	가남 加南 Ganam	감곡장호원 甘谷長湖院 Ganggok-Janghowon	양성온천 仰城溫泉 Angseongcheon	충주 忠州 Chungju	비고 備考 Remark
731	07:52	08:00	08:08	08:17	08:27	
733	12:39	12:47	12:55	13:04	13:14	
735	15:35	15:43	15:51	16:00	16:10	
737	19:30	19:38	19:46	19:55	20:05	

KTX-이음 중부내륙선 상행 From Chungju to Bubal

2022년 1월 기준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충주 忠州 Chungju	양성온천 仰城溫泉 Angseongcheon	감곡장호원 甘谷長湖院 Ganggok-Janghowon	가남 加南 Ganam	부발 夫鉢 Bubal	비고 備考 Remark
732	06:41	06:52	07:01	07:09	07:16	
734	11:02	11:13	11:22	11:30	11:37	
736	13:52	14:03	14:12	14:20	14:27	
738	18:30	18:41	18:50	18:58	19:05	

ITX-청춘 경춘선 평일 하행 From Yongsan to Chuncheon

※ 백양리역은 2022년 2월 13일까지 임시 정차합니다.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용산 龍山 Yongsan	옥수 玉水 Oksu	왕십리 往十里 Wang simni	청량리 淸涼里 Cheong nyangni	상봉 上鳳 Sang bong	퇴계원 退溪院 Toegye won	사릉 思陵 Sa reung	평내호평 坪內好坪 Pyeongnae hopyeong	마석 磨石 Maseok	청평 淸平 Cheong pyeong	가평 加平 Ga pyeong	백양리 白楊里 Baeg yang-ri	강촌 江村 Gang chon	남춘천 南春川 Nam chuncheon	춘천 春川 Chun cheon	비고 備考 Remark
2001	06:00			06:17				06:39			06:57			07:12	07:15	
2003	06:56		07:10	07:15				07:36	07:42		07:55			08:10	08:13	
2005	07:52		08:06	08:11				08:33	08:38		08:52	08:57		09:06	09:10	
2007	08:51	09:02	09:06	09:11				09:33			09:51	09:57		10:06	10:09	
2009	09:57			10:14					10:38		10:53			11:07	11:10	
2011	10:58	11:09		11:17							11:57	12:02		12:11	12:14	
2013	12:00	12:10		12:18							12:58	13:03		13:12	13:15	
2015	12:53			13:09				13:31		13:44	13:52		14:01	14:09	14:12	
2017	14:00			14:17				14:38			14:56			15:11	15:14	
2019	15:20			15:36				15:58			16:16			16:30	16:33	
2021	16:00			16:16				16:38		16:51	16:59		17:08	17:16	17:19	
2023	17:00			17:17				17:39			17:57	18:02		18:12	18:15	
2025	17:46		18:00	18:05	18:13	18:22	18:26	18:32	18:37		18:52	18:57		19:06	19:09	
2027	18:56		19:10	19:15	19:23	19:32	19:36	19:42	19:47		20:02			20:17	20:20	
2029	19:58		20:12	20:17	20:25	20:34	20:38	20:44	20:49		21:04			21:19	21:22	
2031	20:32			20:49				21:10	21:16	21:26	21:34		21:43	21:51	21:54	
2033	21:21			21:38				21:59			22:17			22:32	22:35	
2035	22:48			23:05				23:26			23:44			23:59	00:02	

ITX-청춘 경춘선 평일 상행 From Chuncheon to Yong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춘천 春川 Chun cheon	남춘천 南春川 Nam chuncheon	강촌 江村 Gang chon	백양리 白楊里 Baeg yang-ri	가평 加平 Ga pyeong	청평 淸平 Cheong pyeong	마석 磨石 Maseok	평내호평 坪內好坪 Pyeongnae hopyeong	사릉 思陵 Sareung	퇴계원 退溪院 Toegye won	상봉 上鳳 Sang bong	청량리 淸涼里 Cheong nyangni	왕십리 往十里 Wang simni	옥수 玉水 Oksu	용산 龍山 Yongsan	비고 備考 Remark
2002	06:08	06:12			06:27		06:41	06:47	06:53	06:57	07:06	07:14	07:19		07:33	
2004	06:54	06:58			07:13		07:27	07:33	07:39	07:43	07:52	08:01	08:06		08:20	
2006	07:22	07:26	07:35		07:44	07:52	08:02	08:07				08:29			08:47	
2008	08:12	08:16			08:30		08:45	08:51	08:57	09:01	09:10	09:19	09:24		09:37	
2010	09:21	09:25			09:40			09:58				10:20			10:37	
2012	10:23	10:27			10:42			11:00				11:22			11:39	
2014	11:14	11:18			11:33			11:51				12:13			12:31	
2016	12:10	12:14			12:29			12:47				13:10			13:25	
2018	13:15	13:19			13:34			13:52				14:14			14:29	
2020	14:06	14:10	14:19		14:28	14:36		14:49				15:11			15:27	
2022	15:29	15:33		15:43	15:48			16:06				16:28		16:36	16:46	
2024	16:12	16:16			16:31			16:49				17:12		17:20	17:30	
2026	17:01	17:05			17:20		17:34					17:59	18:03		18:17	
2028	18:14	18:18			18:33		18:47	18:52				19:14	19:19	19:24	19:33	
2030	18:53	18:57		19:07	19:12		19:26	19:32				19:54	19:59		20:13	
2032	19:39	19:43	19:52		20:01	20:09		20:22				20:45			21:01	
2034	21:12	21:16	21:25		21:34	21:42		21:55				22:17			22:33	
2036	22:14	22:18			22:33			22:51				23:13			23:28	

ITX-청춘 경춘선 주말·공휴일 하행 From Yongsan to Chuncheo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용산 龍山 Yongsan	옥수 玉水 Oksu	왕십리 往十里 Wang simni	청량리 淸涼里 Cheong nyangni	평내호평 坪內好坪 Pyeongnae hopyeong	청평 淸平 Cheong pyeong	가평 加平 Gapyeong	백양리 白楊里 Baeg yang-ri	강촌 江村 Gangchon	남춘천 南春川 Nam chuncheon	춘천 春川 Chun cheon	비고 備考 Remark
2051	06:15			06:32	06:53		07:12	07:17 공휴일	07:21	07:29	07:32	
2053	06:55		07:09	07:13	07:34	07:47	07:55	08:01 토,공휴일		08:10	08:13	
2055	07:55		08:08	08:13	08:34		08:52		09:01	09:10	09:13	
2057	08:20			08:38	08:59	09:12	09:20	09:26 토,공휴일		09:35	09:38	
2059	08:45	08:55	09:00	09:05	09:26		09:44		09:53	10:02	10:05	
2061	09:18			09:36	09:57	10:11	10:19	10:24 토,공휴일		10:34	10:37	
2063	09:49			10:06			10:43			10:58	11:01	
2065	10:26			10:43	11:04		11:23	11:28 토	11:32	11:41	11:44	
2067	10:59	11:09	11:13	11:17		11:50	11:58	12:03 토,공휴일		12:12	12:15	
2069	11:30			11:47	12:08		12:26		12:35	12:43	12:46	
2071	11:57	12:07	12:12	12:17		12:50	12:58	13:04 토,공휴일		13:13	13:16	
2073	12:58		13:11	13:15	13:37	13:51	13:59	14:04 토,공휴일		14:13	14:16	
2075	14:15			14:33	14:54	15:07	15:15	15:21 토		15:30	15:33	
2077	14:47			15:04			15:41		15:50	15:59	16:02	
2079	15:14			15:32	15:54	16:08	16:16	16:21 토		16:31	16:34	
2081	15:47			16:04	16:25		16:43		16:53	17:02	17:05	
2083	16:18			16:35		17:08	17:16	17:21 토,공휴일		17:31	17:34	
2085	16:56			17:14	17:35		17:54		18:04	18:13	18:16	
2087	17:30			17:47	18:08	18:21	18:29	18:35 토		18:44	18:47	
2089	17:59			18:15	18:37		18:55	19:00 토	19:04	19:12	19:15	
2091	19:00			19:17	19:38		19:56	20:01 토	20:05	20:14	20:17	
2093	19:30			19:48	20:09	20:22	20:31	20:37 토		20:46	20:49	
2095	20:00			20:18	20:40		20:58			21:16	21:19	
2097	20:35			20:51		21:24	21:32			21:46	21:49	
2099	21:20			21:36	21:58		22:16		22:25	22:33	22:36	
2101	22:05			22:21	22:43		23:01			23:15	23:18	

ITX-청춘 경춘선 주말·공휴일 상행 From Chuncheon to Yong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춘천 春川 Chuncheon	남춘천 南春川 Nam chuncheon	강촌 江村 Gangchon	백양리 白楊里 Baeg yang-ri	가평 加平 Gapyeong	청평 淸平 Cheong pyeong	평내호평 坪內好坪 Pyeongnae hopyeong	청량리 淸涼里 Cheong nyangni	왕십리 往十里 Wang simni	옥수 玉水 Oksu	용산 龍山 Yongsan	비고 備考 Remark
2052	06:06	06:10	06:19		06:28		06:46	07:09			07:25	
2054	07:07	07:11			07:26	07:34	07:47	08:10			08:26	
2056	08:12	08:16			08:31	08:39	08:52	09:15			09:31	
2058	08:47	08:51	09:00		09:09		09:27	09:50			10:07	
2060	09:32	09:36			09:51	09:59		10:34			10:49	
2062	09:52	09:56	10:05		10:14	10:59	10:32	10:55			11:11	
2064	10:22	10:26			10:41	10:49		11:23			11:39	
2066	11:25	11:29		11:38 토	11:44	11:52		12:25			12:43	
2068	12:28	12:31			12:46	12:54	13:07	13:30			13:46	
2070	13:11	13:15	13:24		13:33		13:51	14:14				

ITX-새마을 경부선 하행 From Seoul to Bu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서울 Seoul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수원 水原 Suwon	평택 平澤 Pyeongtaek	천안 天安 Cheonan	조치원 鳥致院 Jochiwon	대전 大田 Daejeon	영동 永同 Yeongdong	김천 金泉 Gimcheon	구미 龜尾 Gumi	대구 大邱 Daegu	동대구 東大邱 Dongdaegu	청도 淸道 Cheongdo	밀양 密陽 Miryang	구포 龜浦 Gupo	부산 釜山 Busan	비고 備考
1001	06:16	06:25	06:46		07:15		07:57	08:25	08:51	09:07	09:36	09:42	10:03	10:16 물금 10:34	10:43	10:55	
1021	07:04	07:13	07:34	07:53	08:06	08:27	08:51		09:42	09:58	10:27	10:33	경산 10:42	11:07	11:31 부전 11:48	신해운대 12:01	
1003	09:15	09:24	09:45		10:14	10:35	10:59	11:27	11:53	12:09	12:38	12:45	13:06	13:19	13:44	13:56	
1005	11:04	11:13	11:34	11:53	12:06		12:48		13:39	13:55	14:24	14:30	경산 14:39	15:04 물금 15:22	15:31	15:43	
1007	11:43	11:52	12:13	12:32	12:45	13:06	13:30	13:58	14:24	14:40 왜관 14:53	15:12	15:18		15:49 물금 16:07	16:17	16:29	
1023	12:53	13:02	13:23		13:52		14:34		15:25	15:41	16:10	16:16		16:48	17:12 부전 17:27	신해운대 17:40	토일
1009	13:55	14:04	14:25	14:44	14:57		15:39	16:07	16:33	16:49	17:18	17:24	17:45	17:58	18:23	18:35	
1011	15:55	16:04	16:25		16:54		17:36		18:27	18:43	19:12	19:18			20:12	20:24	
1013	20:25	20:34	20:55		21:24		22:06		22:57	23:13	23:42	23:48		00:20	00:45	00:57	

ITX-새마을 경부선 상행 From Busan to Seoul

2022년 1월 기준

열차번호 列車番號	부산 釜山 Busan	구포 龜浦 Gupo	밀양 密陽 Miryang	청도 淸道 Cheongdo	동대구 東大邱 Dongdaegu	대구 大邱 Daegu	구미 龜尾 Gumi	김천 金泉 Gimcheon	영동 永同 Yeongdong	대전 大田 Daejeon	조치원 鳥致院 Jochiwon	천안 天安 Cheonan	평택 平澤 Pyeongtaek	수원 水原 Suwon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서울 首爾 Seoul	비고 備考
1002	06:27	06:40	07:04	07:17	07:40	07:46	08:15	08:30		09:23	09:46	10:07		10:36	10:56	11:05	
1004	09:12	09:25	09:49	경산 10:14	10:25	10:31	11:00	11:15	11:42	12:10		12:51		13:20	13:41	13:49	
1006	11:34	11:47	물금 11:56 12:14		12:47	12:53	13:22	13:37		14:30		15:11	15:23	15:43	16:04	16:12	
1008	13:23	13:36	물금 13:45 14:03	경산 14:28	14:39	14:45	15:14	15:29	15:56	16:24		17:05	17:17	17:37	17:58	18:06	
1024	신해운대 13:51	부전 14:04 14:19	14:43		15:16	15:22	15:51	16:06	16:59	17:40		17:40		18:09	18:30	18:38	토일
1010	15:08	15:21	물금 15:30 15:48		16:21	16:27 왜관 16:45	16:59	17:14	17:41	18:09	18:32	18:53		19:22	19:43	19:51	
1012	17:16	17:29		18:03	18:26	18:32	19:01	19:16		20:09		20:50		21:19	21:40	21:48	
1022	신해운대 17:26	부전 17:39 17:54	18:18	경산 18:43	18:54	19:00	19:29	19:44	20:11	20:39	21:02	21:23	21:35	21:55	22:16	22:24	
1014	19:25	19:38	20:02		20:35	20:41	21:10	21:25		22:18	22:41	23:02		23:31	23:52		

ITX-새마을 호남선 하행 From Yongsan to Gwangju-Mokpo

열차번호 列車番號	용산 龍山 Yongsan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수원 水原 Suwon	천안 天安 Cheonan	조치원 鳥致院 Jochiwon	서대전 西大田 Seodaeseon	계룡 鷄龍 Gyeryong	논산 論山 Nonsan	익산 益山 Iksan	김제 金堤 Gimje	정읍 井邑 Jeongeup	장성 長城 Jangseong	광주송정 光州松汀 Gwangjusongjeong	나주 羅州 Naju	목포 木浦 Mokpo	비고 備考
1071	08:32	08:39	09:01	평택 09:20 09:33	09:53	10:20	10:36	10:54	11:20	11:32	11:47	12:05	광주 12:29			
1061	10:50	10:57	11:19	평택 11:38 11:51	12:11	12:38	12:54	13:12	13:38	13:51 신태인 13:59	14:08	14:26	14:40	14:50 합평 15:01	일로 15:14 15:23	
1073	13:27	13:34	13:56	평택 14:15 14:28	14:48	15:16	15:32	15:50 강경 15:59	16:19	16:32	16:46	17:04	광주 17:28			
1075	15:22	15:29	15:51	16:20		17:05	17:20	17:39 강경 17:48	18:07	18:20 신태인 18:28	18:37	18:55	광주 19:19			
1063	19:13	19:20	19:42	평택 20:01 20:14	20:34	21:01		21:32	21:58	22:11 신태인 22:19	22:28	22:46	23:00	23:10 합평 23:21	23:40	
1077	20:10	20:17	20:39	평택 20:58 21:11	21:31	21:58	22:14	22:32 강경 22:41	23:01	23:14	23:28	23:46	광주 00:10			

ITX-새마을 호남선 상행 From Gwangju-Mokpo to Yong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목포 木浦 Mokpo	합평 咸平 Hampyeong	광주송정 光州松汀 Gwangjusongjeong	장성 長城 Jangseong	정읍 井邑 Jeongeup	김제 金堤 Gimje	익산 益山 Iksan	논산 論山 Nonsan	계룡 鷄龍 Gyeryong	서대전 西大田 Seodaeseon	조치원 鳥致院 Jochiwon	천안 天安 Cheonan	수원 水原 Suwon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용산 龍山 Yongsan	비고 備考
1072			광주 06:30	06:54	07:11	07:26	07:40	08:06	08:24	08:40	09:05	09:26 평택 09:38	09:58	10:18	10:25	
1074			광주 08:50	09:14	09:31	09:46	10:00	10:26	10:44	11:00		11:43	12:12	12:32	12:39	
1062	10:42 일로 10:52	11:04 나주 11:14	11:26	11:41	11:58	12:12	12:26	강경 12:46 12:55	13:26	13:26		14:09	14:39	14:59	15:06	
1076			광주 13:50	14:14	14:31	신태인 14:40 14:49	15:03	15:29		16:00	16:25	16:46 평택 16:58	17:18	17:38	17:45	
1064	17:42 일로 17:51	18:03 나주 18:13	18:25	18:40	18:57	신태인 19:06 19:14	19:28	강경 19:47 19:57	20:15	20:31		21:14 평택 21:26	21:46	22:06	22:13	
1078			광주 18:48	19:12	19:29	신태인 19:38 19:47	20:01	강경 20:20 20:30	20:48	21:04	21:29	21:50 평택 22:02	22:22	22:42	22:49	

ITX-새마을 전라선 하행 From Yongsan to Yeosu-Expo

열차번호 列車番號	용산 龍山 Yongsan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수원 水原 Suwon	평택 平澤 Pyeongtaek	천안 天安 Cheonan	서대전 西大田 Seodaeseon	계룡 鷄龍 Gyeryong	논산 論山 Nonsan	강경 江景 Ganggyeong	익산 益山 Iksan	전주 全州 Jeonju	남원 南原 Namwon	곡성 谷城 Gokseong	구례구 求禮口 Guryegu	순천 順天 Suncheon	여천 麗川 Yeocheon	여수엑스포 麗水엑스포 Yeosu-Expo	비고 備考
1081	08:47	08:54	09:16	09:35	09:48 조치원 10:08	10:35	10:51	11:10		11:36	11:52	12:19	12:29	12:41	12:58	13:13	13:21	
1083	16:39	16:46	17:08	17:27	17:40	18:24	18:40	18:58	19:07	19:27	19:43	20:10	20:20	20:32	20:49	21:03	21:12	

ITX-새마을 전라선 상행 From Yeosu-Expo to Yong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여수엑스포 麗水엑스포 Yeosu-Expo	여천 麗川 Yeocheon	순천 順天 Suncheon	구례구 求禮口 Guryegu	곡성 谷城 Gokseong	남원 南原 Namwon	전주 全州 Jeonju	익산 益山 Iksan	강경 江景 Ganggyeong	논산 論山 Nonsan	계룡 鷄龍 Gyeryong	서대전 西大田 Seodaeseon	천안 天安 Cheonan	수원 水原 Suwon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용산 龍山 Yongsan	비고 備考
1082	08:55	09:03	09:18	09:34	09:46	09:56	10:24	10:42	11:01	11:11	11:29	11:45	12:28	12:57	13:17	13:24	
1084	15:52	16:00	16:15	16:31	16:43	16:53	17:21	17:39		18:05	18:23	18:39	19:22	19:51	20:11	20:18	

ITX-새마을 경전선 하행 From Seoul to Jinju-Ma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서울 Seoul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수원 水原 Suwon	천안 天安 Cheonan	조치원 鳥致院 Jochiwon	대전 大田 Daejeon	김천 金泉 Gimcheon	구미 龜尾 Gumi	왜관 倭館 Wae-gwan	대구 大邱 Daegu	동대구 東大邱 Dongdaegu	밀양 密陽 Miryang	진영 進永 Jinyeong	창원중앙 昌原中央 Changwonjungang	창원 昌原 Changwon	마산 馬山 Masan	함안 咸安 Ham-an	진주 晉州 Jinju	비고 備考
1031	08:53	09:02	09:23	평택 09:42 09:55	10:16	10:40	11:31	11:47		12:16	12:22 경산 12:31	12:56	13:14	13:24	13:33	13:39	13:51	14:09	
1033	19:27	19:36	19:57	20:26	20:47	21:11	22:02	22:18	22:31	22:50	22:56	23:28	23:48	23:59	00:08	00:14	00:26	00:45	

ITX-새마을 경전선 상행 From Jinju-Masan to Seoul

열차번호 列車番號	진주 晉州 Jinju	함안 咸安 Ham-an	마산 馬山 Masan	창원 昌原 Changwon	창원중앙 昌原中央 Changwonjungang	진영 進永 Jinyeong	밀양 密陽 Miryang	동대구 東大邱 Dongdaegu	대구 大邱 Daegu	구미 龜尾 Gumi	김천 金泉 Gimcheon	대전 大田 Daejeon	조치원 鳥致院 Jochiwon	천안 天安 Cheonan	평택 平澤 Pyeongtaek	수원 水原 Suwon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서울 首爾 Seoul	비고 備考
1032	09:08	09:28	09:39	09:45	09:55	10:05	10:22 청도 10:35	10:58	11:04 왜관 11:22	11:36	11:51	12:44	13:07	13:28	13:40	14:00	14:21	14:29	
1034	15:47	16:07	16:18	16:24	16:34	16:43	17:00	17:33	17:39	18:08	18:23	19:16	19:39	20:00		20:29	20:50	20:58	

새마을호 장항선 하행 From Yongsan to Ik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용산 龍山 Yongsan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수원 水原 Suwon	평택 平澤 Pyeongtaek	천안 天安 Cheonan	아산 牙山 Asan	온양온천 溫陽溫泉 Onyangoncheon	신례원 新禮院 Sillyeowon	예산 禮山 Yesan	삼교 插橋 Sapgyo	홍성 洪城 Hongseong	광천 廣川 Gwangcheon	대천 大川 Daecheon	웅천 熊川 Ungcheon	서천 舒川 Seochon	장항 長項 Janghang	군산 群山 Gunsan	익산 益山 Iksan	비고 備考
1051	09:40	09:48	10:11	10:31	10:51	10:58	11:07		11:25	11:33	11:44	11:59	12:16	12:27	12:40	12:45	12:53	13:11	
1053	11:52	12:00	12:23		12:59	13:06	13:15		13:32		13:47	14:00	14:17	14:28	14:41	14:46	14:54	15:12	
1055	13:45	13:53	14:16		14:52	14:59	15:08		15:25	15:33	15:48	16:01	16:18	16:29	16:41	16:47	16:54	17:12	
1057	15:30	15:38	16:01		16:37	16:44	16:53		17:10		17:26	17:39	17:56	18:07	18:19	18:25	18:32	18:50	
1059	17:55																		

편의 시설

일반 객실

Passenger Compartment

좌석 간격
Seat Space



KTX
930mm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이동통신망

Free wireless Internet Service



열차 내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전용 콘센트&USB 포트
Socket&USB 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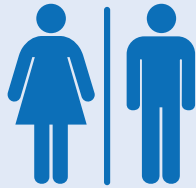
열차 내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편의 시설

Amenities

화장실

Restroom



KTX 1, 2, 4, 6, 8, 11, 13, 15, 17,
18호차와 KTX-산천 3, 5, 6, 8,
13, 15, 16, 18호차와
KTX-이음 1, 6호차와
ITX-새마을 1, 4, 6호차와
ITX-청춘 3, 6호차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시설

For the Handicapped



전동휠체어석과 장애인용
화장실은 KTX 2호차와
KTX-산천 1, 11호차와
KTX-이음 3호차와
ITX-새마을 3호차와
ITX-청춘 3호차에 있습니다.

수유실

Breast-Feeding Room



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수유실이
KTX 8, 16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와
KTX-이음 4호차와
ITX-새마을 6호차와
ITX-청춘 6호차에 있습니다.

물품 보관소

Luggage Storage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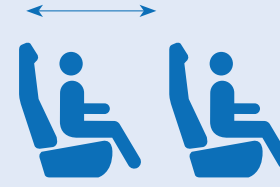
각 객차에 위치한
승강대에
여행용 가방 등 큰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AMENITIES

특실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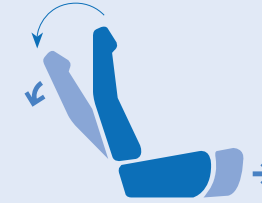
First Class Service

좌석 간격
Seat Space



KTX
1120mm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식음료
Refreshment



특실 이용객을 위한 셀프 서비스
물품은 KTX 3, 4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에 있으며
특실 생수 자판기는 KTX 3,
4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KTX 미니 도서관
KTX Mini Library



단행본은 KTX 4호차와
KTX-산천 3, 13호차,
잡지 신문은 KTX 3, 5호차와
KTX-산천 3, 13호차 지정
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갑자기 심장이 멈추거나
심장박동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줘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는 기계입니다.
KTX 4, 10, 15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와
KTX-이음 3호차와
ITX-새마을 3호차와 ITX-청춘
3호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동판매기
Vending Machine



음료 및 스낵 자판기가
KTX 5, 9, 11, 13, 16호차와
KTX-산천 2, 6, 12, 16호차와
KTX-이음 3, 4호차와 ITX-새마을
3, 4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의약품
First-Aid Medicine



KTX 열차 내에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어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필요한
약품을 제공합니다.

금연
No Smoking



역승강장과 열차 안은
모두 금연 구역입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과 건강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열림 버튼
Open-Button (1mins)

1분 열림 버튼
The Button to Open the Door for 1 Minutes
각 객실 출입문 위쪽에 위치하며 누르면 1분 동안 문이 열립니다.

부가 서비스

KTX 셔틀버스 8507번 길라잡이

- ※ 사당역-광명역간 직통 운행
사당역 탑승 시 사당역 4번 출구 앞 →
광명역 서편(상징광장) 정류소
광명역 탑승 시 광명역 3-1번 출구 →
서울대입구역 2번 출구 앞 →
사당역 3번 출구 앞
- ※ 운행 시간 오전 5시-자정(광명역 출발 막차
밤 11시 30분)/배차 간격 10분
- ※ 대중교통 환승 할인 수도권 통합 환승을
적용해 기존 버스타지하철 이용 시 할인 가능
- ※ 비용 절감 서울역과 비교해 광명역에서
KTX를 이용하면 2100원 절약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길라잡이

- ※ 탑승 수속
이용 시간 오전 6시 30분-오후 7시
탑승 수속 마감 항공기 출발 3시간 전
(대한항공 항공기 출발 3시간 20분 전)
수속 가능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서울, 이스타, 에어부산
수속 가능 노선 인천국제공항 출발
국제선 전 노선
- ※ 출국 심사
이용 시간 오전 7시-오후 7시
출국 심사 탑승 수속을 마치고 출입국
사무소에서 사전 출국 심사 가능

- ※ 코로나19 여파로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운영을 중단합니다. 운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KTX 특송

급송이 필요한 고객의 화물을 KTX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서비스입니다. 배송품은 주요
고속철도역에서 접수하며, 고객이 요구할 경우
퀵서비스를 연결하여 배송해 드립니다.
취급역 서울, 용산, 광명, 천안아산, 오송, 대전,
동대구, 마산, 부산, 익산, 전주, 목포, 광주송정,
여수엑스포, 포항 문의 1544-7781

KTX 공항버스 (6770번, 광명역→인천공항)



운행 시간 6:30 ~ 21:30(40-100분 간격/왕복 30회)
소요 시간 (T1→광명역) 약 50분,
(T2→광명역) 약 75분

타는 곳
(광명역) 서편 1번 출구 1-1번 버스정류장
(인천공항) T1 1층 8B번, T2 지하 1층 45번 정류장
승차권 구입 전국 기차역, 코레일톡 등

OPTIONAL SERVICES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길라잡이

Rail+

KTX 마일리지 1퍼센트 추가 적립,
모바일카드는 KTX 마일리지 전환 사용 가능

- ※ 플랫폼 구매처 CU 편의점, emart24, 스토리웨이
- ※ 모바일카드 다운로드 '레일플러스' 스마트폰 앱(Android, iOS)
iOS는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스티커 구매 → 부착 후 사용
- ※ 사용처 지하철, 버스, 기차, 택시, 유료도로, 편의점 등
- ※ 충전처 전철기차역, 편의점(CU, emart24, 스토리웨이) 등
- * 자세한 내용은 레일플러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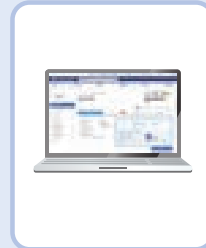


railplus.korail.com
QR코드를 스캔하면
레일플러스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열차 이용 안내

승차권 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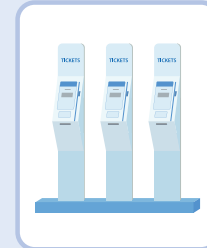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코레일톡은 열차 출발 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결제 금액 5만 원 이상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 후 스마트폰 승차권, 홈티켓으로 직접 발권할 수 있습니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letskor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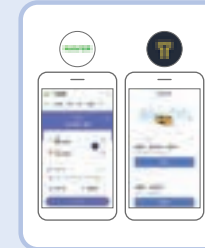
'코레일톡'
스마트폰 앱



승차권
자동 발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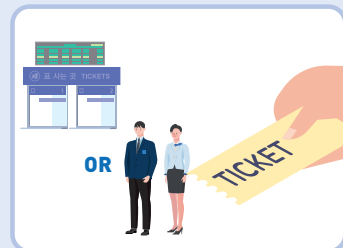
기차역 내 창구
또는 승차권 판매 대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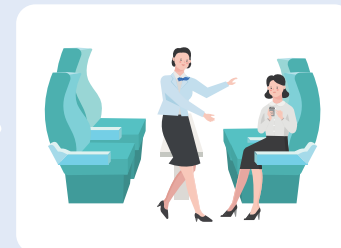
'네이버'·'카카오'
스마트폰 앱

승차권 분실

- 회원번호,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금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입석과 자유석 승차권, 분실한 승차권이 변경 또는 반환된 경우, 재발행한 승차권을 반환 또는 변경하거나 도착역 전에 내린 경우 승차권 반환 불가능



역 창구, 열차승무원에게 운임·요금
다시 지불하고 분실한 승차권 재발급



열차승무원에게 분실 승차권
미사용 확인 요청



역 창구에서 승차권 금액 반환
(최저 반환 수수료 제외)

승차권 반환

- 승차권 반환 시에는 환불 청구 시간,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 시간 및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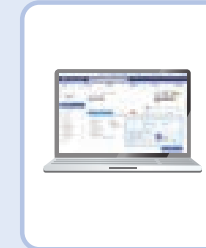
구분	출발 전		
	1개월~출발 1일 전	당일~출발 3시간 전	3시간 전 경과 후~출발 시간 전
월~목요일	무료		5%
금~일요일, 공휴일	400원(구입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5%	10%

구분	출발 후(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		
	20분까지	20분 경과 후~60분	60분 경과 후~도착
월~목요일			
금~일요일, 공휴일	15%	40%	70%

PASSENGER GUIDE

Ticket Boo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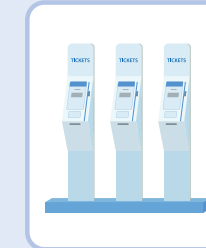
- Tickets can be purchased one month in advance and up to 20 minutes before departure (before departure in KORAIL Talk application).
- Installment option available if paying more than KRW 50,000 by credit card.
- Tickets issued as smartphone ticket or home ticket after pay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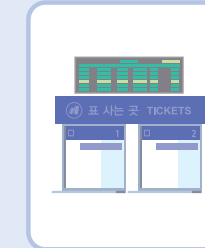
Let's KORAIL website
(letskor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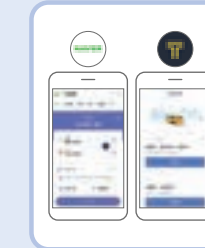
KORAIL Talk
Mobile App



Ticket vending
mach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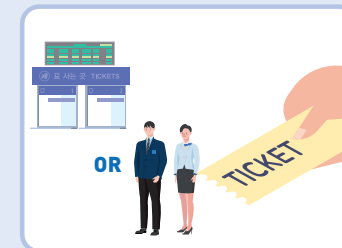
Ticket booth
or ticket retai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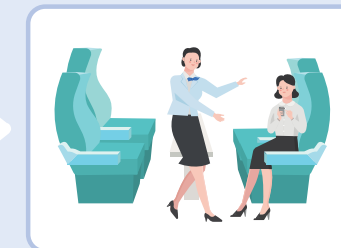
NAVER·KAKAO T
Mobile App

Ticket loss

- Refunds may be provided for ticket purchases made using the KORAIL membership number or a credit card.
Not applicable to standing tickets, change of lost tickets, change of reissued tickets, and unused sections from alighting before the destination station.



Pay fees at the ticket booth
or to the on-board crew to
reissue your ticket.



Check with the on-board crew that
your lost ticket is unused.



Receive a refund for your lost
ticket at the ticket booth.
(excluding service charge)

Ticket Re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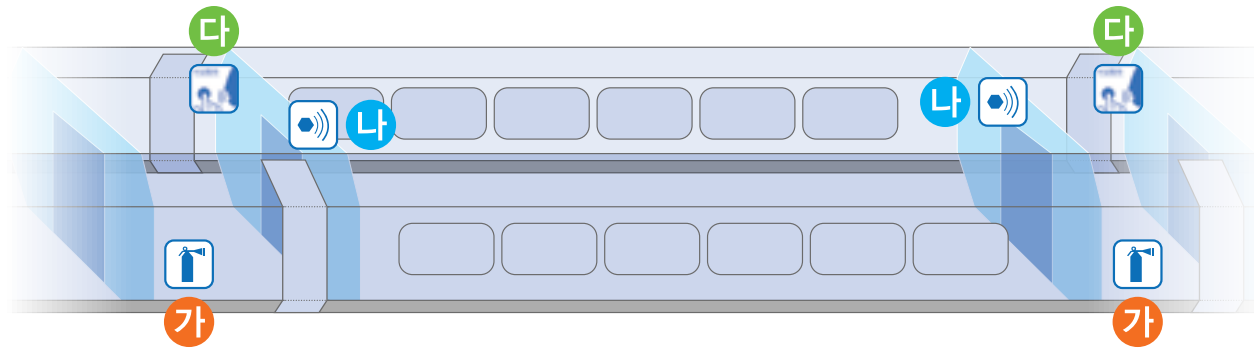
- Ticket refund value is calculated based on the time of refund claim, departure time specified on the ticket, and original price of ticket on the receipt. Note that a service charge applies.

Classification	Before Departure		
	1 month - 1 day prior to departure	Day of departure - 3 hours prior to departure	3 hours - before departure time
Mon-Thu	Free		5%
Fri-Sun, holidays	KRW 400 (Free within 7 days from date of purchase)	5%	10%

Classification	After Departure (Request refund at ticket booth)		
	Up to 20 minutes	20 - 60 minutes	60 minutes - arrival time
Mon-Thu			
Fri-Sun, holidays	15%	40%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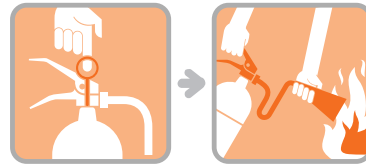
비상 상황

EMERGENCY PROCED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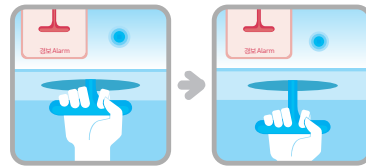
가 소화기 사용 요령 How to Use a Fire Extinguisher

- 승강문 옆 수하물실 아래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안전핀을 뽑는다.
Take out the fire extinguisher from the box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pin.
- 불이 난 장소에 골고루 분사한다.
Spray evenly at the area that is on fire.



나 비상알림 장치 Emergency Ala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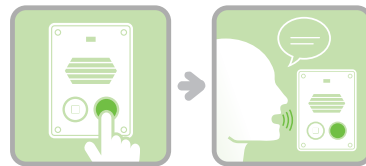
- 객실 내부 출입문 상단의 적색 손잡이를 아래로 당긴다.
Pull down the red emergency alarm handle located at the upper part of the interior door.
- 비상 경보음이 객실 전체에 울린다.
The emergency alarm goes off.



다 승무원통화장치 Contacting the Train Crew

KTX | KTX 산천 | KTX 이음

- 승강문 옆의 버튼을 누른다.
Press the intercom button next to the exterior door.
- 승무원이 응답하면 상황을 알린다.
Notify the train crew of the sit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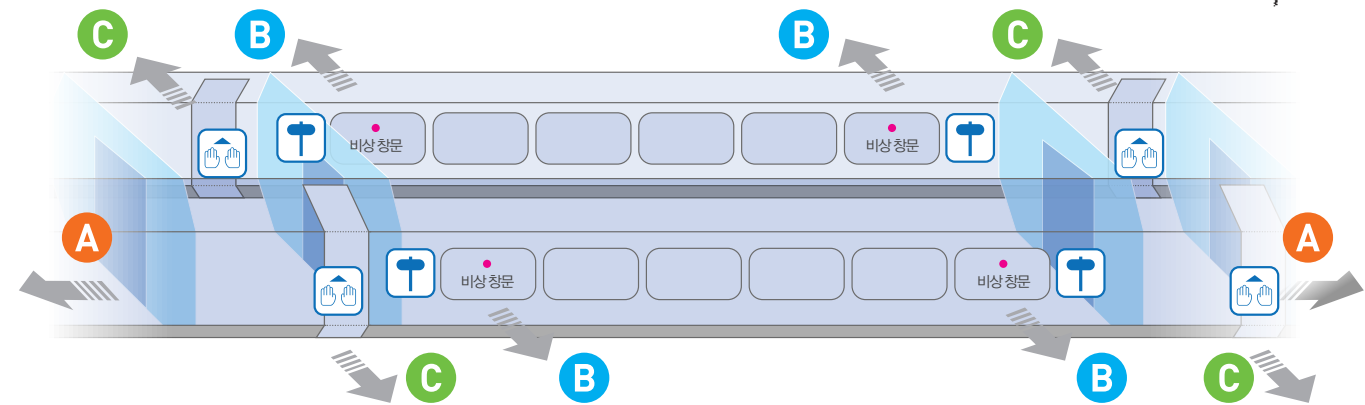
itx 새마을 | itx 정준

- 승강문 옆 또는 객실 안에 있는 승객용 비상 호출기 커버를 연다.
Open the emergency intercom box beside at the door or inside the car.
- 마이크를 꺼낸 후 적색 램프가 켜지면 마이크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상황을 알린다.
Take out the microphone. Once the red light is on, press the button on the left of the microphone and inform the situation.



비상 탈출

EMERGENCY ESCAPE ROUTE



A 다른 객차로 대피 Escape to an Unaffected Car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객차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부상자, 노약자, 임산부가 먼저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Follow instructions of the train crew and move to an unaffected car. Provide assistance to evacuate wounded, elderly people and pregnant women first.

A 터널 탈출 요령 Escape from a Tun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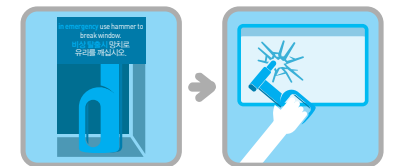
터널 내 비상사태 시 자세를 낮추고 비상 유도등을 따라 가까운 터널 입구로 탈출한다.
Follow the emergency exit light to go out the tunnel exit.

A 비상사다리 위치 Emergency ladder location

KTX: 5호차, 14호차 | KTX-산천: 2호차(일부 편성 4호차)
KTX-이음: 1호차, 6호차 | ITX-새마을: 4호차

B 비상창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mergency Window

- 승강문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객실 양쪽 끝에 있는 비상 탈출 망치의 보호 커버를 깨고 망치를 꺼낸다.
If you cannot escape through the exterior door,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hammer box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take out the hammer.
- 양 출입문 쪽에 있는 비상 창문 유리를 망치로 깨고 옷으로 창틀을 덮은 후 그 위로 나간다.
Break the emergency window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exit. Put clothing over the windowsills to protect yourself from broken glass.



C 승강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xterior Door

KT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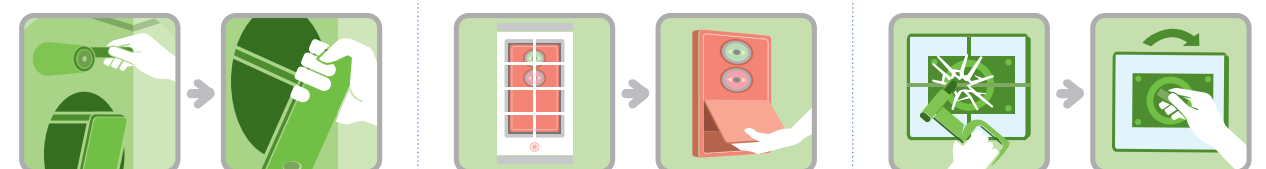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rs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upper handle down.
- 아래 손잡이를 앞으로 당기고 승강문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ower handle down and push the door.

KTX 산천 | KTX 이음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l next to the exterior door.
- 핸들을 2회 당기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handle twice and push the door.

itx 새마을 | itx 정준

- 승강문 옆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emergency door release box.
-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ever to the right. Push door forward and to the side.



Epilogue



2022년 1월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감 중인 어느 날 밤 눈이 내렸다. 내리는 줄 몰랐는데 사무실에서 잠시 나와서야 알았다. 보드득보드득, 쌓인 눈을 밟을 때마다 소리가 났다. 골목 끝까지 밟고 싶었지만 몇 걸음 걷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마감을 해야 하니까. 마감이 아니었다면 계속 눈을 밟았을까? 그건 아무도 모른다. 늦은 시각이었고, 설령 주말 낮이었더라도 집에 있었다면 눈이 내리는지 인지조차 못할 수 있다. 혹은 보드득보드득 소리를 감상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내리는 눈을 즐겼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마감 중에 이토록 수북이 쌓인 눈을 아주 잠깐만 밟았더라도, 이게 좋은 일인지 아쉬운 일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이런 경우를 가정하면 좋은 일이고 저런 경우를 가정하면 아쉬운 일이 되니까. 판단은 영원히 미루기로 하고, 짧은 순간이나마 골목에 쌓인 눈을 바라봤다. 1월호 발간을 앞두고 있다. 매거진이 잠시 쓴 지난 몇 달을 되돌아보며, 눈 쌓인 골목을 생각한다. 보드득보드득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다. **김규보**

감과 감흥

떠난 자는 돌아온다. 내가 바로 그자다. 5년 동안 여행 매거진 기자 생활을 하다가 3년간 출판 편집자로 잠시 외도를 했다. 지난 3년은 격동의 세월이었다. 팬데믹 시대가 도래하면서 20대의 절반을 고스란히 바친 여행 매거진이 잠정 폐간했고, 만들던 여행 책을 더 이상 출간할 수 없게 됐다. 여행이라는 게 대체 내게, 우리에게 무엇을 까고 고민하고 방황한 시간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이달부터 <KTX매거진> 편집부에 합류하면서 다시 여행길에 오르게 됐다. 기자 여행 이라니 더 들뜨고 흥분되는 마음이다(실은, 이 지독한 마감 풍경이 얼마나 사무치게 그리웠는지 모르겠다. 아무래도 '마감 물'은 매달 먹는 게 체질인가 싶다). 공교롭게도 <KTX매거진> 역시 이번 2022년 1월호를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독자님들 앞에 선다. 오랜만에 기분 좋은 긴장감에 휩싸인다. <KTX매거진>에서의 첫 취재를 기념하려고 사진도 남겼다. 강미선 작가님의 문매현에 초대받았을 때 선물로 건네받은 감 하나. 한동안 잊지 못할 감흥이다. **강은주**



반짝이고 싶어요

첫 직장, 첫 출근, 첫 출장 그리고 <KTX매거진>. 흔히 말하는 '좋은 때'를 다 보내고 드디어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정신없는 하루가 흘러가고 일은 쏟아지는데 신기하게 퇴근할 즈음엔 모든 일이 얼추 정리되었다. 대망의 첫 출장날, 한정 선배와 광주로 향했다. 다행히 날이 맑아 촬영이 순조로웠다. 음식을 세팅하고 사진을 촬영한 뒤 가게 사장님을 인터뷰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반짝반짝 빛이 난다. 선배들이 그랬다. 처음 겪는 상황에 당황하면 선배들은 짠 하고 나타나 "여기로 가자!"라고 이끌어 주었다. 인터뷰하는 한정 선배의 질문을 들으며 얼마나 놀랐는지. 질문 하나로 답변의 질이 달라지는구나 싶었다. 그리고 그때 선배는 반짝 거렸다. <KTX매거진>을 만드는 모든 사람이 그랬다. 문득 나도 언젠가 저렇게 반짝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반짝이고 싶다. 반짝이는 노력을 담은 빛나는 책을 만들고 싶다. 모든 것이 처음이지만 앞으로 반짝여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남혜림**



독자 편지를 보내 주세요!

<KTX매거진>을 읽은 소감과 독자님의 여행 사진을 기다립니다. KTX@seoulmedia.co.kr로 독자 평가 들려주고픈 이야기,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내 주세요(사진은 600KB 이상). 메일에 이름·연락처·주소를 꼭 기재해 주시고, 마감은 1월 15일입니다. 독자 편지에 선정된 분께는 농부야씨의 사랑이 담긴 브랜드 페르미어파파의 키즈 라인 제품 울안원 젤워시, 로션, 크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천년초와 모링가 성분을 함유해 연약한 어린이 피부에 자극 없이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 주는 제품입니다.

임인년 새해, 새로운 시작

과거와 미래를 잇고 다시 나아갑니다.

당신의 삶이 문화가 되고,
당신의 생각이 예술이 되는 곳

세계로 나아가는 아시아 문화의 창

ASIA CULTURE CENTER

국립아시아문화전당



KTX

바로 지금, 여행

경주

역사 속으로
퇴장할 역을 기억하며

